

제주 한시 미학

강사 ■ 심규호(제주중국학회 회장)

기간 ■ 2025년 3월 11일 ~ 5월 20일

오후 2시~4시(매주 화요일) / 10회

- 1강. 3월 11일(화)
- 2강. 3월 18일(화)
- 3강. 3월 25일(화)
- 4강. 4월 1일(화)
- 5강. 4월 8일(화)
- 6강. 4월 15일(화)
- 7강. 4월 22일(화)
- 8강. 4월 29일(화)
- 9강. 5월 13일(화) *5/6 대체 휴일
- 10강. 5월 20일(화)

장소 ■ 제주학연구센터 강의실(2층)

※ 강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차례

차시	주제	쪽수
1강	■ 한시와 한자(1) 1-1. 한자의 특질 1-2. 한자의 형성 1-3. 한자의 형태 변화 1-4. 한자의 음가 표시 방법 1-5. 성조와 운율 1-6. 사전과 자전 1-7. 한자의 회화성 1-8. 한자의 재미	1
2강	■ 한시와 한자(2) 2-1. 표의문자로서 한자와 한시 2-2. 한자는 시를 담는 수레 2-3. 한시는 무엇을 담는가? 2-4. 한자를 떠난 시의 묘미 2-5. 한자의 음악성 2-6. 전고의 활용	15
3강	■ 한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3-1. 한시 배우기 가. 한시를 배워야 했던 이유 나. 조선시대 한자 입문서와 한문 배우기 다. 學詩의 필독서 『당음』과 『당시삼백수』 라. 당시와 송시 마. 「學詩」 3-2. 한시 짓기 가. 情과 景 나. 창작사유 다. 작시의 즐거움과 어려움 라. 한시의 효용론 마. 「論詩」	30
4강	■ 한시의 작가를 찾아서 4-1. 작가론 가. 이백 나. 두보 다. 왕유 라. 소식 4-2. 고려, 조선의 시인과 명시	60
5강	■ 한시를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5-1. 한시의 이해와 감상 가. 시의 맛이란 무엇인가? 나. 시평 다. 풍격이란 무엇인가? 라. 인품과 시품 마. 고전 시가의 풍격론 바. 시로 시를 논하다 사. 해석의 차이 아. 詩眼을 찾아서	93

제1강

■ 한시와 한자(1)

- 1-1. 한자의 특질(음운, 문법, 의미의 측면에서)
- 1-2. 한자의 형성 - 육서六書의 진실
- 1-3. 한자의 형태 변화(갑골문에서 간체자까지)
- 1-4. 한자의 音價 표시 방법(반절에서 병음까지)
- 1-5. 성조聲調와 운율韻律
- 1-6. 사전辭典과 자전字典(한어사전과 옥편玉篇, 『설문해자』)
- 1-7. 한자의 회화성 - 한자 예술(서예, 서법, 서도)
- 1-8. 한자의 재미 - 성어成語, 속담(諺語), 이어俚語, 파자破字, 합자合字

한시는 한자로 쓴 시이다. 한시를 알려면 한자가 지닌 속성 또는 특색부터 알아야 한다. 한시의 매력이 한자의 그것과 상통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하며, 한글을 쓰는 우리에게 한자로 이루어진 한시는 남의 시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한자는 우리글의 일부분이고, 한시 또한 우리 전통의 주요한 보고이다.

한자는 박래품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글로 활용된다. 대략 기원전 2세기 북부에 고조선의 제2대 세습왕조인 위만조선衛滿朝鮮(기원전 194~108, 도읍지 왕검성)이 등장하면서 처음 전래되기 시작하여 한 무제가 낙랑, 대방, 임둔, 진번, 현도 등 다섯 개의 군(일명 漢四郡, 기원전 82년 진번군과 임둔군이 폐지되면서 각기 낙랑군과 현도군에 통합되었는데, 낙랑군의 남쪽 일부를 분할하여 대방군을 설치함)을 설치하면서 상층부는 물론이고, 인근의 부여나 고구려, 백제에도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선진문화가 낙후된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한글이 한국어를 기록하는 부호符號인 것처럼 한자는 한어漢語, 즉 중국 56개 민족 가운데 인구의 90%를 넘는 한족(漢族)이 쓰는 말을 기록한 글자이다. 그러나 한자는 한족의 문자라는 범위를 벗어나 이른바 한자문화권, 즉 한국, 일본, 월남(19세기 이전) 등지는 물론이고, 세계 도처에 산재한 화교들의 문자이기도 하다. 한자는 배우기가 쉽지 않다. 우리글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연히 우리말과 연동되면 ‘驛前앞’, ‘結婚하다’, ‘猶豫하다’, ‘狼狽당하다’가 된다. 한자는 어떤 글자인

가? 우선 음운, 문법, 의미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을 알아본다.

1-1. 한자의 특징(음운, 문법, 의미의 측면에서)

가. 한자(한어)는 단음절어로 성조(聲調)를 지닌다.

한어는 음운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단어를 이루어진 단음절어(Monosyllabic Language)(현대어는 多音節化하는 경향이 우심하지만 여전히 한어의 50% 이상이 단음절이다)이며 각기 성조를 지니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현대 한어는 415개의 음절을 갖고 있으며, 성조를 구별하면 대략 1300개 정도이다. 1만여 개의 음절을 지닌 영어보다 훨씬 적다. 성조와 성운은 한시의 중요한 시적 요소로 활용된다. 압운, 평측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평성 글자로 구성된 평체, 측성 글자로만 구성된 측체, 각 행 머리글자를 모두 측성자로 시작하는 측기체, 留連, 獨待처럼 성부가 같은 쌍성자雙聲字, 滴瀝, 徘徊처럼 운바가 같은 첩운자를 활용하여 쌍성체와 쌍성대, 첩운체와 첩운대를 표현 기법으로 사용했다.

나. 한자(한어)는 고립어이다.

문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접두어나 접미어가 드물고 성이나 수에 따라 동사가 변화한다거나 주격, 목적격 등에 따른 격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고립어(Isolating Language)의 특징을 지닌다. 한자는 단음절어이자 고립어(교착어와 반대)이기 때문에 글자의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며, 낱말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활용된다. 이는 해석상의 난점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정확한 의미전달을 방해하기도 한다.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뜻을 나타내고, 고립어이며, 문법적 기능에 따른 형태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물, 개념, 관념이 생겨날 때마다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지거나 기존 글자에 새로운 의미가 부가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글자에 새로운 의미가 부가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발음이 같은 글자도 많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첫째, 하나의 글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다.(樂, 즐거울 락, 음악 악, 좋아할 요) 掐卡은 원래 꺾 끼이다의 뜻인데, 카드의 의미를 부가했다. 병병乒兵(ping1 pang1)

둘째, 성조를 적극 활용하다. 평상거입 성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음악의 악은 입성, 좋아할 요는 거성)

셋째, 한자의 발음 부위와 성질에 따라 36개의 聲을 구분하고, 발음 방법에 따

라 106개(이전에는 206개)의 韻으로 구분하여 3600여 개의 聲韻을 만들었다.

한문은 문법적 기능이 약한데, 특히 주격이나 목적격 등은 위치에 따라 달라질 뿐, 형태변화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떻게 끊어 익느냐에 따라 의미가 정반대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속어에 이런 말이 있다. 객이 물었다. “下雨天留客天留人不留.” 주인이 똑 같이 대답했다. “下雨天留客天留人不留.” 그러자 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차비를 했다. 왜 그랬을까?

劉玉琛《標點符號用法》에 따르면, 띄어쓰기의 방식이 9가지이고, 그 의미 또한 9가지이다.

- 1、下雨天留客，天留我不留。
- 2、下雨天留客，天留，我不留。
- 3、下雨天留客，天留我？不留。
- 4、下雨天留客，天留我不？留。
- 5、下雨，天留客；天留我不留！
- 6、下雨天，留客天，留我？不留。
- 7、下雨天，留客天，留我不？留。
- 8、下雨天，留客天，留，我不留？
- 9、下雨，天留客，天留我不留。

또 다른 예. 不可不可, 불가 불가인가? 불가불 가인가? 김윤식이 한일합당 당시 합방조인문서에 조정대신들이 자신의 이름을 적고 가부를 적었는데, 김윤식은 “불가불가”였다. 합방이 되자 자작의 작위와 은사금을 받았으며,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의 독립 승인을 요구하는 「대일본장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작위도 박탈당했다.

다. 한자는 다의성(多義性: ambiguity)을 지닌다.

진자양(陳子昂)의 「감우(感偶)」 제 2수에 나오는 첫구절은 “蘭若生春夏，苒蔚何青青。”으로 시작된다.¹⁾ 여기서 ‘난(蘭草)’과 ‘약(杜若)’은 모두 향초의 이름이다. 그러나 선진시대 『초사(楚辭)』에서 이미 다양하게 묘사된 것과 같이 향초는 그윽한 현사(賢士)의 상징이었다. 또한 봄(春)과 여름(夏) 역시 단순히 계절의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청년기와 장년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는 봄과 여름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봄과 여름을 노래한 시가 되는 셈이다. 이렇듯 한자의 다의성은 시어

1) 진자양(陳子昂)의 「감우(感偶)」 제 2수는 다음과 같다. “蘭若生春夏，苒蔚何青青。幽獨空林色，朱蕤冒紫莖。遲遲白日晚，裊裊秋風生。歲華盡搖落，芳意竟何成。”

의 다의성으로 연결되면서 연상력과 함축미를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자의 다의성은 소리와 관련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특정 글자가 다른 글자와 음이 동일함으로써 다른 글자의 의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쌍관어가 그것이다. 蓮은戀, 絲는思, 靑은情 등은 성조는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음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로 활용할 때 쌍관어가 독특한 역할을 한다. 뜻이 많으니 해석상 애매 모호曖昧模糊해질 때가 많다. 그런 까닭에 한자는 과학, 기술, 철학 용어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적인 언어로는 제격이다.

참고: 한어 표점부호의 종류

句号 ./ 問号 ? / 叹号 ! / 逗号 , / 顿号 、 / 分号 ; / 冒号 : / 引号 “ ”, “ ” / 括号 () , 괄호의 기타 형식 [], [], 【 】, 파절호破折号 —— / 생략호 …… / 연결호连接号 세 가지 “-”, “—”와 “~” / 간격호間隔号 “.” / 서명호书名号 “《 》”, “〈 〉” / 분격호分隔号 “/”

라. 한자의 회화성

상형은 사물의 모양을 본뜬 것이고, 지사는 추상적인 의미를 알기 쉬운 상징적 부호로 구체화한 것이다. 형성 역시 회화성을 부분적으로 드러낸다. 에즈라 파운드, “한자를 시어로 활용할 때 적지 않은 함축과 연상 작용을 유발시키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한자의 회화성은 한자 예술, 특히 서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1-2. 한자 만드는 방법 - 육서六書의 진실

《說文解字·序》, “창힐이 처음 문자(한자)를 창조할 때 대개 사물의 유형에 따라 그 모양을 본떠 만들었으므로 ‘문’이라 일컬었다. 그 후에 形과 聲이 서로 더해졌으니 이를 ‘字’라고 했다. ‘문’은 만물 형상의 근본이고, ‘자’는 불어나 점차 많아지는 것을 말한다(倉頡之初作書, 蓋依類象形, 故謂之文. 其後形聲相益, 即謂之字. 字者, 言孳乳而浸多也).”

상형자(象形字): 마(馬)는 말이 갈기를 세우고 앞발을 든 채로 달려가는 모습을 형용한 상형자(象形字)이다. 상형(象形)이란 한자의 구성원리 여섯 가지, 즉 상형,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전주(轉注), 가차(假借) 가운데 가장 먼저 응용된 것으로 사물의 모양을 본 따 만드는 방법이다. 허신은 『설문해자』에서 “상형이란 사물을 따라 획을 그려 사물의 형체가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일(日)과 월(月)이 그 예이다(象形者, 畫成其物, 隨體詰, 月日是也)”라고 하였다. 말인 즉 형체를 본 따서 글자를 만든다는 뜻이다. 상형자는 사람 인(人), 귀 이(耳), 눈 목(目) 입 구

(口), 일(日), 달 월(月), 물 수(水), 개 견(犬), 양 양(羊), 소 우(牛), 말 마(馬), 나무 목(木) 대나무 죽(竹), 벼 화(禾) 등과 같이 한자의 부수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한자의 구성원리 가운데 비교적 일찍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사자(指事字): “지사라는 것은 보아서 알 수 있고, 살펴서 그 뜻이 드러나는 것으로, 上과 下 같은 것이 그 예이다(指事者, 視而可識, 察而見意 上下是也)” 허신의 설명은 대단히 모호하여 역대로 많은 이들이 다양하게 해석하였으며, 때로 상형자, 회의자 등과 혼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指事의 指는 지시한다는 뜻으로 부호를 사용해서 가리킨다는 뜻이고, 事는 글자의 뜻이란 의미로 비교적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무형의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을 점이나 선과 같은 부호로 나타내는 경우, 예를 들어 一, 二, 三 등과 같은 숫자가 대부분 지사자이다. 다음 本, 末처럼 기존의 상형자에 지시부호를 넣어 새로운 글자를 만든 경우도 있다. 本은 木 밑에 ‘一’을 더하여 나무의 뿌리가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데, 이에서 ‘밑’, ‘뿌리’, ‘근본’ 등의 뜻이 나왔고, 末 역시 木에 나무의 끝부분을 나타내는 지시부호인 ‘一’을 더해 ‘끝’, ‘지엽’이란 뜻이 나왔다.

형성자(形聲字): 작은 시냇물과 달리 강(江)이나 하(河)는 제법 넓은 땅을 가로지르는 큰 물줄기를 뜻한다. 허신은 『설문해자』에서 형성자를 설명하며 “형성이란 일을 이름으로 삼고 서로 비유하는 바를 모은 것으로, 강과 하가 그 예이다”라고 했다. 형성자란 이렇듯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인 의미부와 글자의 음을 기록한 부분인 소리부로 나눌 수 있다. 『설문해자』에서 ‘從某, 某聲’라고 쓰여진 것은 어떤 글자를 의미부로 삼고, 어떤 글자를 소리부로 삼는다는 뜻이다. 갑골문에도 이미 지사나 회의의 글자는 적지 않고, 형성자는 이미 20퍼센트를 점하고 있다.

회의자(會意字): 회의(會意)는 말 그대로 ‘뜻을 합친다’는 의미이다. 서로 다른 글자나 같은 글자를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임(林)자는 木자가 두 개 합쳐져 수풀의 뜻이며, 삼(森)자는 木이 세 개 붙어 나무가 뻥뻥하게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 특히 森자는 나무가 뻥뻥하게 들어섰기 때문에 으스스하거나 엄중한 분위기를 뜻한다. 음삼(陰森)이나 삼엄(森嚴)이란 말은 이에 따른 것이다. 火가 두 개가 합치면 불탈 염(炎)자이고, 세 개가 합치면 불꽃 염(焱)자이다. 金자가 세 개 합친 것은 기쁠 흠(鑫)자인데, 주로 사람이나 상점 이름에 많이 쓰인다. 기쁘다는 뜻보다 돈이 많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외에 서로 다른 글자끼

리 합쳐진 회의자도 적지 않다.

가차자(假借字): 가차(假借)는 말 그대로 빌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인정(人情) 사정(事情) 볼 것 없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가차없다’라는 말은 빌릴 필요도 없다는 뜻이 본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차자(假借字)라고 하면 빌린 글자, 즉 마땅한 한자가 없을 때 이미 있는 한자의 음만 빌려 쓴 글자를 말한다. 진짜(眞字)가 아니라 가짜(假字)인 셈이다. 한자를 만드는 방법인 육서 가운데 하나라고 하지만 전주(轉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자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허신(許慎)은 「설문해자」에서 “가차라는 것은 본래 그 글자가 없었으나 음성에 의탁하여 물상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令)과 장(長)이 그 예이다(假借者, 本無其字, 依聲託事, 令長是也)”라고 하였다.

의성(依聲)은 글자의 소리에 따른다는 뜻이고, 탁사(託事)는 다른 글자의 뜻에 기탁한다는 뜻이니, 어떤 대상이 말은 할 수 있으나 글자가 없을 경우 기존의 글자를 빌려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신은 영과 장을 예로 들고 있는데, 영은 본래 ‘명령하다’는 본 뜻을 가진 글자인데, 한나라 시절 관직명으로 가차하여 현령(縣令)이란 관직을 만들었고, 장은 본래 ‘오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이 역시 한나라 때 관직명으로 가차하여 만호(萬戶) 이하의 현을 관리하는 현장(縣長)이란 직함을 만들었다.

전주(轉注): 육서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전주이다. 허신은 『설문해자』에서 “전주는 같은 부수에 속하면서 같은 뜻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고와 노가 그것이다(轉注者, 建類一首, 同意相受, 考老是也)”라고 하였다. 과연 그 본래 뜻이 어떤 것인지 역대로 해석이 분분(紛紛)하여 자그마치 100여 가지가 난무하니, 딱히 무어라고 단정 짓기 쉽지 않다. 허나 분명한 것은 전주가 지사, 상형, 형성, 회의 등 네 가지 글자 만드는 방식과 달리 일종의 글자 운용 방식이라는 점이다. 허신은 “같은 부수에 속하면서 같은 뜻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전주라고 하였다.

남당 사람 서개(徐鍇)는 이에 대해 “노(老)의 다른 이름에 기(耆)도 있고, 수(壽)도 있으며, 구(耇)나 모(耄) 등이 있다.……이러한 글자들은 모두 노(老)자를 ‘돌려가면서 주석’한 것이다. 이는 비유컨대 물이 수원지에서 발원하여 장강(長江)이 되기도 하고 한수(漢水)가 되기도 하여 각기 그 이름을 지니게 되지만 실제로는 본래 같은 물에서 근원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라고 하였다. 말인 즉 하나의 의미에 여러 가지 소리 또는 글자가 더해져진 것이 바로 전주라는 뜻이다.

* 상형, 지사, 형성, 회의자는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고, 가차와 전주는 글자의 운용 방식이다.

1-3. 한자의 형태 변화(갑골문에서 간체자까지)

가. 한자 7체

갑골문甲骨文, 금문金文, 전서篆書, 예서隸書, 해서楷書, 초서草書, 행서行書.

나. 간체자 만드는 방법

1) 고자古字 통용 : 云、电、礼、尔、后、才

2) 속자俗字 : 민간의 전통적인 간체자 体、声

3) 초서草書 활용 : 书、为、东

4) 새로운 글자 : 생략, 형태 바꿈, 대체

생략: 号-號、术-術、阳-陽、际-際

형태 바꿈: 洁-潔、议-議、体-體、灶-竈、齐-齊、团-團、劝-勸、戏-戲、鸡-鷄

대체: 필획이 간단한 글자로 바꿈 几-幾

5) 부수의 간체화 言(说、讲), 金(银、铜、铁)

1-4. 한자의 音價 표시 방법(반절에서 병음까지)

1) 비유법譬況法.

漢魏 이전에는 사람들이 비유를 통해 한자에 음성을 주입하고, 발음할 때의 말투, 혀 위치, 입김의 완급, 성조의 길이 등을 묘사하여 글자의 독음을 설명했다. 동한東漢 고유高誘는 ‘치駘(말 뒷걸음질 치)’의 음가에 대해 “치는 질처럼 읽으며, 완만하게 발음하고 혀에서 나는 소리이다(駘讀似質, 緩氣言之者, 在舌頭乃得).”

2) 독약법讀若法.

동한시대부터 ‘독약’이라는 주음법注音法이 생겨났다. 어떤 글자의 음처럼 읽힌다는 뜻이다. ‘독약’은 ‘讀如’、‘讀爲’、‘讀似’、‘讀曰’、‘聲同’、‘聲近’이라고 쓰기도 한다. 앞서 말한 ‘치는 질처럼 읽는다(駘讀似質)’가 독약법이다. 허신許慎의 《설문해자說文解字》의 독법이다. 《說文解字·宀部》, “宋, 居也, 從宀從木, 讀若送.”

3) 직음법直音法.

한대漢代 시작. 독음이 동일한 한자를 선택하여 음을 표시하는 방법. “某音某”. 《漢書·高帝紀》, “單你人呂公善沛令.” 注云, “單, 音善. 父, 音甫.”

4) 뉴사성법紐四聲法

남북조 시대에 한자에 평상거입平上去入 성조가 있음을 발견하면서 주음할 때 성모와 운모가 같은 글자를 선택하고 평상거입을 넣어 성조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당대 현도玄度가 편찬한 《신가구경자양新加九經字樣》에서 이런 방식을 채용했다. “控, 空去.” 공控은 공공자의 거성으로 읽는다는 뜻이다.

5) 반절법

반절反切은 성모가 같은 글자 하나, 운모와 성조가 같은 글자 하나를 조합하여 음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반反’, ‘절切’, ‘번翻’, ‘반어反語’라고 쓰기도 한다. 북제北齊 안지추顔之推의 《안씨가훈顔氏家訓·음사편音辭篇》에 따르면, “손숙연孫叔然(손염孫炎, 숙연은 字)이 이아음의를 만들었는데, 한말 사람들이 처음 반어를 알게 되어 위나라에 이르러 널리 행해졌다(孫叔然創爾雅音義, 是漢末人獨知反語, 至於魏世, 此事大行.” 하지만 실제로는 손염 이전에 이미 반절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동한東漢 복건服虔은 《한서漢書》 주에서 “惝, 音章瑞反”라고 했다. 아마도 손염이 반절법을 정리하여 『이아음의(爾雅音義)』를 편찬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절법은 수당 시대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청대 강희제의 칙령에 따라 편찬된 『강희자전』은 물론이고, 조선도 이를 받아들여 『용비어천가』 등에 한자를 표기할 때 반절법을 활용했다. 당대에 승려 수온守溫이 한자의 30성모聲母를 채택했고, 송대 사람이 36개 자모字母를 보충하여 운서韻書의 운모자韻母字를 운모韻母로 삼았다. “孝, 呼教切” “東, 德紅切.”

6) 주음부호, 주음자모注意字母

중화민국이 설립된 후 1913년 중화민국 교육부가 자음 통일을 위해 ‘독음 통일회’를 설립했다. 루쉰魯迅, 쉬서우상許壽裳 등이 장타이엔章太炎이 개발한 주음부호注音符號를 ‘주의자모注意字母’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1918년 북양정부 교육부에 의해 공식 발표되었다. 중국 최초의 주음문자(이후 주음부호호로 개칭)이며 현재까지 타이완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다.

7) 국어 로마자

1928년 남경대학에서 《국어로마자방안國語羅馬字方案》이 공포되었다. 린위탕林語堂 등이 창 의하고, 자오위안런趙元任이 주관했으며, 첸쉬엔통錢玄同 등이 참여했다. 北京話를 표준으로 삼아 운모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성조를 표시하고 별도의 성조 부호는 달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배우기가 어려워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陝西省: 'Shaanxy Province'

8) 한어병음漢語拼音

중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성모(聲母)는 b, p, m, f, d, t, n, l, g, k, h, j, q, x, zh, ch, sh, r, z, c, s 등 21개, 운모(韻母)는 yi(-i), wu(-u), yu(-ü, -u), a, o, e, ai, ei, ao, ou, an, en, ang, eng, er 등 15개, 총 36개로 구성되어 있다.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문자개혁위원회에서 1956년 《漢語拼音方案(草案)》을 만들고, 이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1958년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 최초의 로마자 표기법은 19세기 중반 영국인 토머스 웨이드 경(Sir Thomas Francis Wade, 중국명 威妥瑪, 1818~1895)이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출판한 중국어 입문서 『語言自邇集』에서 사용했다. 19세기 말 영국인 허버트 자일스(Herbert Allen Giles, 1845~1935)가 이 표기법을 약간 수정하여 자신이 편찬한 『A Chinese-English Dictionary』에서 사용했다. 그래서 이 표기법을 웨이드-자일스 표기법 또는 웨이드식 표기법이라고 부른다.

1-5. 성조聲調와 운율韻律

가. 성조聲調

聲調는 언어(단어)의 음조 변화를 말한다. 중국어 음절에 내재된 의미를 고별할 수 있는 소리의 높낮이의 뜻이다. 성조의 높낮이는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로 표시 방법을 사용한다. 5세기 무렵에 형성된 전통적인 음운은 平上去入 四聲으로 구분하며, 隋、唐의 운서인 『절운切韻』이나 송대의 『광운廣韻』 또한 사성을 사용했다. 중국 남조 제량齊梁 연간에 주옹周顒은 『사성절운四聲切韻』, 심약은 『사성보四聲譜』를 통해 중국어에 성조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梁書·沈約傳』, “約撰四聲譜, 以爲在昔詞人, 累千載而不悟, 而獨得胸衿, 窮其妙旨, 自謂入神之作. 高祖雅不好焉, 帝問周舍()曰: ‘何謂四聲?’ 舍曰: ‘天子聖哲是也.’” ‘천자성철’이나 ‘평상거입’은 순서대로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을 대표한다. 나중에 평성은 음평과 양평으로 나

뉘고, 상, 거, 입성도 각기 음양으로 구분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평성은 구분이 되지 않고 나머지만 음양으로 구분되어 지금도 7성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복건성의 복주어, 객가어, 민남어 등이다. 평성 외에 상, 거, 입성은 측성仄聲이라고 부른다. 평측법은 곧 평성과 측성의 운용에 관한 것이다.

고대의 평상거입 사성이 곧 현대의 성조(1성, 2성, 3성, 4성)와 같지는 않다. 지금의 보통화(한어)는 입성은 사라지고(남방에는 남아 있음), 음평陰平, 양평陽平, 상성上聲, 거성去聲 네 가지 성조를 말한다.

5律 평측은 네 가지 유형이다.

仄仄平平仄, 平平仄仄平;

平平平仄仄, 仄仄仄平平.

仄起式

(仄)仄平平仄, 平平仄仄平.(平)平平仄仄, (仄)仄仄平平.

(仄)仄平平仄, 平平仄仄平.(平)平平仄仄, (仄)仄仄平平.

杜甫, 春望

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感時花濺淚, 恨別鳥驚心.

烽火連三月, 家書抵萬金.白頭搔更短, 渾欲不勝簪.

平起式

(平)平平仄仄, (仄)仄仄平平.(仄)仄平平仄, 平平仄仄平.

(平)平平仄仄, (仄)仄仄平平.(仄)仄平平仄, 平平仄仄平.

[唐]王維, 山居秋暝

空山新雨後, 天氣晚來秋.明月鬆間照, 清泉石上流.

竹喧歸浣女, 蓮動下漁舟.隨意春芳歇, 王孫自可留.

나. 성조의 활용(한시와의 관계)

1) 山西(shānxī)와 陝西(shǎnxī): ‘산’과 ‘섬’은 소리는 같지만 성조가 다르다. 同音異議語가 많기 때문에 성조는 이를 구분하는 좋은 방식이다.

2) 한자에 음악성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시가 노래가 되고, 시의 운율과 압운, 성률 등이 활용될 수 있다.

3) 성조는 사람의 감정을 반영한다.

“평성은 양이고 측성은 음이고 평성은 소리가 길고 측성은 소리가 짧고 평성은 소리가 비고 측성은 소리가 알차고 평성은 종과 북을 치는 듯하고 측성은 나무와

돌을 치는 듯하다(平聲爲陽, 仄聲爲陰. 平聲音長, 仄聲音短. 平聲音空, 仄聲音實. 平聲如擊鐘鼓, 仄聲如擊木石).”

『음학변징音學辨徵』, 강영江永(1681~1762)

“평성은 평탄한 길이 처음에 낮다가 높고 상성은 높이 부르며 맹렬하게 세고 거성은 분명하게 슬프고 먼 길이고 입성은 짧고 재촉하며 급하게 거두어 들인다(平聲平道草低昂, 上聲高呼猛烈強, 去聲分明哀遠道, 入聲短促急收藏).” 『옥약시가결玉鑰匙歌訣』, 명대 석진공釋真空

다. 운율韻律

운율이란 같은 소리가 되풀이 되는 운韻(rhyme)과 짜임새가 비슷한 말의 토막이 이어지는 율律(meter)의 합성어로 詩詞의 평측平仄 격식과 압운押韻 규칙으로 음악성을 확보하는 리듬과 박자를 말한다. 사성은 이러한 운율의 토대이고, 율격(율시의 격률), 예컨대 평측법이나 압운법은 그 본체이다.

1-6. 사전辭典과 자전字典(한어사전과 옥편玉篇, 『설문해자』)

한자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글자 형태도 바뀌고 의미도 더욱 풍부해졌다. 게다가 지역마다 다른 글자를 쓰는 일도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자를 정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물로 자서字書가 생겨났다. 그 처음이 바로 주나라 「사주편史籀篇」이다. 이후 동한東漢시대에 허신許慎이 『설문해자(說文解字)』를 저작하여 한자학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허신은 전체 부수를 540부로 나누었는데, 부수의 배열을 ‘글자의 형체에 근거하여 연계시키고’, ‘공통된 조리로써 서로 관통하게 하는’ 방법을 썼는데, 같은 형부形符를 지닌 글자를 묶어 이를 부部라고 칭했으며, 각 부에서 공통적인 글자를 첫머리에 배열하여 이를 부수部首, 즉 部의 첫머리라고 불렀다. 「설문해자」의 540 부수는 일(一)부에서 시작하여 해(亥)부로 끝나는데 이는 당시 유행하던 음양오행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지금의 자전이나 사전의 경우 一부에서 약(龠)부로 끝나며, 간체자 사전의 경우 주(丿)부에서 시작하여 용(龍)부에서 끝난다.

우리가 흔히 옥편玉篇이라고 부르는 字典은 바로 字書를 뜻한다. 『옥편』은 『설문해자』 계통의 자서이지만 분류 체제가 다르다. 부수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542개이고, 수록된 글자 수는 16,917자이다. 문자마다 반절反切로 음을 달았으며, 상세한 해설을 붙였다. 『옥편』은 우리나라에 일찍 소개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자 사전을 일러 ‘옥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설문해자』 이후 명대 매

응조梅膺祚가 「자회字匯」(1615년)에서 부수를 크게 줄여 214개로 만들었는데, 청대 강희제康熙帝의 칙령勅令에 의해 1716년에 출간된 「강희자전康熙字典」이 이를 그대로 계승하였기 때문에 이후 모든 자전 역시 214부수를 그대로 따르게 되었다.

『설문해자』 계통으로 자전의 결정판인 『강희자전』은 전체 214개 부수에 대략 47,000자를 획순으로 배열하고 각 글자마다 반절에 따른 발음과 해석, 그리고 훈고訓詁를 달았다. 오늘날 한자 자전의 체제體裁는 이 책에서 정립되었다.

그러나 1953년에 출간된 「신화자전(新華字典)」에서 189부수로 나누기 시작한 이래로 편리에 따라 188부, 250부, 200부 등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의 경우 본래의 한자 형태인 번체자繁體字 대신 간체자簡體字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189부수의 형태는 물론이고 배열도 기존의 것과 차이가 있다.

자서는 자전字典이나 사전辭典, 사림辭林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휘를 모아 일정한 순서대로 배열하고, 표기 형태나 발음, 의미, 어원, 용법 등을 해설한 책을 뜻한다. 다만 관습적으로 국어나 영어 사전은 字典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한자 사전만 자전이라고 부른다. 낱말을 단위로 하여 표제자標題字가 주로 두 글자 이상인 사전詞典과 달리 자전字典은 한 글자를 단위로 하여 그 뜻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전통적으로 한자 자전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자의(字義)에 따라 분류하고 옛 뜻을 풀이하는데 중점을 둔 훈고서訓詁書. 둘째, 자음字音에 따라 운韻부를 배열하고 매 글자의 음을 밝히는 운서韻書, 그리고 자형字形에 따라 부수별로 배열하고, 글자의 형태와 본래 뜻을 밝히는데 중점을 둔 자서(字書)이다.

현대에 들어와 새로 생겨난 사전事典은 이와 달리 인명사전이나 백과사전百科事典처럼 사람이나 사물, 또는 사항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설명한 책이다.

1-7. 한자의 회화성 - 한자 예술(서예, 서법, 서도)

가. 문자文字를 소재로 하는 조형예술造形藝術

서예는 점과 선, 획劃의 태세太細와 장단長短, 필압筆壓의 강약強弱과 경중輕重, 운필의 지속遲速과 먹의 농담濃淡, 윤갈潤渴, 선염渲染, 비백飛白, 문자 상호간의 비례 균형이 혼연일체가 되어 조형미를 만드는 예술이다.

서양의 calligraphy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1-8. 한자의 재미 - 성어成語, 속담(諺語), 이어俚語, 파자破字, 합자合字

가. 目不識丁

한국 속담에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는 말이 있다. 불학무식(不學無識:배우지 못해 아는 것이 없음), 일자무식(一字無識:한 자도 아는 것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목불식정도 같은 의미이다. 후진後晉시대 유후劉昫(유구, 887~946년)의 《구당서舊唐書·장홍정전張弘靖傳》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今天下無事, 汝輩挽得兩石力弓, 不如識一丁字.”

당唐나라 때(헌종憲宗) 지방에 절도사(幽州節度使)로 파견된 장홍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무능했지만, 집안이 대대로 나라에 공을 세워, 그 덕으로 벼슬길에 나아가게 된 인물이다. 부유한 집에서 본 바 없이 자란 그는 성품이 오만 불손하고 방자하여 주위 사람의 질책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절도사로 권력을 잡자, 방약무인한 행동이 겹잡을 수 없었다. 보다 못한 주위 사람들이 이를 간하기라도 하면, 반성은커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네놈들은 글자도 모르는 목불식정만도 못해!” 하고 업신여기기 일쑤였다. 참다못한 부하 관리들이 반란을 일으켜 장홍정을 잡아 가두자, 이 소식을 들은 황제는 장홍정의 직책을 박탈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한다. “그놈이야말로 목불식정이로고.” 이야기

나. 출사표

한나라 말, 천하는 위魏, 촉蜀, 오吳로 삼분三分되어 서로 각축角逐하느라 또 다시 전란戰亂에 휩싸였다. 촉한蜀漢은 유비劉備가 죽고 그의 어린 아들 유선劉禪이 제위를 이었다. 당시 승상丞相을 맡고 있던 제갈량諸葛亮은 유비의 유조遺詔를 받들어 조조曹操를 몰아내고 한실漢室을 부흥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비를 닮지 못한 유선은 이미 한실을 부흥하겠다는 의지를 잃고 현신賢臣과 소인小人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우둔함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제갈량은 건흥建興 5년(227년) 3월, 중원中原을 회복하기 위한 북벌北伐에 나서기 직전 유선에게 「출사표」를 올려 후주인 유선에게 내정內政에 힘써줄 것을 간곡하게 아뢰다.

유비의 삼고초려三顧草廬에 응해 위난危難한 시절에 주군의 명을 받든지 21년, 대업을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으니 만감萬感이 교차했을 것이다. 북벌은 선제의 유조를 받드는 일이자 자신의 책무였다. 그러나 왕실에 대한 염려가 끝내 그의 발목을 잡는다. 어찌할 것인가! 제갈량의 「출사표」는 바로 이런 이유로 읽는 이로 하여금 가슴 저미게 만든다. 그런데 그가 「출사표」를 유선 앞에 냈다 던졌을까?

다. 파자破子, 탁자拆字

파자는 원래 고대 글자의 뜻을 주소註疏, 훈고訓詁할 때 쓰는 방법이다.

탁자拆字는 측자測字라고도 하는데, 일종의 미신으로 수대에는 破字, 송대에는 相字라고 불렀다. 한자에 필획을 더하거나 편방偏旁을 분해, 또는 글자체의 구조를 흐뜨려 길흉을 추측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王은 천지인을 관통하는 자를 말한다.

북제北齊, 안지추顔之推, 《안씨가훈顔氏家訓·書證》

“潘、陸諸子《離合詩》、《賦》、《拭卜》、《破字經》, 及鮑昭《謎字》, 皆取會流俗, 不足以形聲論之也.” 潘岳과 陸機 등 여러 문인의 《離合詩》、《離合賦》、《拭卜經》, 《破字經》과, 鮑照의 《謎字》(「字謎詩」)는 모두 세간의 습속에 영합한 것들이니 字形과 字音を 논의할 거리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라. 초재진보招財進寶

元, 유당경劉唐卿, 《강상심降桑椹》, 第二折, “招財進寶臻佳瑞, 閤家無慮保安存.”

마. 福到了 - 福倒

바. 對聯

上聯：金已呈祥財源進

下聯：玉蛇獻瑞福星來

橫批：蛇年財運旺

사. 속담(諺語)

한국 속담(사자성어): 오비이락烏飛梨落, 적반하장賊反荷杖, 함흥차사咸興差使, 후생각고後生角高.

아. 한중일 삼국 한자의 차이

한국 한자 瓠, 畵(이두자), 倮(가야 야), 𡵓(사람이름 꺾), 嫗(중국은 인명, 한국은 婆家나 夫家, 시집) 曹와 曹, 金李朴과 張三李四, 张, 王, 李, 赵, 陈, 杨, 吴, 刘, 黄, 周.

일본 한자 物語, 經濟, 共和國, 大丈夫의 삼국 의미 차이

제2강

■ 한시와 한자(2) - 한시는 한자를 어떻게 운용하는가?

- 2-1. 표의문자로서 한자와 한시
- 2-2. 한자는 시를 담는 수레 - 오언시와 칠언시
- 2-3. 한시는 무엇을 담는가?
- 2-4. 한자를 떠난 시의 묘미
- 2-5. 한자의 음악성 - 소리가 시를 아름답게 하네 - 성조와 운율
- 2-6. 전고典故의 활용

2-1. 표의문자로서 한자와 한시

세상의 문자는 거의 대부분 표음문자이다. 하지만 유독 한자는 표의문자(뜻글자)이다. 뜻글자는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추상적 또는 형상적 개념과 대응하는 문자를 가리킨다. 고대 상형문자는 대부분 표의문자이나 현재까지 살아남은 글자는 한자를 제외하고 전무하다. 언어문자가 다르니 시 역시 표음과 표의문자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치 언어가 사유를 지배한다면, 언어의 차이가 사유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다. 표음문자로서 한자와 표음문자로서 서양언어(로마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서양의 언어, 특히 표음문자는 일종의 언어 구조를 가져야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반해 한자는 개별 어휘가 하나의 의상意象(이미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조와 상관없이 형상화가 가능하다. 鬱鬱, 彬彬, 淼, 森, 川, 嫋와 嫋

표음문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音素의 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글자 자체로 인간의 지각경험과 무관할뿐더러 지칭하는 사물과도 관련이 없다. 반면에 표의문자, 특히 상형문자는 글자 자체에 회화적 심리인상을 촉발한다. 예컨대 수囚자는 사람이 갇혀 있는 모습이고, 家는 집안에 돼지가 있는 모습이며, 아兒는 사람의 뱃속에 몸을 오므린 아이의 모습이고, 犬은 개의 형태에서 따왔다. 이외에도 川, 目, 人 등등이 모두 그러하다.

둘째, 한자는 표음문자에서 매우 중요한 격변화가 없다.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주격고 되고 목적격, 소유격이 된다. 따라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며, 이로 인해 다양한 이미지, 분위기가 연출된다. 특히 시에서는 독특한 시미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시 시체 가운데 하나인 回文詩가

가능한 것도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이다. 또한 표음문자에 비해 문법에 따른 구속
이 덜하다.

송대 시인 이우李禹, 《兩相思》

순독順讀하면 남편이 처자를 그리워하는 시, 역독逆讀하면 처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시.

枯眼望遙山隔水, 往來曾見幾心知.
壺空怕酌一杯酒, 筆下難成和韻詩.
途路阻人離別久, 訊音無雁寄回遲.
孤燈夜守長寥寂, 夫憶妻兮父憶兒.
메마른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산과 강이 가로놓여 있구나.
오가며 마음 통하는 이 몇 명이나 만났는가.
술잔이 비어도 다시 한 잔 따르기 겁나고
붓 들어 운율에 맞춰 시 짓기도 힘들구나
길이 막혀 이별한지도 오래되었는데
기러기에 소식 전할 수도 없고 회신도 없다네.
외로운 등 아래 긴 밤은 적막한데
남편은 아내를 그리워하고, 애비는 아들을 그리워한다네.

兒憶父兮妻憶夫, 寂寥長守夜燈孤.
遲迴寄雁無音訊, 久別離人隔路途.
詩韻和成難下筆, 酒杯一酌怕空壺.
知心幾見曾來往, 水隔山遙望眼枯.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하나니
적적하게 보내는 기나긴 밤 등불도 외롭구나.
편지에 회신도 늦고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으니
오래 떨어져 살다보니 오는 길이 막혔는가
시를 짓지는 했지만, 차마 붓을 들어 쓰질 못하고
술을 한잔 따르지만 외로움을 달래줄 술병이 비었을까 겁난다.
서로 마음을 알지만 몇번이나 만났는가.
산과 강으로 가로막혀 있으니 바라보는 눈이 메말랐구나.

이규보, 「美人怨」

腸斷啼鶯春, 落花紅簇地.

香衾曉枕孤, 玉臉雙流淚.

郎信薄如雲, 妾情撓似水.

長日度與誰, 皺却愁眉翠.

피꼬리 우는 봄날 애간장 타는데, 꽃은 떨어져 온 땅을 붉게 덮었구나
이불 속 새벽잠은 외롭기만 하여, 고운 뺨엔 두 줄기 눈물 흐르누나
님의 약속 믿음 없기 뜬구름 같고, 이내 마음 일렁이는 강물 같누나
긴긴 밤을 그 누구와 함께 지내며, 수심에 찡그린 눈썹을 펼 수 있을까

翠眉愁却皺, 誰與度日長.

水似撓情妾, 雲如薄信郎.

淚流雙臉玉, 孤枕曉衾香.

地簇紅花落, 春鶯啼斷腸.

푸른 눈썹은 수심 겨워 찌푸려 있는데, 님과 함께 긴긴 밤을 지내어 볼까
강물은 내 마음인 양 출렁거리고, 구름은 신의 없는 님의 마음 같아라
두 뺨에 옥 같은 눈물 흐르고, 외론 베개 새벽 이불만 향기롭구나
땅 가득히 붉은 꽃이 떨어지고, 봄 피꼬리 우는 소리에 애간장 타누나

셋째, 한자의 결합과 해체 - 시어의 묘함 - 異稱

旌義縣監厚遇有感(정의현감의 후한 대접에 느끼는 바가 있어)

旌義遨頭送內還, 來留相近待盛寬.

時分肥肉添羹鼎, 間贈嘉魚助饌盤.

軟脚春中教眩目, 長腰玉上遣和顏.

由基百步穿楊葉, 早見王庭虜血殷. (홍유손洪裕孫, 『소충유고篠叢遺稿』)

*해석1

정의현 태수께서 도리어 비밀히 알려시어, 서로 가까이 와 머물며 크고 성하게 모시네.
때마다 살찐 고기와 술의 국을 베풀어주고, 몰래 맛 좋은 고기를 음식 소반에 거들었네.
봄 속에 나쁜짓 피하여 눈부시게 전해주고, 긴 허리 넉넉한 옥에 온화한 얼굴로 보내네.
유기는 백보에서도 버드나무 잎을 뚫었고, 한 눈에 보니 왕정에서 많은 피를 생포했네.

*해석2

정희현감이 내행을 돌려 보낸 뒤로, 나를 가까이 머물러 두고 관대히 대해 주네.
때로 살진 고기를 국거리로 나눠주고, 간간이 좋은 생선 반찬하라 보내주네.
연각춘이라 술은 눈을 어지럽게 하고, 장요옥이라 쌀은 얼굴을 퍼게 하네.
백보 밖에 버들잎 맞히는 명궁의 솜씨이니, 조만간 왕정에 오랑캐 피가 흥진함을 보겠네.

주석

연각춘軟脚春: 취하면 다리를 풀리게 한다는 뜻에서 술을 지칭함

장요옥長腰玉: 밥알은 옥과 같은데 이것을 먹으면 배가 불러 허리띠를 늘어나게 한다는 뜻.
“玉粒長腰” 송대 조조曹組의 「점강순点絳唇(수반水飯)

오두遨頭: 지방의 수령, 정월부터 4월 사이에 태수가 들놀이하는 것. 蜀中[촉중], 成都 [성도] 풍속에 태수가 놀이하러 나가면 여자들이 길옆 나무 평상에서 구경하는데, 그 평상을 遨床[오상, 노는 평상]이라 하므로 태수를 오두라 함.

由基: 초나라 사람 양유기, 성은 羸영. 씨는 養양, 자는 叔숙.

百步穿楊백보천양, 백발백중. 버드나무 잎과의 거리가 百步而백보이(100보)에 쏘아도 백발백중이었다고 함.

春: 당대에는 술을 춘春이라고 불렀다. “軟脚春”、“壚頭春” 등. 《詩經》은 이성을 사모하는 것을 춘春이라고 했다. “有女懷春” 중국 8대 명주 가운데 하나인 劍南春은 당대부터 주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四川 명주이다.

*저자: 洪裕孫(1431~1529) : 자는 여경, 호는 소충, 광진자. 조선 전기의 시인. 노자와 장자를 논하며 술과 시로 세월을 보내 청담파로 불렸다.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 때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으로 풀려났다.

2-2. 한자는 시를 담는 수레 - 오언시와 칠언시의 발견

한시의 시작은 북방의 『시』(시삼백詩三百, 『시경詩經』)이다. 4개의 글자에 감정과 의미를 담았다. 남방 초나라에 굴원은 추방되어 강호를 헤매면서 자신의 심정을 짧게는 2~3자, 길게는 8~9자, 그리고 대부분은 6~7자에 담아 노래했다. 굴원이 자신의 소회를 펼친 시가는 시형의 신축이 자유롭고 편폭이 길기 때문에 시가의 산문화를 주도했으며, 이후 한나라의 부체賦體의 선성이 되었다. 초사가 점차 산문에 가까운 부체를 따라 변화하게 되자 한대에 새로운 시체인 악부시樂府詩가 등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악부는 광의와 협의 두 가지 뜻이 있다.

우선 협의는 한대에 전문적으로 음악을 관장하는 관서인 악부에서 수집한 민간 가사歌辭를 뜻한다. 광의는 양한 및 위진 이후 역대 문인들이 옛 악부를 모방하여

창작한 시가 작품을 의미한다. 한대 악부시는 『시경』 이래로 시가 창작에서 사언을 정통으로 삼는 전통을 타파하여 오언, 칠언 위주의 잡언체 시가를 만들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는 이후 완전한 형태의 오언시로 발전하게 된다. 한 위漢魏 육조六朝 악부 민가 가운데 「공작동남비孔雀東南飛」, 「맥상상陌上桑」, 「목란사木蘭辭」 등 보석과 같은 장편 서사시가 탄생하여 ‘시의 나라’라는 명성에 이채를 더하였다.

오언시의 기원에 대해서는 못 설이 분분하지만 그것이 양한 민요와 악부 민가의 토대 하에서 발전했다는 점에 관한 한 이론이 없다. 문인이 창작한 작품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오언시는 동한 시대 반고의 「영사시咏史詩」이다. 종영은 『시품』에서 그 작품을 일러 “질목무문質木無文”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문인들이 오언시를 창작하던 초기의 경우 아직 기교가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장형張衡의 「동성가同聲歌」 등의 작품을 거쳐 동한 말년에 등장한 『고시십구수古詩十九首』에 이르면서 오언시는 성숙한 발전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르러 오언시 창작이 크게 늘어 종영이 말한 바 “彬彬之盛, 大備於時”의 번영된 모습을 보였다. 사언시와 비교해 볼 때 오언시는 시가의 내용을 크게 확장하였고, 더욱 세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서정과 서사에 유리하였다. 또한 음절에 있어서 기우奇偶(짝수와 홀수)가 서로 배합하여 음악적 아름다움이 더욱 풍부해졌다. 한대 이후 오언시는 기존의 사언이나 소체시의 형식을 대신하여 중국 고전 시가의 중요한 시체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여 1천여 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이어졌다.

칠언시는 오언시보다 늦게 나왔다. 물론 한대 악부 민가 가운데 7언 시구가 흔히 나오기는 하지만 문인이 창작한 완전한 형태의 칠언시는 위나라 조비曹丕의 「연가행燕歌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칠언시는 조비 이후로 근 2세기에 걸쳐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칠언시가 좀 더 성숙된 형태로 문인들의 중시를 받게 된 것은 남조南朝시대 포조鮑照 이후의 일이다. 포조의 「의행로난擬行路難」 18수는 시가의 내용적인 면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서도 크게 변화된 모습을 갖추었다. 원래 칠언시는 매구마다 압운하였으나 포조는 이를 격구마다 압운하는 형식으로 바꾸었다. 이는 칠언시체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칠언시의 출현은 시가의 서정과 서사에 더욱 새롭고 용량이 커다란 형식을 제공하여 중국 고전시가의 예술표현력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었다.

중국 한시의 대표적인 詩體인 5언시와 7언시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정형화의 길을 밟았다. 시인들은 5자와 7자의 형태가 자신들의 감정과 사상을 담

기에 가장 적합함을 발견, 확인, 증명한 것이다. 이후 운문체로서 한시는 송대의 사詞, 원, 명대의 곡曲(雜曲과 散曲) 등 다양한 형태로 옮겨졌지만 오언시와 칠언시의 시가 대표성은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언시 예찬을 들어보자.

鍾嶸은 五言詩를 당시 詩歌의 正宗으로 삼았다.²⁾ 그리고 다음과 같이 五言詩의 詩的 특징을 개괄하고 있다.

대개 四言詩는 문자가 간략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넓다. 그래서 國風과 楚辭를 詩 作법의 典範으로 삼으면 얻는 바가 많다. 그러나 때로 문자가 번다하기만 하고, 담고자 하는 뜻이 적게 되는 경우가 있어 고심을 함에 따라 近世에 이르러서는 四言詩를 배우는 사람이 드물게 되었다. 五言詩는 문사의 요체이니 대저 五言으로 된 여러 작품들은 우리나라오는 맛이 있으며 이 때문에 세속의 기호에 합치되는 바가 있다. 이 어찌 五言詩가 사물에 근거하여 형상을 만들어 내고, 정감을 다하여 외물을 묘사함에 있어서 가장 세밀하고 절실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夫四言，文約意廣，取效風騷，便可多得。每苦文繁而意少，故世罕習焉。五言居文詞之要，是衆作之有滋味也，故云會於流俗。豈不以指事造形，窮情寫物，最爲詳切者耶! 중영鍾嶸, 『시품』

2-3. 한시는 무엇을 읊는가?(표현, 드러냄, 읊음)

1) 詩字 언어적 함의

(1) 詩자의 언어적 함의 鄭玄, 『詩譜序』

당대 孔穎達은 『毛詩正義』에서 이렇게 말했다.

詩라 이름한 것은, 《禮記》〈內則〉에서 세자를 업는 禮를 설명하면서 ‘詩負之’라고 하였는데, 그 注에 “詩의 뜻은 承이다.”라고 하고, 《春秋緯》〈春秋說題辭〉에서 “일에 연관이 있는 것이 詩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 謀이고, 淸靜하고 담박

2) 魏晉代에 이르러 五言詩가 활발하게 창작되었지만 당대 사람들이 모두 五言詩를 詩歌의 正宗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晉代 摯虞는 자신의 『文章流別論』에서 “雅音之韻，四言爲正，”이라고 하여 四言詩를 으뜸으로 삼았고 五言詩에 대해서는 “於俳諧倡樂多用之”，“其餘雖備曲折之體，而非音之正也”라고 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또한 劉勰은 『文心雕龍·明詩』에서 “若夫四言正體，則雅潤爲本，五言流調，勅清麗居宗”이라고 하여 四言과 五言이 각기 나름의 특색이 있음을 밝히면서, 역시 四言이 근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 것이 心이고, 사려가 志이니, 詩의 뜻은 志이다.”라고 하고, 《詩緯》〈含神務〉에서 “詩는 持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詩에는 세 가지의 풀이가 있으니 承과 志와 持이다. 시를 짓는 자가 인군의 정사 중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받들어 자기의 뜻을 기술했다 시를 지으니, 시가 이 때문에 사람의 행동을 지켜 실추되지 않게 한다. 그리하여 하나의 이름에 세 가지 풀이가 있는 것이다.

名爲詩者, 內則說負子之禮云‘詩負之’, 注云 “詩之言承也.” 春秋說題辭云 “在事爲詩, 未發爲謀, 恬澹爲心, 思慮爲志, 詩之爲言, 志也.” 詩緯含神務云 “詩者, 持也.” 然則詩有三訓, 承也·志也·持也. 作者承君政之善惡, 述己志而作詩, 爲詩所以持人之行, 使不失隊, 故一名而三訓也.

시에 삼훈三訓이 있다는 것은 지志, 승承, 지持의 뜻을 지녔다는 뜻이다. 당시에는 나름 의미가 있었겠으나 지금 보면 조금 억지스럽다.

2) 시언지詩言志

한대에 들어오면 시는 뜻을 드러낸다는 견해와 시는 정감의 표현이라는 견해가 공존하게 되는데, 이는 『모시대서』에서 통합되어 나타난다. 모형(毛亨)이 해설한 『시경』에 실린 「모시대서(毛詩大序)」는 한대 유가의 입장에서 전대의 시관(『시』 305편에 대한 관점)을 종합함과 동시에 당시의 시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시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있으면 뜻이 되고, 말로 드러나면 시가 된다. 감정은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언어로 형체를 지니게 된다.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부족하니 감탄하게 되고, 감탄으로 흡족하지 않으니 길게 읊조리게 되며, 읊조림으로도 부족하면 자신도 모르게 손과 발로 춤을 추게 되는 것이다.

詩者, 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情動於中而形於言. 言之不足, 故嗟歎之. 嗟歎之不足, 故永歌之. 永歌之不足, 不知手之舞之, 足之蹈之也. 「모시대서」

다만 「모시대서」의 작자는 “감정은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언어로 형체를 지니게 된다(情動於中而形於言)”고 하여 시가가 감정에서 비롯되어 언어, 문자로 형상화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순자』와 『예기·악기』의 감물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모시대서」의 작가가 시가와 정감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감에서 나오지만 예의에서 그친다(發乎情, 止乎禮義)”라는 말을 빼먹지 않은 것은 바로 『순자』의 영향 때문이며, 시가를 정교(政教)와 연관시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본성이고(發乎情, 民之性也), “정성을 읊조려 윗사람을 풍자함이니(吟詠情性, 以風其上)”, “(정치의) 득실을 바로잡고 천지를 움직이며 귀신을 감동시키는데 시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故正得失, 動天地, 感鬼神, 莫近於詩)”라고 말한 것 역시 같은 이유로 말미암는다.

한나라 정현鄭玄은 「모시」에 箋을 지으면서 「詩譜」(지금은 산실되어 없지만 공영달의 疏에 일부가 나온다) 序를 썼다. 이를 「詩譜序」라고 한다. 그 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虞書〉에 “詩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歌는 말을 길게 하는 것이고, 聲은 긴 노래를 따르는 것이고, 律은 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詩의 도는 여기에서 시작한 것이다(虞書曰, 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 然則詩之道放於此乎).”

3) 시연정詩緣情

위진대로 넘어오면서 자연관과 인간관의 변화, 개체의식의 각성, 사유방식의 전환에 따라 점차 문학에 대한 관점이 확실해지고, 심미의식과 창작관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시가의 형식미에 대한 추구는 시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성율을 강구하게 만들었다. 육기(陸機)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시연정이기미(詩緣情而綺靡)”, 즉 “시는 감정에 따라서 생겨나므로 문사는 아름답고 성음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란한 문사의 수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치한 것을 숭상하며, 문장의 내용을 중시하는 사람은 내용의 표현이 적당한가의 여부를 귀히 여긴다. 사물의 곡진한 묘사를 즐기는 사람은 표현이 협착함에 구애받지 않고, 문장의 통달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문자, 사상 내용의 광달함을 중시한다. **시는 감정에 따라서 생겨나므로 시어가 아름답고 성음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풍부해야 한다).** 부(賦)는 사물을 펼쳐내어 묘사하므로 언어가 청신하고 명쾌해야 한다. 비문(碑文)은 문사를 펼쳐 뜻에 부합되도록 도와야 하고, 誄(誄)는 끈끈한 정(情)으로 얹혀 죽은 이에 대한 슬픔이 감돌아야 하고, 명(銘)은 취재원이 광범위하면서도 내용은 간결하고 문사는 온화하면서 윤기가 있어야 한다. 잠(箴)은 말에 역량이 있고 청신하며 강건해야 한다.

송(頌)은 뜻이 전아하면서도 문사(文辭)는 맑고 아름다워야 하며, (論)은 언어가 세밀하면서도 문사가 유창해야 한다. 주(奏)는 내용에 담긴 뜻이 평이하게 통달하면서도 문사는 우아하고 고전적이어야 한다. 설(說)은 언어가 휘황찬란하되 내용이 기괴하여 충동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구분은 이렇게 하였지만 또한 지나치게 부

염(浮艷)한 것을 금해야하고, 언어가 방만한 것을 제약하여 정련되게 만들어야 한다. 문사는 두루 미쳐 문장의 주된 내용을 들어낼 수 있어야만 하고 산만함을 취해서는 안 된다.

故夫誇目者尚奢，愜心者貴當，言窮者無隘，論達者唯曠。詩緣情而綺靡，賦體物而瀏亮，碑披文以相質，誄纏綿而悽愴，銘博約而溫潤，箴頓挫而清壯，頌優游以彬蔚，論精微而朗暢，奏平徹以閑雅，說爛曄而譎誑。雖區分之在茲，亦禁邪而制放。要辭達而理舉，故無取乎冗長。『문부文賦』

사실 ‘시연정’이 실린 이 대목은 문체의 특질에 대한 언급일 뿐이며, 육기 역시 정감과 더불어 창작자의 의향, 즉 지를 중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이 한 마디로 남조의 부염한 시풍을 선도한 인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한편, 시가는 작가 개인의 정감을 있는 그대로 펼치는 것으로 『모시대서』의 주장처럼 예의(禮義) 등에 의해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위진 이후 발아하기 시작한 시가 예술의 새로운 미학 표준을 제시했다는 찬사를 받게 되었다.

육기가 ‘시연정’을 통해 시가의 정감성과 시인 자신의 개별적 감정을 강조한 것은 당시 지적 분위기와 시가 발전의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게다가 경학가들이 추존한 『모시대서』에서도 이미 ‘음영정성(吟詠情性)’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육기가 제시한 ‘시연정’의 관점을 완전히 부정할 수만은 없었다. 이렇듯 시가가 인간의 정감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하나의 세(勢)가 되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정설로 자리 잡았다. 이후 ‘시언지’ 대신 ‘음영정성’과 ‘정지론(情志論)’이 시가 창작의 핵심적인 논의로 등장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4) 음영정성

절충과 조화를 추구하였던 유희의 정감론은 바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그는 『문심조룡』에서 ‘정성情性’ 이외에도 특히 ‘정지(情志)’라는 개념을 자주 쓰고 있는데, 그 안에는 ‘정(情)’이나 ‘지(志)’, ‘의(意)’, 그리고 정성, 성정 등의 개념이 모두 포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성정을 도야함에 전대 성인들의 공이 크다. 공자의 문장을 가히 들을 수 있다고 하니 이는 성인의 심정이 문장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陶鑄性情，功在上哲，夫子文章可得而聞，則聖人之情見乎文辭矣。『징성徵聖』

대체로 재질을 갖추고 문학창작을 배우고자 한다면 마땅히 체제를 바르게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반드시 사상이 내재된 정지를 정신으로 삼고, 용사의 내용을 골수로 삼으며 문채를 피부로 삼고 음률을 목소리로 삼아야 한다…….夫才量學文，宜正體制，必以情志爲神明，事義爲骨髓，辭彩爲肌膚，宮商爲聲氣……「부회附會」

2-4. 한자를 떠난 시의 묘미

시는 한자로 이루어지고, 한자의 특색을 그대로 반영하여 묘미를 살리지만, 시가 추구하는 것은 한자 그 자체가 아니라 한자로 드러나는 정감과 사상, 意象과 境界이다.

가. 비언어의 언어로서 문학 언어

통발은 고기를 잡는 기구이지만 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게 된다. 올가미는 토끼를 잡는 기구이지만 토끼를 잡고나면 올가미를 잊게 된다. 말은 뜻을 표현하는 수단이지만 뜻을 표현하고 나면 말을 잊게 된다.

筌者所以在魚，得魚而忘筌。蹄者所以在兔，得兔而忘蹄。言者所以在意，得意而忘言。

『장자·외물』

일반적으로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감정, 또는 판단 등 일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그 의미를 전달하면 곧 잊혀진다. 이는 마치 회화예술에서 물감을 도구로 하여 창조되어진 환영(幻影: Apparition)이 곧 시각적 형식으로 예술작품 자체가 됨과 동시에 물감자체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는 것과 같다.

대저 시에는 별도의 재주가 있으니, 책과는 관계하지 않는다. 시에는 별도의 지취(旨趣)가 있으니 이치와는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책을 많이 읽고 이치를 많이 궁구하지 않으면 지극한 경지에는 도달할 수가 없으니, 이른바 이치의 길에 빠지지 않고, 말의 통발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윗길이 된다. 시라는 것은 성정(性情)을 읊조리는 것이다. 성당(盛唐)의 여러 시인들은 오직 흥취(興趣)에 주안을 두어, 영양(羚羊)이 뿔을 거는 것과 같아 자취를 찾을 수 없다. 그런 까닭에 그 묘한 곳은 투철하고 영롱하여 꼬집어 말할 수가 없으니, 마치 공중의 소리와 형상 속의 빛깔, 물 속의 달, 거울 속의 형상과 같아서, 말은 다함이 있어도 뜻은 다함이 없다.

夫詩有別材，非關書也，詩有別趣，非關理也。而古人未嘗不讀書，不窮理，所謂不涉理

路，不落言筌者，上也。詩者吟詠情性也。盛唐諸人惟在興趣，羚羊掛角，無迹可求。故其妙處，透徹玲瓏，不可湊泊，如空中之音，相中之色，水中之月，鏡中之象，言有盡而意無窮。

송대, 엄우(嚴羽), 『창랑시화(滄浪詩話)·시변(詩辨)』

2-5. 한자의 음악성 - 소리가 시를 아름답게 하네 - 성조와 운율

대저 音律의 기원은 사람의 소리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소리에는 宮商角徵羽 五音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선천적인 혈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고대의 제왕은 사람의 소리에 있는 五音を 근거로 하여 음악을 창작하였다.

夫音律所始，本於人聲者也。聲含宮商，肇自血氣，先王因之，以制樂歌。『문심조룡』 「성률」

시가는 정감에 바탕으로 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노래로 부를 때, 정감의 기복에 따라 소리가 빠르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며, 때로는 촉급하게 끊기기도 하고 유장하게 늘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당연히 시가에 성률, 즉 소리의 규칙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였다. 『尙書·堯典』에 “시는 사람의 뜻을 말로 표현한 것이고, 노래는 가락을 붙여 길게 말하는 것이며, 음률은 길게 읊는 소리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8음이 서로 조화를 이뤄 질서를 잊지말아야 신과 사람이 화합할 수 있다(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 八音克諧 無相奪倫 神人以和)”이라고 한 것이나 『禮記·樂記』에서 “소리가 일어남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

劉勰은 「聲律」篇에서 문장의 음율에 대해 다음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글자의 소리에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있으며, 쌍성과 첩운이 있다. 쌍성자에서 중간에 다른 글자가 들어가면 매번 어그러지고 첩운이 한 구절에 뒤섞여 있으면 반드시 성률에 어긋나게 된다. 한 구절 속에 무거운 소리만 쓰게 되면 소리가 호흡이 끊기듯 딱딱해지고, 전부 가벼운 소리만 쓰면 소리가 위로 올라가 되돌아 올 수 없다.

凡聲有飛沈，響有雙疊，雙聲隔字而每舛，疊韻雜句而必睽。沈則響發而斷，飛則聲颺不還。

여기서 소리에 飛, 沈이 있다고 한 것은 소리에 억양, 즉 聲調가 있다는 뜻이다. 飛는 평성을, 沈은 仄聲을 말한다. 본래 시가의 平仄法은 唐代에 구체적으로 시가에 응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沈約의 八病說 가운데 앞의 네가지, 즉 平頭, 上尾, 蜂腰, 鶴膝이 지금의 聲調, 平仄의 문제라는 사실로 볼 때, 비록 平仄法이란

구체적 개념은 없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沈約의 경우, 浮聲과 切響으로 평성과 측성을 구별하고 있는데 浮聲은 바로 飛요, 切響은 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³⁾

다음 雙,疊은 雙聲과 疊韻의 문제이다. 雙聲은 두 글자의 聲母가 같은 것을 말하고, 첩운은 운모가 서로 같은 것을 말한다. 雙聲이나 疊韻은 『詩經』이나 楚辭에 많이 나오는데 劉勰은 雙聲이나 疊韻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한 구절에서 서로 띄어 사용하는 것은 聲律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예컨대 雙聲隔字는 八病說 가운데 傍紐와 유사한 것으로 “五言詩 한 句 가운데 ‘月’자가 있으면 ‘魚’, ‘元’, ‘阮’, ‘願’ 등의 글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⁴⁾는 뜻이며, 疊韻雜句는 韻母가 같은 것 가운데 특히 押韻이 되는 글자를 제외하고 다른 글자에 동일한 韻이 사용되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뜻으로 八病說에서 小韻과 유사하다. 이처럼 문장의 음율에 관한 劉勰의 견해는 비록 구체적인 지적은 없지만 沈約의 견해와 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沈約의 견해 역시 당시 시가 창작상의 병폐를 취합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劉勰의 견해는 당시 시 창작상의 병폐를 불식시키기 위한 나름의 대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聲律상의 병폐가 바로 문인들의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데서 나온다는 그의 말에서도 증명된다.⁵⁾

참조

* 최초의 운서는 六家韻書(李登의 聲類, 여정呂靜의 韻集, 孫炎의 爾雅音義(반절법), 周顒의 四聲切韻, 沈約의 四聲韻譜와 四聲譜)는 현재 남아 있지 않으며, 일부 편린만 엿볼 수 있다. 비록 개인적인 저작물로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후대 운서 편찬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자음 체계를 성모와 운모로 구분한 것이나 소리값을 표기하기 위해 반절법을 사용하고, 사성체계를 정립했기 때문이다.

절운계 운서: 陸法言이 저술한 『切韻』 5권과 이후 수정, 개편한 일련의 운서(당대 孫愐의 『唐韻』(112운), 송대 陳彭年 등의 『廣韻』(大宋重修廣韻) 26194자, 108운) 를 말한다. 평측과 압운 구분을 중시함. 이외에 등운계 운서가 있다.

* 시가의 운율 운용 방법: 詩韻의 성질과 운용방식

押韻은 시가의 특정 자리에 동일 계열의 운자를 번갈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오언시는 한 행을 頭節(1,2자), 腹節 또는 腰節(3,4자), 腳節(5자)로 구분하는데, 칠언시는 오언

3) 沈約撰, 『宋書·謝靈運傳論』, “若前有浮聲,則後須切響,一簡之內,音韻盡殊.兩句之中,輕重悉異,……”郭紹虞는 『中國歷代文論選』 175쪽에서 浮聲을 平聲, 切響을 仄聲으로 上, 去, 入 三聲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輕重은 角徵와 같은 것으로 輕音은 清音으로 平聲이고, 重音은 濁音으로 仄聲을 뜻하는 것이라고 註解하고 있다.

4) 空海, 『文鏡秘府論』, “傍紐詩者,五言詩一句之中有‘月’字,更不得安‘魚’,‘元’,‘阮’,‘願’等之字”

5) 「聲律」, “吃文爲患,生於好詭,逐新趣異” ‘吃文’이란 聲律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써 말더듬이처럼 어색한 문장을 짓는 것을 말한다.

시 앞에 2자를 더 붙인 것이라고 하여 앞부분 2자를 頂節, 나머지는 오언시와 동일하게 부른다. 압운은 주로 각절에 붙이기 때문에 脚韻이라고 불렀다.

한시에서 압운의 대상이 되는 운자의 대표 글자는 106개로 구분된다. 평성이 30개, 상성이 29, 거성이 30, 그리고 입성이 17개이다. 대표 글자를 일러 韻目, 韻部, 韻統이라고 한다. 마치 한자를 각 부로 나누고, 각 부의 첫째 글자를 部首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평성 東韻에는 “東同銅桐筒童僮中衷忠蟲冲終戎崇嵩(崧)弓躬宮融雄熊穹窮馮風楓豐充隆空公功工攻蒙濛籠龍洪紅鴻虹叢翁蔥聰聰通蓬篷隴忽(勿)峒狴幪忡豐棕朦矚龍 등이 있고, 冬韻에는 “冬、冬、彤、農、儂、宗、淙、鍾、龍、龍、春、鬆、淞、衝、容、榕、蓉、溶、庸、傭、慵、封、胸、兇、匈、洵、雍、濃、膿、重(중복)、從、逢、縫、峯、鋒、豐、蜂、烽、葑、縱(縱橫)、蹤、茸、蛩、邛、筇、璫、供、蚣、喁” 등이 있으며, 屋韻에는 “沃、逆、屋、菊、足、噏、握、斛、諤、鵠、削、鬱、蜀、篤、督、牧、慕、陸、祿、轡、旅、六、僕、御” 등 24개의 글자가 들어가 있다.

전체 106개의 운목에 들어 있는 글자는 모두 압운시킬 수 있으나 당대 근체시가 성립 되면서 평성 30계열만 압운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가의 정제된 형식미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규칙이었다. 平聲은 길게 늘여서 노래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 구절의 끝을 길게 읊조리는 것이 다음 연으로 이어지는데 편했기 때문이 아닌가싶다.

평성 계열의 운목은 활용의 정도에 따라 寬韻, 中韻, 窄韻, 險韻으로 나뉜다. 관운은 활용 폭이 넓은 것을 말하며, 험운은 아주 좁은 것을 말한다. 한시를 지을 때 어려워져 그 다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험운이다. 관운은 東, 支, 虞, 真, 先, 陽, 庚, 尤 등 8가지 운이고, 글자 수는 많지만 뜻이 편협하거나, 뜻은 많지만 글자수가 적은 운인 중운은 冬, 魚, 齊, 灰, 元, 寒, 蕭, 豪, 歌, 麻, 侵 등 11가지이다. 다음으로 글자 수가 적고 뜻이 편협한 착운은 微, 文, 刪, 青, 蒸, 覃, 鹽 등 7가지이고, 마지막으로, 속한 글자가 지극히 적어 시를 짓기 어려운 글자인 險韻은 江, 咸, 肴, 佳 등 4가지 운이다. 그 중에서도 江자가 제일 어려웠다고 한다.

각운은 모든 구절마다 압운하는 每句韻과 한 행씩 건너 압운하는 隔句韻으로 나뉜다. 고체시는 매구운이나 격구운을 구분 없이 활용했으나 근체시는 격구운만 사용했다. 8행의 율시를 ‘四韻詩’, 20행의 배율을 ‘十韻詩’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시운의 운용방식

압운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운목을 사용하는 것은 一韻到底, 시상의 변화에 따라 중간에 다른 운목으로 바꾸는 것은 換韻(또는 轉韻)이라고 한다. 장편일 경우는 환운이 일반적이다.

필요에 따라 운목과 글자는 물론이고 그 자리까지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限韻이라고 한다. 화운시나 차운시는 사대의 운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대표적인 限韻이다.

이외에도 通韻과 叶韻이 있다. 통운은 압운할 때 어느 한 운목 계열이 아닌 그 이웃 계열에서 운자를 융통하여 통용한다는 뜻이다. 통용이 가능한 隣韻(旁韻)은 운목 배열의

순서가 가깝거나 소리값이 가까워 통용할 수 있는 것으로 東-冬, 支-微-齊, 魚-虞 등이 그러하다.

2-6. 전고典故의 활용

전고는 고대 전장제도典章制度 등의 뜻이 있기는 하나 여기서는 시문에서 인용된 고대 이야기나 내력을 가진 단어를 지칭한다.

* 흔히 쓰는 전고

投筆 : 문필을 던지고 전쟁에 나가다

鴻雁、雁書、雁足、魚雁 : 書信、音訊

杜鵑 : 애원哀怨 비통한 분위기나 귀향을 그리워하는 심정

東籬、採菊 : 사직하고 은거한 후의 전원생활이나 한적한 정취

長亭、南浦、柳岸 : 이별하는 장소

孤雁、落帆、斷鴻 : 고독한 나그네

梅雨 : 근심, 우수

飛蓬、孤蓬、歸蓬 : 고독한 나그네

蟬 : 고결함의 상징

紅豆 : 상사두相思豆. 남녀 애정의 증표

「지각에게 주다(贈智覺)」

壽陵匍匐返, 魴鼠得壻良. 수릉에서 엉금엉금 기어 돌아오니, 두더지가 사위를 얻은 꼴일세
頭戴胡王使, 心含百草霜. 머리에 할미꽃을 얹고 마음엔 검은 그을음 품었네.

多岐羊不覓, 出穴蟹無腸. 갈림길 많아 양을 찾지 못하고, 구멍에서 나온 게 같아라.
猶近涅般路, 身隨櫓櫓光. 열반길이 가까우니 이네 육신 장작불빛 따라 사라지리.

주석 및 전고

수릉壽陵: 임금이 살아 있는 동안에 미리 마련해 두는 임금의 무덤. 『장자』 「추수」,
“그대는 수릉의 소년들이 한단에서 걸음을 배운 일을 듣지 못했는가?” 한단邯鄲의 걸음
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예전 걸음조차 잊어 엉금엉금 기어서 돌아왔다는 말. 남의 것
을 모방하려다 실패한 것을 말한다.

분서득서량魴鼠得壻良: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을 바라다 실패하고 현실을 자각함(홍만
중, 『순오지旬五志』하)

多岐亡羊(歧路亡羊): 『열자』 「설부說符」에 나온다. 양자의 이웃 사람이 양을 잃어 무리

를 동원하여 양을 찾기 시작했는데, 양자가 문기를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왜 이리 많은 사람을 동원하냐고 했다. 이에 답하기를 갈림길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다. 사람들이 돌아오자 찾았느냐고 묻자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 연유를 물어보니 갈림길이 많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心都子가 말하길, “대도는 갈림길이 많아 양을 잃고 학자는 方道가 많아 생명(本性)을 잃는다(大道以多歧亡羊, 學者以多方喪生).”

胡王使: 胡王使者, 할미꽃.

百草霜: 솔 밑에 붙은 검은 그을음.

無腸: 無腸公子, 창자가 없는 계를 말함. 氣概나 膽力이 없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涅槃 열반: 도를 완전히 이루어 모든 고통과 번뇌가 끊어진 해탈경지.

櫟 栲栢: 장작용 나무토막. 베어낸 나무그루의 밑둥. 불씨가 오래간다.

정약용, 「寄淵兒, 戊申冬」

두시杜詩는 용사用事(한시를 지을 때 전고를 인용함)에 있어 흔적이 없어 읽어보면 자작自作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근본 출처出處를 말함이 있으니, 이 점이 바로 두 공부가 시성詩聖이 되는 이유이다.

杜詩用事無跡, 看來如自作. 細察皆有本, 有出處. 所以爲聖.

한퇴지韓退之(韓愈)의 시는 자법字法은 모두 근본 출처를 말함이 있으나 구어句語는 자작이 많으니, 이 점이 시의 대현大賢이 되는 이유이다.

韓退之詩, 字法皆有所本. 有出處, 句語多其自作. 所以爲大賢也.

소자첨蘇子瞻(蘇軾)의 시는 구절마다 사실을 인용하였는데, 흔적이 남아 있어 얼핏 보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반드시 이리저리 고찰하고 검사해서 그 근본을 캐 뒤야 겨우 그 뜻을 통할 수 있으니, 이 점이 바로 시의 박사博士가 되는 이유이다.

蘇子瞻詩, 句句用事, 而有痕有跡. 譬看不曉意味, 必也左考右檢. 採其根本, 然後僅通其義. 所以爲博士也. 『與猶堂全書』 第一集

제3강

■ 한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3-1. 한시 배우기

- 가. 한시를 배워야 했던 이유
- 나. 조선시대 한자입문서와 한문 배우기
- 다. 學詩의 필독서 『당음』과 『당시삼백수』
- 라. 唐詩와 宋詩
- 마. 「學詩」

3-2. 한시 짓기

- 가. 정情과 景景
- 나. 창작사유: 構思, 景物, 靈感
- 다. 작시의 즐거움과 어려움
- 라. 한시의 효용론
- 마. 「논시論詩」

3-1. 한시 배우기

가. 한시를 배워야 했던 이유

한시는 과거시험의 중요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시를 잘 쓰느냐 여부가 관리가 되는 기준이었다는 뜻이다. 시를 잘 쓰면 관리가 된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과거시험은 처음부터 시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당대 과거 시험에는 수재秀才、명경明經、준사俊士、진사進士、明法(法律)、明字、明算(數學) 등 다양한 과목이 있었고, 시험 내용도 시무책時務策、첩경帖經、잡문雜文 등 다양했다. 송대에는 進士、明經科 등이 있었는데, 내용은 帖經、墨義, 그리고 詩賦였다. 하지만 왕안석王安石이 참지정사參知政사가 된 후(變法 실시 이후)에는 詩賦、帖經、墨義를 취소하고, 경의經義、논論、책策으로 선비를 뽑았다. 청대에는 팔고문八股文이라는 독특한 과시科詩로 取士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광종 시절에 과거제도가 실시된 이후로(後周 귀화인 雙冀의 건의) 製述科·明經科·雜科·僧科 등의 科試를 실시했다. 잡과는 明法業, 明算業, 明書業, 醫業, 주금업呪禁業(卜業), 地理業(풍수지리), 하론업何論業(이속吏屬 선발. 하안何晏의 《논어집해論語集解》 중심)·三禮·정4-1

요업政要業 등이 있었다. 1369년(공민왕 18)에 중국 元의 제도를 모방한 鄉試·會試·殿試의 三層制로 바뀌었다. 시험 시기는 3년에 1회씩 시험을 치르는 식년시 式年試制이나 수시로 실시했다. 과거 시험관은 지공거知貢擧, 합격자를 문생門生 이라고 했다. 조선시대는 고려의 것을 승계했으되 승과제는 폐지하고 무과를 신설 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분류는 生員試·進士試·문과·무과·잡과 등이고, 정기시와 부정기시의 구분이 있었다.

생원시가 유교경전의 해석을 위주로 하는 시험이라면 진사시는 글짓기 시험이다. 초시·복시 두 단계 시험으로 각 100명씩 뽑아 생원·진사의 칭호를 내려주고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양자를 합해 사마시司馬試라고도 했는데, 문과의 예비고사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문신을 선발하는 시험인 문과에는 원칙적으로 생원·진사가 응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현직 관료를 비롯해서 일반 유생인 유학幼學까지도 응시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학교와 과거를 분리하여 운영했기 때문이다. 문과에는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 시험이 있었는데, 이중 초시·복시는 초장·중장·종장으로 나누어 시험을 치렀다. 식년시 문과의 최종 합격자 수는 33명이며, 1460년(세조 12)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확정하고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합격자에게는 문무과 모두 방방의식榜方儀式을 통해 합격증서인 홍패(紅牌)를 주었다.

임진왜란 이후 사회변동에 따라 통치체제가 흔들리면서 과거제도에도 폐단이 많아졌다. 우선 빈번한 과거실시로 인해 합격하고도 관직을 받지 못하는 자가 많아지고, 당파 사이에 대립이 행해짐에 따라 성적이나 실력보다 소속 당파나 정실에 의해 합격과 출세가 좌우되는 일이 많아졌다. 폐단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과거제 개혁방안이 실학파, 특히 유형원柳馨遠이나 정약용丁若鏞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그뒤 세도정치가 행해지면서 모든 관직이 별열(閥閥)에 의해 독점되어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을 얻지 못한 관료예비군만 누적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제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 1894년 갑오개혁에서 성균관을 근대식 교육기관으로 개편하고 과거제를 폐지했으며, 근대적인 관리등용법을 제정했다.

이렇듯 문과 시험에 합격하려면 무엇보다 시를 잘 짓는 일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문재가 뛰어난 이라 해서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아니었다. 거듭되는 실패로 끝내 급제하지 못하는 이가 부지기수였으니, 1853년 부임한 제주목사 목인 배睦仁培가 ‘호남 사림의 관면冠冕’이라 칭찬했던 매계梅溪 이한우李漢雨는 향시에 합격한 후 과거 공부를 위해 8차례나 서울을 오갔으나 아쉽게도 끝내 급제하지 못했다.

다산 정약용은 우리나라 과시科詩에 대해 그것이 시학을 망칠 뿐만 아니라 유용한 인재를 그르뜨리고 국가사업에 보람 있게 쓸 사람들의 정력을 공연히 소모해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며, 박제가는 「과거제도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지금 나라에서 時俗의 글솜씨로 인재를 뽑고 있다. 각종 이권과 녹봉이 이것에 달렸고, 성공과 명예가 이것으로부터 나온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이 길이 아니면 더불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나. 조선시대 한자입문서와 한문 배우기

1) 『천자문』, 『삼자경』, 『훈몽자회』, 『百家姓』(중국의 경우)

《천자문千字文》의 원래 이름은 《차운왕희지서천자次韻王羲之書千字》이며, 사언고시四言古詩 250구, 전체 1,000자로 된 몽학蒙學 교재이다. 내용은 천문사지天文史地, 비금조수飛禽走獸, 농업 지식, 도덕규범, 성어成語나 속담 등이다. 중국에서는 ‘천고기문千古奇文’이라 칭한다. 남조南朝 양무제梁武帝 소연蕭衍이 황실의 자녀들에게 한자와 서법을 가르치기 위해 왕희지 서예 작품 가운데 1,000자를 뽑아 산기시랑散騎侍郎, 급사중給事中을 맡고 있던 주흥사周興嗣(470~521)에게 명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당송 이후로 아동들의 식자識字 교재로 널리 쓰였으며, 송명대부터 청말에 이르기까지 《삼자경三字經》, 《백가성百家姓》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계몽 교재로 활용되었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신라 법흥왕 8년(521) 양나라 승려 원표가 사신으로 오면서 불경과 함께 가지고 왔다고 한다.

天地玄黃, 宇宙洪荒. 布射僚丸, 嵇琴阮嘯. 여포는 화살을 잘 쏘고, 웅의료熊宜僚는 구슬을 잘 놀렸다.

都邑華夏, 東西二京. 도읍을 중국에 정했으니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도읍지가 있다. 背邙面洛, 浮渭據涇. (洛陽은) 북망산을 등지고 낙수를 마주하고 있으며, (長安은) 위수가 감싸고, 경수를 끼고 있다. 涇渭(경위분명): 옹고 그림, 탁하고 맑음이 분명함. 謂語助者, 焉哉乎也 말을 돕는 어조사란 것은 언재호야이다.

이렇듯 예전에는 널리 사용되었으나 지금의 시각에서 볼 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상용 글자가 아닌 것이 많다. 예컨대, 마지막 4글자인 언재호야焉哉乎也는 어조사인데, 옛날에는 한문을 배울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글자였지만 지금은 언감생심焉敢生心, 오호통재嗚呼痛哉 등에 쓰일 뿐 용례가 많다고 할 수 없다. 반대로 반드시 배워야 할 글자가 빠져 있기도 하다. 숫자 三, 六, 七, 十이 없고,

방향은 北, 색상은 綠, 계절은 春, 자연은 冰(氷), 山, 雪이 없으며, 小, 低, 校, 教, 先, 室 등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자수를 맞추느라 애썼을 뿐 시가로서 매력은 많이 떨어진다. 이런 까닭에 조선시대에 이미 천자문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중종 22년(1527) 최세진崔世珍이 한자 학습서 훈몽자회訓蒙字會(초학자회初學字會 필사본)를 만든 것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유였으며, 정약용도 천자문을 대체할 《아학편兒學編》을 편찬했다.

《삼자경三字經》: 송宋 왕응린王應麟이 지은 훈몽서訓蒙書. 1句 3字 356句.

人之初, 性本善, 性相近, 習相遠, 苟不教, 性乃遷, 教之道, 貴以專 귀이전

사람이 태어난 처음에는 성품은 본래 착했다. 착한 성품은 서로 근접하나 습관은 서로 차이가 멀다. 진실로 가르치지 않으면 착한 성품이 나쁜 것으로 옮겨 간다 가르치는 방법은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養不教, 父之過. 教不嚴, 師之惰.

子不學, 非所宜. 幼不學, 老何爲.

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義.

曰國風, 曰雅頌. 號四詩, 當諷詠.

詩既亡, 春秋作. 寓褒貶, 別善惡.

三傳者, 有公羊. 有左氏, 有穀梁.

조선의 경우 『천자문』을 떼고 난 후에는 『유합類合』이란 책을 통해 한자의 발음을 익혔다. 성종 시절 서거정徐居正이 만들었다고 하나 정확치 않다. 조선 중기 유학자 유희춘柳希春이 『유합을 보완한 『신증유합新增類合』을 냈다. 다음으로 읽은 책은 최세진崔世珍이 1527년(중종 22년) 쓴 『훈몽자회訓蒙字會』이다. 초목, 과일, 곤충, 신체, 음식, 옷 등 주제별로 나누어 한자를 쓰고 그 옆에 뜻과 발음을 한글로 적었다.

이외에도 중종 시절 朴世茂의 『훈몽선습童蒙先習』은 유교의 핵심 윤리와 더불어 단군부터 시작하여 삼한, 삼국, 고려, 조선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루었다. 현종 이후 세자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쓴 『격명요결擊蒙要訣』은 부모, 형제, 친구, 부부간에 처신해야 할 자세, 선비의 예절, 세상의 이치 등을 내용으로 한 몽학서이다. 책 말미에 사당도·시제도·설찬도·제의·출입의·참례의·천헌의 등을 부록으로 넣었다. 전국 향교의 교재가 될 정도로 널리 읽혔다.

제4장 「독서장」에서 그는 독서의 순서를 이렇게 말했다. “先讀小學, 於事親, 敬

兄, 忠君, 弟長, 隆師, 親友之道, 一一詳玩, 而力行之(먼저 소학을 읽어 부모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에게 순종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히 하는 도리를 하나하나 자세하고 익숙히 배우고 이를 힘써 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학 및 대학혹문大學或問을 읽어 궁리, 정심, 수기, 치인의 도리를 배우면서 일일이 참되게 숙지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次讀大學及或問, 於窮理正心修己治人之道, 一一眞知, 而實踐之).” 다음은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역경』, 『춘추』로 넘어간다.

참조: 주희는 《사서집주》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사서혹문(四書或問)》을 저술했으며, 《대학혹문(大學或問)》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사서오경』을 읽은 다음에는 『자치통감資治通鑑』으로 넘어갔다.

金得臣(1604~1684. 호는 栢谷,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름. 제주판관 金緻의 아들)는 『종남총지終南叢志』48에서 이렇게 말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문을 쌓은 선비치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고서 성취한 경우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문장이 뛰어난 사람 가운데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역시 손꼽아 헤아릴 수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괴애乖崖 김수온金守溫은 문을 닫아걸고 책을 읽으면서 밖을 내다보지 않아 마루를 내려와서 낙엽을 보고는 비로소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았고, 허백당虛白堂 성현成僊은 낮에는 책을 읽고 밤에는 외우면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어떤 때는 변소에 가서 돌아올 줄을 몰랐고, 김일손金駟孫은 韓愈의 글을 천 번 읽었고, 윤결尹潔은 『맹자』를 천 번 읽었고,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은 『논어』와 『두시』를 이천 번 읽었고, 백호白湖 임재林悌는 『중용』을 팔백 번 읽었고, 간이簡易 최립崔曄은 『한서』를 오천 번 읽었는데, 특히 「항적전項籍傳」을 일만 번이나 읽었고, 창해滄洲 차운로車雲輅는 『주역』을 오백 번이나 읽었고,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은 『두시』를 수천 번 읽었고, 어우於于 유몽득柳夢寅은 『장자』와 유종원의 글을 천 번 읽었고,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은 사마천의 『사기』를 수천 번이나 읽었다고 한다.

나는 천성이 노둔魯鈍하여 책을 읽은 공이 다른 사람의 두 배나 된다. 『사기』, 『한서』, 한유와 유종원의 글을 초록하여 만여 번이나 읽었고, 그 중에서도 「백이열전」을 제일 좋아하여 일억 일만 삼천 번이나 읽었다. 그래서 마침내 나의 보잘 것 없는 집을 「억만재億萬齋」라고 부른다. 절구 한 수를 지었다.

진한당송秦漢唐宋의 글을 찾아 별려놓고

침 튀기며 입으로 읽기를 일만 번
그 중에서도 백이의 이야기를 좋아하였는데
표연히 뛰어난 기개는 구름보다 낫다.

지난 경술년(1670년) 가뭄이 심하였고, 다음해에는 굶주림과 병이 크게 일어나서 도회지나 시골을 막론하고 시체가 그득 쌓였는데, 얼마나 되는지 몰랐다. 어떤 이가 나에게 말하길, “올해 죽은 사람과 당신이 책 읽은 횟수와 어느 것이 많겠습니까?”라고 했다. 대개 내가 책을 많이 읽은 것을 희롱한 것이다.(홍만종洪萬鍾, 『시화총림詩話叢林』, 221~222)

참고: “杜門端坐萬番讀, 漢宋唐秦以上文. 最嗜伯夷奇怪體, 飄飄逸氣欲凌雲.(문을 닫고 가만 앉아 일만 번을 읽었으니, 진한秦漢과 당송唐宋 이상의 글이었네. 백이전의 기괴한 문체 가장 좋아했으니, 빼어난 기운 표표히 구름 위로 솟구치네).” 柏谷 金得臣, 「題古文抄冊」, 『柏谷集』

碧山學士焚銀魚, 白馬却走身巖居.
古人已用三冬足, 年少今開萬卷餘.
晴雲滿戶團傾蓋, 秋水浮階溜決渠.
富貴必從勤苦得, 男兒須讀五車書.

푸른 산에 사는 학사는 은어대를 불태우고, 백마로 달려가 바위 속에 몸을 숨겼네
옛사람은 겨울 동안 독서에 몰두했다 하거늘, 그대는 소년부터 지금까지 만여 권을 읽었네
맑은 구름이 집에 가득 둥글게 덮개를 엮고, 가을 물은 섬돌에 넘쳐 도랑으로 떨어지네
부귀에는 반드시 근면하고 괴로움이 따르니, 남아로서 모름지기 다섯 수레 책을 읽을지라.
주: 당조 오품五品 이상 관원이 차는 은으로 만든 어장魚章

참고: 《莊子集釋》〈雜篇·天下〉, “惠施多方, 其書五車, 其道舛駁, 其言也不中.” 杜甫, 「題柏學士茅屋」, “男兒須讀五車書.” 두보, 「奉贈韋左丞丈二十二韻」, “讀書破萬卷, 下筆如有神.”

紈袴不餓死, 儒冠多誤身. 丈人試靜聽, 賤子請具陳.
甫昔少年日, 早充觀國賓. 讀書破萬卷, 下筆如有神.
賦料揚雄敵, 詩看子建親. 李邕求識面, 王翰願卜鄰.
自謂頗挺出, 立登要路津. 致君堯舜上, 再使風俗淳.
此意竟蕭條, 行歌非隱淪. 騎驢十三載, 旅食京華春.
朝扣富兒門, 暮隨肥馬塵. 殘杯與冷炙, 到處潛悲辛.
主上頃見徵, 欬然欲求伸. 青冥卻垂翅, 蹭蹬無縱鱗.

甚愧丈人厚, 甚知丈人真. 每於百僚上, 猥頌佳句新.
 竊效貢公喜, 難甘原憲貧. 焉能心怏怏, 只是走踆踆.
 今欲東入海, 即將西去秦. 尚憐終南山, 回首清渭濱.
 常擬報一飯, 況懷辭大臣. 白鷗沒浩蕩, 萬里誰能馴?

다. 學詩의 필독서 『당음』과 『당시삼백수』 등

우리나라에 중국의 유학과 한시가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이다. 전진前秦의 順道가 고구려에 불교를 전수하고(372년) 영류왕榮留王 고건무高建武가 당에서 道法을 수입하고 자제들을 입당시켜 당나라 시문을 배우게 했으며, 신라 진평왕은 621년 당과 국교를 맺어 당 문화를 수입하면서 古詩에 이어 근체시도 전래되었고, 이미 성당의 시대였기 때문에 새로운 한시가 신라에 널리 퍼져 특히 唐風이 유행하게 되었다.

고려시대(918~1392년)는 중기에 소식蘇軾을 중심으로 한 宋詩가 전래되면서 송시가 크게 유행했다. 하지만 고려 후기로 접어들면서 이에 불만을 지닌 이들이 당시를 추종하기도 했다. 예컨대 고려 말기 시인인 이색李穡(1328~1396년)은 “文法漢, 詩法唐.”(『牧隱文藁』)라고 하여 시를 짓는 데 당시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시대로 넘어와 중종中宗(재위 1506~1544년) 연간에 이르러 蘇軾의 뒤를 이은 황정견黃庭堅, 진사도陳師道 등을 중심으로 한 강서시파江西詩派 시집이 유행하면서 이른바 ‘해동강서시파海東江西詩派’라고 불린 일군의 시인들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박은朴闇, 이행李荇·정사룡鄭士龍 등이다. 이후 강서시파의 작품에 불만으로 당시唐詩를 추종하면서 조선 문단에서 唐詩가 큰 세력을 떨쳤다. 초기에는 ‘삼당시인三唐詩人’이라 불린 최경창崔慶昌, 백광훈白光勳, 이달李達을 필두로 만당시晩唐詩가 유행했으나 16세기 후반부터 만당시의 유약한 기세와 과도한 감상주의를 비판하면서 세찬 기세를 보여주는 성당盛唐 시가 대세를 이루었다.

허균은 『성수시화惺叟詩話』에서 조선의 시단이 중종 이후로 크게 발흥했다고 주장하면서 간략한 시사詩史를 제공했다.

“조선의 시詩는 중종조中宗朝에 이르러 크게 성취되었다. 이행李荇이 시작을 열어 눌재訥齋 박상朴祥, 기재 신광한申光漢, 충암沖庵 김정金淨,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이 일세一世에 나란히 나와 휘황하게 빛을 내고 금옥金玉을 울리니 천고에 칭할 만하다.

조선의 시는 선조조宣祖朝에 이르러서 크게 갖추어졌다. 노수신盧守愼은 두보杜甫의 법을 깨쳤는데 황정욱黃廷彧이 뒤를 이어 일어났고, 최경창崔慶昌, 백광훈白

光勳은 당唐을 본받았는데 이달李達이 그 흐름을 밝혔다. 우리 망형亡兄의 가행歌行은 이태백李太白과 같고 누님의 시는 성당盛唐의 경지에 접근했다.”

집안사람을 너무 추켜세우긴 했으나 조선의 시사를 보여줌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특히 박은과 이행은 조선의 第一大家로 칭송받았다.

* 예전 우리나라의 시인들은 시를 배우는 데 무엇을 참고했을까?

조선 초기에는 『三體詩』, 『唐詩鼓吹』, 『續鼓吹』, 『三體詩』, 『唐音』, 『唐賢詩』, 『唐詩絕句』, 『唐百家詩選』 등 宋元代에 편찬된 당시선집이 주로 읽혀졌다. 16세기 중반까지는 『唐音』이 가장 널리 읽혔다. 그러다가 16세기 후반에는 盛唐詩가 유행을 하면서, 高槩이 편찬한 『唐詩品彙』가 唐詩 학습의 전범으로 수용됐다. 조선에 『당음』, 『당시품휘』, 『당시정성』, 『당시선』 등이 수입되면서 번각본, 필사본으로 유통된다.

* 《당음唐音》은 원대 양사공楊士宏이 편집한 당대 시가 총집이다. 전체 15권이며 ‘시음始音’, ‘정음正音’, ‘유향遺響’ 세 부분에 전체 당시 1341首가 수록되어 있다. 다만 이백과 두보, 한유의 시는 전집류가 이미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수록하지 않았다. 당음의 선시 원칙은 “審其音律之正變, 而擇其精粹”(自序)이다. 「시음」에는 왕발王勃, 양형楊炯, 노조린盧照鄰, 낙빈왕駱賓王 등 이른바 초당 四傑의 시를 수록했고, 「유향」에는 당대 대가 가운데 「정음」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과 方外人의 시를 수록했다. 「정음」은 이 책의 주요 부분으로 오언과 칠언 古律詩와 절구 중심으로 분류했다. 시기는 ‘당초성당唐初盛唐’, ‘중당中唐’, ‘만당晚唐’ 등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엄우嚴羽 《창랑시화滄浪詩話》의 ‘성당지시盛唐之詩’, ‘대력이환지시大曆以還之詩’, ‘만당지시晚唐之詩’의 구분을 따라 이후 명대 고병高棅이 《당시품휘唐詩品彙》에서 초당初唐, 성당盛唐, 중당中唐, 만당晚唐으로 당시를 4분하는 근거가 되었다. 둘째, 성당시를 특히 추앙했는데, 이는 엄우가 성당시를 ‘第一義’로 간주하는 관점을 계승한 것이다. 이는 명대에 들어와 시는 반드시 성당을 배워야 한다는 ‘시필성당詩必盛唐’의 단초가 되었다. 셋째, 體裁로 분류하고, 음률로 품평하며, 당시의 발전 흐름에 주의를 기울였다.

『당음唐音』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조선 전기에 당시를 공부하는 초학자들의 입문서로 활용되었으며, 고려 시대부터 지속된 宋詩의 시풍에서 벗어나 唐風으로 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이 분명하다. 조선시대 『당음』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비교적 평이한 오언절구를 뽑아 엮었으며, 한자의 평측을 나타내는 점을 찍었다. 예를 들어 상성, 거성, 입성에는 ●표, 평측이 통용되

는 ‘看’, ‘過’ 등은 〇표를 했으며, 평성平聲은 표시를 하지 않았다. 『오언당음』, 『칠언당음』이 있으며, 조선시대 시를 배울 때 반드시 읽어야 하는 주요 교재였다.

* 《당송연주시격唐宋聯珠詩格》

『唐宋聯珠詩格』은 시격詩格, 시선詩選, 시가 평점을 종합한 시학 문헌이다. 337개의 시격(四句全對格~用後身字格)에 따라 당송 시인의 7언 절구 1천여 수를 분류하여 상세한 평가와 해석을 수록했다. 남송말 원나라 초기에 우제于濟가 기틀을 잡고 시인 채정손蔡正孫이 증보하여 편찬했으나 이후 중국에서는 망실되었고, 서거정徐居正 등이 증주增注하고 변동파卞東波가 교정하여 조선 시인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 『천가시千家詩』와 『당시삼백수』

청대 서당에서 흔히 사용하던 교재 ‘삼백천천三百千千’, 《三字經》, 《百家姓》, 《千字文》과 《千家詩》. 《천가시》의 최초 판본은 남송 유극장劉克莊이 편찬한 《분문편류당소시현천가시선分門纂類唐宋時賢千家詩選》으로 당송시기 시인들의 율시律詩와 절구絶句를 모아 360여 시인의 작품 1270여 수를 수록했다. 남송의 사방득謝枋得은 이를 기초로 칠언七言 천가시 약 123수를 엮었고, 청대 왕상王相이 오언五言 천가시 84수를 추가하고 주를 달았다.

《당시삼백수唐詩三百首》는 청 건륭제 연간인 1764년 형당퇴사蘅塘退士 손수孫洙가 《천가시》의 영향을 받아 편찬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시인 77명의 시 310수를 수록했으며, 이후 광서 연간에 사등음사四藤吟社에서 출간한 판본에는 두보의 《咏懷古迹》 3수를 첨가했다. 五言古诗, 七言古诗, 五言律诗, 七言律诗, 五言絶句, 七言絶句, 樂府 등의 시체로 편제되었다. 원래는 아동들이 시가를 학습할 때 서당이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용이었으며, 전국적으로 크게 유행했다.

* 『전당시全唐詩』

당대 시詩를 망라하여 모은 칙찬勅撰 詩集으로 전체 900권이며, 청 강희제康熙帝의 명에 따라 팽정구彭定求, 沈三曾 등 10명이 편찬했다. 1705년 출간되었으며, 수록 시인은 2,200여 명이고, 작품은 48900여 수이다. 『전당시』에는 王巨人, 金進德, 金地藏, 崔致遠, 金立之, 金雲卿 등 여러 신라 사람들의 시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그 가운데 왕거인의 시를 예거하면 다음과 같다.

憤怨詩

于公慟哭三年旱，鄒衍含悲五月霜。

今我幽愁還似古，皇天無語但蒼蒼。

우공이 통곡하니 삼 년 동안 가물었고

추연이 슬픔을 머금자 오월에도 서리가 내렸네.

지금의 내 시름이 도리어 옛사람과 같은데

하늘은 말없이 푸르기만 하구나.

(全唐詩曰 新羅女主曼時，有人譏謗時政，榜於路。主疑隱者王巨仁所爲，命下獄。巨仁憤怨作詩書獄壁。〈전당시〉에 이르기를, 신라 여왕 만만 시절에 어떤 사람이 그때의 정치를 비방하여 길에다 방을 붙였다. 임금 은자 왕거인이 한 짓이라고 의심하여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다. 왕거인이 분하고 원통하여 시를 지어 감옥 벽에다 썼다.)

* 『고문진보』와 『고문관지』

『古文眞寶』는 송대 黃堅이 편찬한 고시와 고문을 합친 시문집으로 선진시대부터 송나라까지 시문을 선집했다. 17세기 중엽 이전에 중, 일, 한 삼국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후 중국에서는 점차 문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실전되고 말았다. 이와 달리 한국과 일본에서는 문인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았다. 중국에서는 청나라 때 학자 오초재 吳楚才와 오조후 吳調侯가 1695년에 편찬한 산문집인 『고문관지古文觀止』를 애용했다. 춘추 전국 시대부터 명나라 때까지 산문 222편을 수록하고 있다.

고문진보 외에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래된 것으로 소통의 『문선』, 여조겸의 『고문관견』, 眞德秀의 『文章正宗』 등이 있었으며, 한국 본토에도 자국의 시문집, 예를 들어 집현전학사들이 편찬한 『絲綸全集』, 金正國의 『文範』, 鄭斗卿의 『韓文正宗』 등이 있었다. 하지만 『고문진보』의 영향이 가장 크다. 한국에서 『고문진보』는 漢文學 학습의 기본 교재였다.

삼국의 『고문진보』는 판본이 상이한데, 한국은 『諸儒箋解古文眞寶』, 『詳說古文眞寶大全』 등이다. 후자는 명조 景泰원년(문종 원년, 1450년 조선에 사신으로 갔던 翰林侍講 倪謙이 전한 것으로 가장 애호되었던 판본이다. 전자는 작가에 따라 작품을 수록했으나, 후자는 시대에 따라 작품을 수록했다.

라. 唐詩와 宋詩

* 唐詩

“당시는 가슴으로 쓴 시이다. 여기에는 시인의 웃음과 눈물이 있어, 마음으로 전해오는 인간의 체취가 물씬하다. 이에 반해 송시는 머리로 쓴 시이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깊고 담담한 관조와 거리를 두고 물끄러미 바라보는 조망이 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주는 위안과 인간의 정신을 고원한 곳으로 이끌어주는 깊이가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시에서 서정함축을 중시하고 意興이 뛰어난 시를 ‘唐音’이라 하고, 생각에 잠기고 이치를 따지며 유현한 맛을 풍기는 시를 ‘宋調’라고 일컬어 왔다.” 정민, 『한시미학산책』 73쪽

조선삼당시인朝鮮三唐詩人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1537~1582)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1539~1583)

손곡蓀谷 이달李達(1539~1612)

삼당시인들이 추구했던 당시풍이란 구구한 설명조의 시가 아니다. 담박하게 풍경을 보여주고 감성적으로 경물景物을 묘사하여 서정을 공감하게 하는 창작법을 사용했다.

이달李達, 「보리 베는 노래(예맥요시麥謠)」,

田家少婦無夜食 雨中刈麥林中歸

生薪帶濕煙不起 入門兒女啼牽衣

시골집 젊은 아낙이 저녁거리가 없어서

빛속에 보리를 베어 수풀 속을 지나 돌아오네

생선은 습기 머금어 불도 붙지 않고

문에 들어서니 어린 딸은 옷을 끌며 우는구나

이달, 「불일암 인운 스님에게(佛日庵因雲)

寺在浮雲中 白雲僧不掃

客來門始開 萬壑松花老

구름속에 절이 있는데

구름이라 스님은 쓸지를 앓는구나

손님이 와서 비로소 문을 열어보니

온 산의 송화가 이미 진 뒤더라

허균, 『惺叟詩話』39에 따르면, 이달은 어려서 정사룡에게 杜詩를 배웠다. 하루는 정사룡이 서가 위의 여러 책들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그 책들을 보다가 『춘정집』에 이르러서는 땅바닥에 던져버렸다. 『매계집』은 펼쳐보다가 웃으면서 도로 덮었다. 오직 『점필재집』은 가져다가 읽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달이 넘겨보니 모두 비점을 찍었다. 대개 그 글을 좋아하여 소재를 가져다가 자료로 삼으려고 한 것이다. 일찍이 평생토록 마음에 들었던 글귀를 물었더니, “산의 나무가 모두 울더니 바람이 금방 일어나고, 강물소리가 갑자기 거센데 달은 외로이 걸려 있네.”라는 시구를 사람들이 험하면서도 아름답다라고 여겼다. “봉우리 꼭대기엔 별이 반짝이며 이지러진 달과 빛을 다투고, 나무 꼭대기 새는 날아 깊은 덤불로 숨는구나.”라는 시구도 또한 정교한 생각이 담긴 시이다. 그러나 “끝내 빗줄기가 노을빛을 삼켜버리니 산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시냇물 달빛을 받아 밤에 도리어 더 밝더라.”라는 시만 못하다. 이 시는 귀신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다.

* 宋詩

시의 공용성을 강조하고, 인생에 대한 철학적 음미, 철리적 경향, 수식 배제, 섬세한 관찰과 개성적 표현을 중시했다. 다분히 산문적이고 서술적이며, 이지적이고 심원한 풍격을 지닌다.

김시습, 「無題」

終日芒鞋信脚行

一山行盡一山青

心非有想奚形役

道本無名豈假成

宿露未晞山鳥語

春風不盡夜花明

短筇歸去千峰晴

翠壁亂烟生晚晴

종일 짚신 신고 발길 따라 가노라니

산 넘으면 푸른 산이 또 앞에 서 있네.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매어 있는고(마음에 생각 없다면 어찌 형상에 부림당하며)

도는 본시 무명하니 어찌 거짓이 있을 수 있나.

이슬 내린 아침 산새는 지저귀고

봄바람 끝나지 않았는데 들꽃은 피었네.
지팡이를 짚고 들어갈 제 천봉이 고요하더니
푸른 절벽 아지랑이 저녁 햇살 비쳐드네.

퇴계, 「溪塘」

露草天天繞水涯, 小塘清活淨無沙.
雲飛鳥過元相管, 只怕時時燕蹴波.
이슬 띠 풀 무성하게 물가를 둘러 있고
작은 못은 맑고 맑아 티끌 한 점 없구나.
지나가는 구름과 새 본디 관계 있건만
제비 가끔 수면을 차 물결 일까 두려웁네.

* 제자 金富倫은 “천리가 유행함에 인욕이 여기에 끼여들을 두려워한 것이다(天理流行而恐人欲間之).”

당시는 대상 그 자체에 몰입함으로써 자연스레 시인의 정의를 드러낸다. 송시는 시인이 자신의 정의를 대상을 통해 드러낸다. 그렇다면 제주 한시에서 당시와 송시의 풍격을 찾아보면 어떤 시가 있을까?

마. 「학시」 - 김시습 「학시」2수

객이 시를 배울 수 있느냐고 묻기에 난 전수할 수 없다고 답했네.
다만 그 묘한 곳만 볼 뿐 소리와 연구聯句는 묻지 마시게.
산 고요하여 구름이 들에서 걷힐 때, 강물 맑아 달이 하늘에 떠오를 때
이때 만약 뜻 얻는다면 나의 시구에서 신선 찾을 걸세.
客言詩可學 余對不能傳
但看其妙處 莫問有聲聯
山靜雲收野 江澄月上天
此時如得旨 探我句中仙

객이 시를 배울 수 있다하기에 시법은 차가운 샘물과 같다 말했네.
돌에 부딪히면 목메어 울다가도, 연못에 가득 차면 고요해 시끄럽지 않지.

굴원과 장자는 강개함이 많았지만, 위진대에 이르러선 점차 번다해졌지.
보통의 격조야 끊어 없앤다 해도 묘한 이치 말로는 전하기 어렵다네.

客言詩可學 詩法似寒泉
觸石多嗚咽 盈潭靜不喧
屈莊多慷慨 魏晉漸拏煩
勦斷尋常格 玄關未易言

3-2. 한시 짓기

가. 情과 情景

* 언어는 문학의 수단인가, 아니면 목적인가? 문학, 특히 시는 언어를 벗어남으로써 제 몫을 다하는 교묘한 문학 장르이다. “외물에 사람이 감응하여 정감이 생기고, 그것이 언어를 통해 드러난 것이 바로 시이다.” 그렇다면 ‘시’는 그 자체로 목적인가? 그렇다. 하지만 ‘시’의 의도, 지향은 작가의 심사, 사상, 감정, 즉 情志가 아닌가? 다시 그렇다면, ‘시’ 역시 수단인가?

중국의 문학이론은 위진대魏晉代 이른바 ‘문학의 자각시대’를 거치면서 숙성된다. ‘시언지’와 ‘시언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영정성吟詠情性(정지情志)’가 ‘시’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문학론에 시가 창작론이 등장하면서 시를 짓기 위한 학습과 창작 과정(구상, 성물과 수사), 그리고 감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설이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시가의 창작사유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통해 시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한시를 창작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육기陸機는 「문부文賦」에서 창작에 임하는 작가의 준비단계에 관한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오랫동안 머물며 세밀한 관찰을 하고 古代의 典籍에서 情志를 기른다. 佇中區以玄覽, 情志於典墳.”

학습과 관찰이다. 기본적인 소양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시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은 아니다. 실마리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외물과 접촉하여 감정이 생겨남이고,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어 풀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불현 듯이 찾아오는 영감과 사방천지, 고금을 오가며 연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 발동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시가 나올 채비를 하게 된다.

“추운 숲속을 거니니 마음에 슬픔이 일고, 봄꽃을 바라보니 생각이 어지럽다.

경물을 접하면 저절로 감정이 우러나와 더욱 비통스럽나니

節氣는 변함이 없으되 시절은 그렇지 않구나.

步寒林以悽惻，玩春翹而有思。觸萬類以生悲，歎同節而異時.” 육기, 「탄서부歎逝賦」

“하늘은 아득하여 높기만 하고, 안개 자욱 사방을 둘렀네.

밤은 깊어 언제나 지고 날은 어느새 떨어져.

.....

새는 저 구름 끝에서 울고, 게다가 내 고달픈 심정이란.

항시 사물을 보면 슬픔만 더 하고, 계절의 흐름을 보니 여러 느낌이 갈마드네.

올해도 이미 겨울로 접어들어 슬프나니,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며 오열을 하네.

天悠悠其彌高，霧鬱鬱而四幕。夜綿邈其難終，日晼晚而易落.....

鳥高鳴於雲端，矧余情之含瘁。恒觀物而增酸，歷四時以迭感，

悲此歲之已寒，撫傷懷以嗚咽.....” 「感時賦」

이별의 쓰라림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 항시 근심 속에 즐거움이 없나니.

슬픔은 정감으로 인해 저절로 피이고, 우울은 외물에 접해 실마리가 생기나니.

낮에는 식음을 전폐하고憤을 발하고, 밤에는 잠잘 채비도 않고 누워 말하려 하네.

彼離思之在人，恒戚戚而無歡。悲緣情以自誘，優觸物而生端。

晝輟食而發憤。宵假寢而與言. 「思歸賦」

헤어져 오랜 세월 슬픈 마음만 쌓이고

보는 경물마다 울컥 처연한 느낌이 이네.

載離多悲心，感物情淒惻. 육기, 「낙양으로 가며赴洛」 제1수, 『소명문선昭明文選』

각 시기마다 그에 맞는 자연물이 있고, 그 자연물은 각기 자신의 용모를 지니고 있다. 인간의 감정은 자연물에 따라 변천하고, 글은 감정에 의해 촉발된다.

歲有其物，物有其容。情以物遷，辭以情發. 유희劉勰, 『문심조룡文心雕龍』 「물색物色」

산은 첩첩 물은 감돌고, 나무들 섞여 있고 구름은 합해지네. 눈길에 갇히고 돌아오면, 마음도 따라서 움직인다네. 봄날 해는 느릿느릿, 가을바람 스산해라. 정을

좁은 건넌듯이 흥이 일어남은 답하는 듯.

山沓水迎，樹雜雲合。目既往還，心亦吐納。春日遲遲，秋風颯颯。情往似贈，興來如答。” 「물색」

사람은 일곱 가지 정감을 품부 받아 지니고 있는데 외물의 자극을 받으면 이에 따른 감응이 일어난다. 마음에 느낌이 생기면 읊조리게 되니 이는 저절로 그러하지 않음이 없다. 人稟七情，應物斯感，感物吟志，莫非自然. 「명시明詩」

이상을 도표화하면 이렇다. 物物-정情-시詩-情志.

한시는 外物과 感情, 즉 景과 情의 만남의 산물이라고 할 정도로 정경情景을 하나의 신조처럼 받든다. 移情入景, 情隨景生, 情景交融, 物我一體, 物我爲一 등등은 모두 ‘정경’과 관련이 있다. 중국 시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부터 정과 경이 잘 어울린다. 『주남周南 관저關雎』는 이렇게 시작한다.

징경이 노랫소리, 강가 모래톱에 들리는데.

아름답고 선량한 아가씨, 사내는 그녀를 배필로 삼고 싶어라.

關關雎鳩，在河之洲，窈窕淑女，君子好逑.

먼저 새들이 서로 노래하는 것을 묘사한 다음 남녀의 애정 추구에 대해 읊고 있다. 이렇듯 먼저 다른 외물에 기대어 읊고자 하는 것(감정, 정지)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일러 ‘흥興’이라고 한다. 『시경』의 예술 표현 수법인 賦, 比, 興 가운데 하나이다. ‘부’는 직접 진술하는 식의 서술 방법이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으로 서사敍事의 기본적인 수법이다. ‘비’는 사람 또는 사물에 형상적인 비유를 통해 그 특징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흥’의 기법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예를 들어 이백은 「장진주將進酒」에서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황하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바다로 달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음을(君不見黃河之水天上來，奔流到海不復回)”라고 운을 떼 후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좋은 집 맑은 거울에 비친 백발 슬프나니, 아침에 검던 머리 저녁에 눈처럼 희고 말았다네(君不見高堂明鏡悲白髮，朝如青絲暮成雪)”로 흥기시키고 있다. 『시경』의 비흥수법을 계승한 것이다. 주희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했다.

사람이 태어나서 고요함은 하늘이 부여한 천성이고, 성품(천성)이 외부 사물과

접촉하여 일어나는 것은 성품의 욕망이다. 대개 성품에서 욕망이 일어나면 생각이 없을 수 없게 된다. 생각이 있게 되면 말이 없을 수 없다. 말하고서 말로 다하지 못한 것이 있어 한숨짓거나 탄식의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니, 거기에 자연히 음향과 절주가 생겨 억제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시가 지어지는 까닭이다.

人生而靜，天之性也；感於物而動，性之慾也。夫既有欲矣，則不能無思；既有思矣，則不能無言；既有言矣，則言之所不能盡而發於詠嗟詠歎之餘者，必有自然之音響節奏，而不能已焉。此詩之所以作也。 주희朱熹, 《詩集傳序》

명대 사진謝榛(1495~1927)은 『사명시화四溟詩話』에서 “경은 시의 매개체이고, 정은 시가 잉태하는 태반이니, 이 둘을 합쳐야 시가 된다(景乃詩之媒, 情乃詩之胚, 合而爲詩).”라고 단언했다. 이러한 논설을 바탕으로 청대 왕국유王國維는 『인간사화人間詞話』에서 이른바 정경교응의 최고 경계를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보의 「춘망春望」을 읊어보면 정경교응情景交融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다.

나라는 무너져도 산하는 옛 산하, 봄이 오는 재마다 푸른 풀 나무.
세상이 썩거늘 꽃조차 눈물 뿌리고, 어이타 이별인가! 새 소리에도 깜짝.
병란 석 달째에 집안 편지는 만금보다 반갑고야.
백발 굵다 보면 더욱 짧아지니 비녀도 깎 수 없어 피그르 떨어지네.

國破山河在，城春草木深。

感時花濺淚，恨別鳥驚心。

烽火連三月，家書抵萬金。

白頭搔更短，渾欲不勝簪。

(757년 안녹산과 사사명의 난리 때 - 북쪽 부주鄜州(섬서성 황릉)에서 피난살이 하던 46세(758년)의 두보가 쓴 시이다)

경물 그리기를 잘 했던 전원시의 대가 맹호연도 예외가 아니다.

봄밤은 어느덧 아침이라
곳곳마다 새소리
어젯밤 비바람 소리에
꽃은 얼마나 졌을까?
春眠不覺曉，處處聞啼鳥。

夜來風雨聲，花落知多少。「춘효春曉」

(성당 시인 맹호연孟浩然(689-740), 평생을 방랑과 은거로 보낸 산수, 전원시의 대가의 시다. 앞은 서경, 뒤는 서정이다)

나. 창작사유: 構思, 靈感, 想像

옛 사람이 말하길, “몸은 江湖에 있으되 마음은 魏나라 궁궐에 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신묘한 생각, 즉 창작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 작가가 문장을 지을 때의 생각은 그 정신활동이 무한하다. 그런 까닭에 조용히 생각에 몰두하면 천 년 전을 연상할 수 있고, 천천히 얼굴이 움직이면 만 리 밖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작가는 율조리는 가운데 주옥처럼 고운 소리를 내뱉고 들이마실 수 있으며, 그의 눈앞에서 바람과 구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창작 사유의 효과이다. 그래서 창작사유의 오묘함은 작가의 정신과 외물이 서로 융합, 관통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古人云, “形在江海之上, 心存魏闕之下”. 神思之謂也. 文之思也, 其神遠矣. 故寂然凝慮, 思接千載, 悄焉動容, 視通萬里, 吟詠之間, 吐納珠玉之聲, 眉睫之前, 卷舒風雲之色, 其思理之致乎! 故思理爲妙, 神與物游. 유협, 『문심조룡』, 「신사神思」

感應이 모여 일어나, 그 통하고 막히는 실마리에 대해 말하자면, 오면 막을 수 없고 떠나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빛이 사라지듯 숨어있다가도 메아리가 일어나듯 나타나기도 한다. 바야흐로 천기가 순식간에 생겨나오니 어찌나 어지러운지 법칙이 없는 것과 같다. 文思는 바람이 일어나듯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말은 샘물이 솟아나듯 입속에서 흘러나온다. 그 아름답고 威儀가 있는 정조가 활발해지면, 그저 붓과 종이에 써내려 간다. 그렇게 쓰여진 문장은 아름답고 빛나 눈에 가득차고 음운은 맑아서 귀에 가득히 들어온다.

그러나 여섯가지 情이 막히고 마음속의 뜻이 가버린 상태에서 정신도 머물러 움직이지 않으니, 그것이 마치 죽은 고목 같고, 사라져 없어짐이 마른 물줄기 같다. 영혼을 살피 문리를 탐구하고 정신을 맑게하여 스스로 (문장의 오묘한 이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문리는 가려져 더욱 깊이 숨고 문사는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삐걱거리며 잘 통하지 않게 된다. 이런 까닭에 자신의 감정을 다하여 심혈을 기울여도 작품에 대해 후회할 것이 많게 되고, 때로는 작가 자신의 뜻 가는 대로 쓴다해도 오히려 허물이 적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글 짓는 행위가 내게 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억지로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때로 텅 빈 마음을 위로하며 스스로 한탄하기도 하지

만, 나는 여전히 文思가 열리고 닫히는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若夫應感之會，通塞之紀，來不可遏，去不可止。藏若景滅，行猶響起。方天機之駿利，夫何紛而不理。思風發於胸臆，言泉流於脣齒。紛葳蕤以馭選，唯毫素之所擬。方徽徽以溢目，音泠泠而盈耳。及其六情底滯，志往神留，兀若枯木，豁若涸流，攬營魂以探頤，頓精爽於自求。理翳翳而愈伏，思軋軋其若抽。是以或竭情耳多悔，或率意而寡尤。雖茲物之在我，非余力之所戮。故時撫空懷而自惋，吾未識夫開塞之所由。『文賦』 영감靈感에 관한 글이다.

처음에는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깊은 생각에 잠겨 두루 살펴봄으로써 정신은 천지사방으로 달리게 하고, 마음은 만길 깊은 곳을 노닐게 한다.(文思가 성숙하여)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정감은 몽롱한 상태에서 점차 선명해지고, 묘사하려는 외물의 표상이 분명해지며 서로 앞으로 나온다. 그리고 여러 책들에서 익힌 많은 말들이 물방울마냥 기울어져 흘러나오고, 六藝의 향기와 운택함이 씻겨 나온다. 그러면 위로 하늘의 연못에 떠올라 편안하게 흘러보기도 하고 아래로 지하의 샘에 잠겨 마음을 씻어보기도 한다.

이에 깊이 잠겨 있어 쉽게 떠오르지 않던 말들이 마치 노니는 고기가 낚시 바늘을 물고 깊은 연못에서 끌려나오는 것과 같이 떠오르고, 잇대어 끊이지 않는 화려한 표현이 마치 새가 주살을 맞아 층층 구름 낀 하늘에서 떨어지듯 내려온다. 역대의 빠뜨린 글을 모으고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진 시가를 채집한다. 그래서 이미 피어버린 아침 꽃을 버리고 아직 피지 않은 저녁 꽃을 피우니, 이렇게 함으로써 찰나에 고금을 살피고 일순간에 세상을 어루만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其始也，皆收視反聽，耽思傍訊，精驚八極，心游萬仞。其致也，情瞳矐而彌鮮，物昭皙而互進，傾群言之瀝液，漱六藝之芳潤，浮天淵以安流，濯下泉而潛浸。於是沈辭怫悅，若游魚銜鈎，而出重淵之深，浮藻聯翩，若翰鳥纓繳，而墮曾云之峻。收百世之闕文，采千載之遺韻，謝朝華於已披，啓夕秀於未振，觀古今於須臾，撫四海於一瞬。『文賦』 상상想像에 관한 글이다.

다. 작시의 즐거움과 어려움

* 글짓기(작시 포함)는 재미있는 일

문장을 짓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본래 聖賢이 이에 매진한 까닭으로 말미암는다. (문장을 짓는 일은) 텅 비어 없는 듯한 추상적인 것을 살펴 구체적인 것(文辭)을 탐구하는 것이며, 아무 소리도 없는 듯한 적막을 두드려 소리(文義)를 구하는

일이다. 한 자의 비단 속에 요원한 일이나 사물들을 담고, 한 치의 마음속에서 만물의 성대함을 토로해내는 일이다. 언어란 쓰면 쓸수록 할수록 더욱 광대해지고, 생각이란 짜면 짤수록 더욱 깊어진다. 그리하여 (문장창작은 마치)휘영청 늘어선 아름다운 꽃의 향내를 퍼트리고, 푸른가지를 무성하게 뻗게 하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그 찬란함은 바람이 휘몰아 질풍처럼 솟구쳐 문학의 숲속에서 짙은 구름이 피어오름과 같다. 伊滋事之可樂, 因聖賢之所欽. 課虛無以責有, 叩寂寞而求音. 函綿邈於尺素, 吐滂沛乎寸心. 言恢之而彌廣, 思按之而愈深. 播芳蕤之馥馥, 發青條之森森. 粲風飛而森豎, 鬱雲起乎翰林. 육기, 『문부』

* 예술의 길은 멀고도 험해라

추사(秋史)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초서(草書)에 능했던 명필(名筆) 이삼만(李三晩)은 일생에 먹을 갈아 구멍을 낸 벼루만도 여러 개였다고 한다. 낙숫물이 돌을 뚫는다더니, 벼루 여러 개가 구멍 나도록 그는 열심히 먹을 갈고 또 썼다. 사광(師曠)은 전국시대의 유명한 악사(樂師)였는데, 그는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된다하여 자신의 눈을 찢러 멀게 하였다.

종실(宗室) 학산수(鶴山守)는 명창(名唱)으로 이름났다. 산에 들어가 노래 공부를 할 때면, 한 곡을 부를 때마다 모래 한 알을 신에다 던져, 신이 모래로 가득 차야 돌아왔다. 한 번은 도적을 만나 죽게 되었는데, 바람결을 따라 노래를 불렀더니 도적 떼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鶴山守通國之善歌者也. 入山肄, 每一闕, 拾沙投展, 滿展乃歸. 嘗遇盜將殺之, 倚風而歌, 群盜莫不感激泣下者.(연암 박지원(朴趾源)의 「형언도필첩서(炯言挑筆帖序)」

주흥사(周興嗣)가 하루 저녁 사이에 「천자문(千字文)」을 만들어 올렸는데 수염과 머리털이 다 세어 버렸다. 돌아와서는 두 눈을 한꺼번에 실명하고, 죽을 때에는 마음이 단전(丹田)을 떠난 것 같았다 한다. 사령운(謝靈運)은 반일 동안에 시 백편을 짓고서 갑자기 이가 열두 개나 빠졌으며, 맹호연(孟浩然)은 눈썹이 모두 떨어졌다고도 한다. 위상(魏裳)은 『초사(楚史)』 76권을 저술하고는 심혈이 모두 닳아서 죽고 말았다. 『지봉유설(芝峯類說)』

* 시에 살고 시에 죽다

詩能遣悶時拈筆	시는 고민 걷어가 때로 붓을 잡았고
酒爲澆胸屢舉觥	술은 가슴 적셔줘 자주 잔을 들었지.

권필, 「희제(戲題)」

술 한 잔에 시 한 수를 지으며 타는 가슴 속의 번민을 토로했던 자신의 삶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뒷날 그는 광해군의 어지러운 정치를 풍자한 「궁유시(宮柳詩)」라는 시 한 수 때문에 왕의 노여움을 입어, 곤장을 맞고 귀양길에 올랐다가 장독(杖毒)을 추스리지 못해, 한창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야말로 시에 살고 시에 죽었던 시인이다.

* 시짓기의 괴로움

두목杜牧

欲識吟詩苦，秋霜若在心.시 읊조리는 괴로움 알고 싶은가 가슴 속에 가을 서리 서린 듯하네.

이백李白

爲問如何太瘦生 묻노니 어찌하여 그다지 말랐더뇨
只爲從前作詩苦 다만 이제껏 시 짓는 괴로움 때문일 테지.

소동파蘇東坡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그가 단숨에 이를 지은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이를 짓느라 버린 초고가 수레 석 대에 가득하였다 했으니 그간의 고초를 헤아려 무엇하랴. 『사문유취事文類聚』

송자경(宋子京)이란 이가 “나는 번번이 예전에 지은 문장을 볼 때마다 그것을 미워하여 반드시 불태워 버리고 싶어진다”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매요신梅堯臣이 기뻐하며 말하였다. “그대의 글이 진보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 또한 그러합니다.” 매요신(梅堯臣)은 앞서 여러 시인이 그랬듯 시(詩)에 고질(痼疾)이 들었던 시인으로, 그는 아예 「시벽(詩癖)」을 제목으로 시를 지은 것이 있다.

人間詩癖勝錢癖	인간의 시벽(詩癖)이 돈 욕심 보다 더하니
搜索肝脾過幾春	애간장 졸이며 시구 찾느라 몇 봄을 보냈던고.
囊橐無嫌貧似舊	주머니 비어 가난해도 개의하지 않았고
風騷有喜句多新	새로운 시구 많은 것만 기뻐했었다.
但將苦意摩層宙	다만 괴로이 층층의 하늘을 치달았을 뿐

莫計終窮涉暮津 곤궁 속에서 저승 갈 일은 따지지도 않았다.

시에 대한 고칠도 이쯤 되면 편작扁鵲이 열이라도 고칠 방도는 없게 되고 만다. 행주좌와行住坐臥에 시와 무관한 것이 없고 보니, 시를 짓는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 매 순간 순간을 살아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셈이다.

이규보李奎報 또한 매요신梅堯臣과 마찬가지로 「시벽詩癖」이란 제목의 긴 시를 남긴 바 있다.

年已涉縱心 位亦登台司 나이 이미 칠십을 지나 보냈고 지위 또한 삼공三公에 올라 보았네.

始可放雕篆 胡爲不能辭 이제 시 짓는 일 놓을 만도 하건만 어찌 능히 그만 두지 못하는가.

朝吟類蜻蛚 暮嘯如鳶鷂 아침엔 귀뚜라미처럼 읊조려 대고 저녁에도 올빼미인양 노래 부르네.

無奈有魔者 夙夜潛相隨 어찌할 수 없는 시마詩魔란 놈이 아침저녁 남몰래 따라 와서는, 一着不暫捨 使我至於斯 한 번 붙어 잠시도 놓아주지 않아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네. 日日剝心肝 汁出幾篇詩 날이면 날마다 심간心肝을 도려내 몇 편의 시를 쥐어 짜내지. 滋膏與脂液 不復留膚肌 내 몸의 기름기와 진액일랑은 다 빠져 살에는 남아 있질 않다오.

骨立苦吟髭 此狀良可嗤 뼈만 남아 괴롭게 읊조리나니 이 모습 정말로 우스웁구나. 亦無驚人語 足爲千載貽 그렇다고 놀랄만한 시를 지어서 천년 뒤에 남길만한 것도 없다네.

撫掌自大笑 笑罷復吟之 손바닥 부비며 홀로 크게 웃다가 웃음을 그치고는 다시 읊조려 본다.

生死必由是 此病醫難醫 살고 죽는 것 필시 시 때문이니 이 병은 의원도 고치기 어렵도다.

김득신金得臣(1754~1822년, 자는 자공子公, 호는 백곡柏谷) 또한 고음苦吟의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시에 몰두할 때면 멍하니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한 번은 점심상에 상처를 얻어 나오면서 일부러 초장을 놓지 않았다. 작시에 골몰한 그는 밥을 먹으면서도 연신 고개를 주억거리며 비 맞은 중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보다 못한 아내가 초장이 없는데 싱겁지도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응응! 모르겠어.” 했더란다. 『동시화(東詩話)』에 보인다.

그도 「시벽(詩癖)」시 한 수를 남기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爲人性癖最耽詩	이 내 성벽이 시 짓기를 좋아하여
詩到吟時下字疑	시 지어 읊을 제면 글자 놓기 망설이네.
終至不疑方快意	끝내 의심 없어야만 비로소 통쾌하니
一生辛苦有誰知	일생의 이 괴로움 알아줄 이 그 누구랴.

한 글자라도 바로 놓이지 않으면 마음에 쾌할 때까지 고치고 또 고쳤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평생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히니, 그 사이의 괴로움을 누가 알겠느냐는 녀두리다. 이어 그는 “아! 오직 아는 자라야 이러한 경계를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라. 지금 사람들은 얇은 배움으로 경솔하게 시를 지으면서도 남을 놀래킬 말만 지으려 든다. 또한 어리석지 않은가[噫! 唯知者, 可與話此境. 今人以淺學率爾成章, 便欲作驚人語. 不亦疎哉]?”라는 말을 덧붙였다. 『종남총지(終南叢志)』에 보인다.

* 고음苦吟 시인들 - 맹교孟郊와 가도賈島

蘇軾은 만당 시인 맹교孟郊(751~814년)와 가도賈島의 시작詩作을 평하여 “맹교는 차고 가도는 수척하다(郊寒島瘦)”라고 했다. 빈한한 생활, 환로宦路의 불순, 가인家人의 사망 등 맹교의 삶은 힘들고 곤란했다. 그러니 그의 시에서 호방豪放, 따스함(온난溫暖), 활력의 격조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소식은 ‘한寒’이라고 했다. 맹교는 고단하고 불행한 삶을 애써 시작에 붙였다. 고통과 해탈의 과정을 통해 그 나름의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 맹교의 시

「야감자견夜感自遣」

夜吟曉不休 苦吟鬼神愁 밤새 읊조려 새벽까지 쉬잖으니 괴로이 읊조림, 귀신조차 근심하리.
如何不自閑 心與身爲仇 어찌하여 제 스스로 한가치 못하는가 마음이 몸과는 원수 되었네.

「苦吟」

生應無暇日 死是不吟時 살아선 한가한 날 결코 없으리 죽어야만 시를 읊조리지 않겠네.

苦寒吟

天寒色青蒼，北風叫枯桑 추운 날 하늘까지 푸른 명이 들었는데, 겨울바람 요란하게
뽕나무에서 울어대네

厚冰無裂文，短日有冷光 두꺼운 얼음은 갈라진 금 하나 없고, 낮이 짧아 햇살도
힘을 못쓰네

敲石不得火，壯陰正奪陽 부싯돌 부딪쳐봐도 불은 붙지 않고, 한기가 남은 온기 다
빼앗아가네

調苦竟何言，凍吟成此章 이러한 고충을 어찌 다 말로 할까, 떨면서 웅얼거리다 이
시를 짓네

青蒼 : 짙은 푸른빛. 보통 하늘, 나무, 산, 강 등의 색깔.

枯桑 : 오래된 뽕나무. 채옹蔡邕은 「飲馬長城窟行」에서 ‘枯桑知天風，海水知天寒(뽕나무는 하늘에 부는 바람을 알고 / 바닷물은 날씨가 추워진 것을 아네)’이라고 읊었다.

短日 : 겨울철에 낮이 짧은 것을 가리킨다. 소식은「九月二十日微雪懷子由」에서 ‘短日送寒砧杵急，冷官無事屋廬深(겨울날 추위 보낼 다듬이소리 다급한데 / 할일 없는 벼슬아치 사는 집만 깊네)’이라고 읊었다.

冷光(냉광) : 따사롭지 않은 햇빛. 달빛을 가리키기도 한다.

敲石(고석) : 부싯돌을 부딪쳐 불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

遊子吟

慈母手中線，遊子身上衣. 어머니 손안의 바느질감은 집 떠나는 자식이 입을 것이라,
臨行密密縫，意恐遲遲歸. 길 나섬에 촘촘히 꿰매는 뜻은 돌아옴이 늦어질까 걱정해서라네
難將寸草心，報得三春暉. 한 치 되는 풀의 마음으로 봄 석 달 별에 갇을 길 어려워라

孟郊(자는 東野)의 詩는 世態炎涼과 民間 苦難을 그리고 있다. 韓愈보다 17년 年長이나, 두 사람은 忘形之交(당연히 있어야 할 예의나 태도를 고집하지 않고 서로 편한대로 交遊함)를 했다. 한유시의 奇異하고 어려운 점은 맹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韓愈는 “내가 하늘의 구름이라고 하면, 孟郊는 그 속을 헤집고 다니는 龍이다”고 했다.

가도賈島(779-843년)의 시

賈島는 처음에는 중이었으나, 韓愈의 권고로 還俗, 여러 번 과거에 응했으나 실패하고 미관 말직의 어려운 생을 살았다. 보통 사람들은 농치기 쉬운 소재를 詩題로 골라 철학적인 사색을 하도록 하는 것이 賈島 시의 한 특색이다.

「심은자불우尋隱者不遇」

松下問童子 소나무 아래에서 동자에게 물으니
言師採藥去 스승은 약초 캐러 가셨다 하네
只在此山中 아마도 이 산중에 계실 터인 데
雲深不知處 구름 깊어 계신 곳 알 수 없대요.

賈島가 3년을 沈吟한 끝에 「무가 스님을 보내며(送無可上人)」의 경련頸聯에서 이렇게 썼다.

獨行潭底影 數息樹邊身. 홀로 걸어가는 연못 아래 그림자 자주 쉬어가는 나무 가의 몸.

득의구得意句를 얻고는 감격한 나머지 그 아래에다가 다시 시 한수를 써서 득구(得句)까지의 사연을 주注내어 적었다.

兩句三年得, 一吟淚雙流. 두 구절을 삼 년 만에 얻고서 한 번 읊조리매 눈물이 주룩 흐르네.

知音如不賞, 歸臥故山秋. 벗들이 좋다고 찬양하지 않으면 고향 산 가을에 돌아가 눕겠노라.

* 가도賈島의 퇴고推敲

鳥宿池邊樹 僧推月下門 새는 연못 가 나무에서 잠들고 스님은 달빛 아래 문을 미누나.

그리고는 ‘퇴(推)’로 할까 ‘고(敲)’로 할까 결정치 못하고, 손짓발짓하며 가다가 그만 경조윤(京兆尹) 한유(韓愈)의 수레를 가로 막고 말았다. 좌우의 하인들이 가도(賈島)를 한유(韓愈)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힐문하니, 가도(賈島)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 수레를 멈추고 한참을 서 있던 한유(韓愈)는 “고자(敲字)가 낫겠네[作敲字佳矣]”하고는, 함께 돌아가 시도(詩道)를 논하며 포의(布衣)의 사감을 맺었다. 그리고는 아예 중노릇을 그만 두고 과거에 응시케 하였다.

두 글자가 다 좋지만, ‘퇴(推)’라 하면 문을 그저 삐걱 하고 밀며 들어가는 것이니 이응(李凝)과 미리 약속이 되어 있음이요, ‘고(敲)’라 하면 똑똑 노크하는 것이니 서로 약속이 없는 불시의 방문이 된다. 못 가에 새도 잠든 밤의 적막을 타고 들려오는 소리는 과연 삐걱하고 문을 미는 소리보다는, 청명하게 울려 퍼지는 똑똑 소리가 더 어울림직하다. 「상소잡기(湘素雜記)」에 전한다.

청 왕부지는 『강재시화薑齋詩話』에서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비꼬았다.

달빛 아래 스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가도의 ‘승고월하문(僧敲月下門)’은 단지 망상으로 억탁한 것일 뿐이니, 마치 다른 사람의 꿈을 말하는 격이다. 설령 형용이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어찌 터럭만큼이라도 마음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 왜 그런고 하니, 그 ‘퇴(推)’와 ‘고(敲)’ 두 글자를 깊이 읊조리는 것은 바로 그가 생각으로 짓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경과 만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면 ‘퇴(推)’든지 ‘고(敲)’든지 반드시 어느 하나일 뿐일 것이다. 경을 인하고 정에 따른다면 자연스레 영묘하게 되니 어찌 수고로이 따져 의논하겠는가? “장하(長河)로 떨어지는 해가 둥글다[長河落日圓]”는 애초 정해진 경이 없었고, “물 건너 나무꾼에게 물어본다네[隔水問樵夫]”는 처음부터 생각하여 얻은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곧 선가(禪家)에서 이른바 ‘현량現量’이라는 것이다.

僧敲月下門，祇是妄想揣摩，如說他人夢．縱令形容酷似，何嘗毫髮關心？知然者，以其沈吟推敲二字，就他作想也．若即景會心，則或推或敲，必居其一．因景因情，自然靈妙，何勞擬議哉？長河落日圓，初無定景；隔水問樵夫，初非想得．則禪家所謂現量也．

라. 한시의 효용론

한시는 어떤 효용이 있는가? 과연 문학이 실질적인 효용이 있는 것일까? 공자는 당연히 있다고 말한다.

* 공자의 시관詩觀

공자가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왜 시를 공부하지 않느냐. 시를 배우면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세상의 풍속을 잘 볼 수 있으며,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사리에 어긋나지 않게 원망할 수 있다. 가까이 있는 아버지를 섬길 수 있고, 멀리 있는 임금을 섬길 수 있게 하며,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子曰小子，何莫學夫詩．詩可以興，可以觀，可以群，可以怨．邇之事父，遠之事君，多識於鳥獸草木之名．『논어·양화陽貨』

이른바 공자의 시관의 핵심인 흥관군원興觀群怨이 여기에서 나왔다. 이외에도 공자의 시관은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시에서 감동하고 예에서 서며 악에서 이룬다(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태백泰伯」

“시 3백편의 내용을 한마디 말로 표현한다면, 생각에 샅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邪).” 「위정爲政」

“시 300편을 외우더라도 정치를 맡겼을 때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사방에 사신으로 나가 혼자 일을 대처하지 못한다면 비록 시를 많이 외운들 어디에 쓰겠느냐?(誦『詩』三百, 授之以政, 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亦奚以爲)” 「자로子路」

“공자가 말씀하셨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가르침을 알 수 있다. 그 사람됨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독실하고 후덕함한 것은 시의 가르침이 있음이다. 서로 통하고 먼 것을 알면 서를 가르친 것이다(孔子曰, 入其國, 其教可知也. 其爲人也, 溫柔敦厚, 詩教也. 疏通知遠, 書教也).” 『예기禮記』 「경해經解」

마지막 『예기』 「경해經解」에 나오는 ‘온유돈후’를 일러 시교詩教라고 한다. 왜 시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 백성들이 온화하고 후덕하여 말을 잘 듣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물론 위정자의 입장에서 한 말이다.

* 『毛詩大序』는 시의 효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런 까닭에 得失을 올바르게 하고 天地를 움직이며, 귀신을 감화시키는데 詩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여 선왕께서 이로써 夫婦의 관계를 다스리시고 부모에게 孝道하고 어른에게 공경하는 것을 이루셨으며 인륜을 도탑게 하시고 교화를 미쁘게 하셨으며 풍속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셨다.故正得失, 動天地, 感鬼神, 莫近於詩. 先王以是經夫婦, 成孝敬, 厚人倫, 美教化, 移風俗⁶⁾

지금까지 유가적인, 유학적인 시론이다. 시는 인간만이 아니라 귀신도 감화시킨다. 이후의 유자들은 정치가나 도학자, 그들 역시 문인들이었는데, 모두 시의 효용성에 한 표를 던졌다. 심지어 조비曹丕는 『전론·논문』에서 “문장은 국가 경영의 큰 업무이고, 영원히 썩지 않는 성대한 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물론 그가 말한

6) 孔穎達疏, 『毛詩正義』, 北京, 中華書局, 十三經注疏本.

‘문’에는 당연히 시가 포함된다.

조선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詞章은 국가의 중대한 일입니다. 예부터 우리나라를 문헌의 나라라고 일컬었던 것은 문장의 빛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음풍영월하는 것을 모두 비난하여 이단으로 지목하니, 이 때문에 문장이 변변치 못하고 경술 또한 엉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중국 사신으로 문사가 온다면 누가 그 책임을 맡아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詞章國家重事, 古稱吾國文獻之邦者, 以其有文章之華也. 近間吟風詠月者, 皆非之, 指爲異端. 以此文章蕭索, 經術亦爲荒莽. 若天使文士出來, 則誰任其責而和答耶.” (『중종실록』38, 15년 1월 11일 庚子)

* 도학자들의 시적 효용성 발언

도학자들은 당연히 공자의 시교 논리를 그대로 계승했다.

송宋 주돈이周敦頤(1017~1073년)는 『통서通書』 「문사文辭」에서 문예와 도(이념)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문예는 도(이념)를 싣는 바탕이다. 바퀴와 끌채를 예쁘게 꾸미더라도 사람이 쓰지(타지) 않으면 쓸데없이 장식한 것에 불과하다. 하물며 텅 빈 수레는 무얼 더 말하겠는가? 문예의 수사는 기술이고 도덕은 실질이다. 실질을 두텁게 하고 문예가 그것을 표현할 경우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다음 세대에 전해지게 된다. 현자는 배워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가르침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이 문예에 담기지 않으면 퍼져 나가더라도 멀리까지 가지 못한다.”

文所以載道也, 輪轅飾而人弗庸, 徒飾也. 況虛車乎? 文辭藝也, 道德實也. 篤其實, 而藝者書之, 美則愛, 愛則傳焉, 賢者得以學而至之 是為教. 故曰 “言之無文 行之不遠.”

“시가 비록 학자의 능사는 아니지만 또한 성정을 읊조려 맑고 화평함을 펼쳐내니 가슴 속 찌꺼기(응어리)를 씻어내는 것이니 본성을 보존하고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어찌 자질구레하게 자구나 수식하고 감정을 변화시키며 마음을 방탕하게 만드는 데 쓰겠느냐? 이 책을 보는 사람은 여기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詩雖非學者能事, 亦所以吟詠性情, 宣暢清和, 以滌胸中之滓穢, 則亦存省之一助. 豈爲雕繪繡藻, 移情蕩心而設哉. 覽此集者, 其念在茲.” 이이, 『율곡집』, 「精言妙選序」

문학은 도를 깨우쳐 성정의 올바름을 알고 그것을 표현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

다는 뜻이다. 이이의 문학 효용성은 견고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가의 효용론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이들도 적지 않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蕭綱이다. 南朝문학의 부염한 형식주의 풍조를 타고 색정적인 宮體문학을 창작한 바 있는 인물로 중국 남북조 시대 양梁나라 무제의 셋째 아들이다. 그의 형은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소명문선昭明文選』의 저자인 소명태자昭明太子 소통蕭統이다. 그는 「당양공 대심에서 훈계하는 글(誠當陽公大心書)」(아들인 소대심蕭大心에게 주는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다.

立身の道는 문장의 경우와 다르다. 立身에는 먼저 모름지기 근엄하고 신중해야 하지만, 문장은 방탕해야 한다. 立身之道, 與文章異. 立身先須謹重, 文章且須放蕩.⁷⁾

흥미롭다. 종영鍾嶸은 조금 다른 점에서 접근했다. 『詩品·序』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궁핍한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고, 울적한 마음으로悶혀 사는 사람에게 근심을 없애주는데 詩보다 나은 것이 없다. 使窮賤易安, 幽居靡悶, 莫尙於詩矣.

궁핍한 사람이나 울적한 마음을 지닌 창작주체의 원망이나 서러움을 풀어주는 것이 곧 시가 창작의 효용이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 역시 시의 효용성이다.

마. 시를 논함

「시를 논함論詩」

作詩尤所難, 語意得雙美. 시 짓기 더욱 어려운 바는 말과 뜻을 아울러 곱게 해야 하기 때문.

含蓄意苟深, 咀嚼味愈粹. 함축된 뜻이 진실로 깊으면 씹을수록 그 맛이 그윽하고 맑다네.

意立語不圓, 澁莫行其意. 뜻 얻었지만 표현 원만치 못하면 걸끄러워 뜻 제대로 펼 수 없겠지.

就中所可後, 雕刻華艷耳. 가장 나중에 살펴도 되는 것은 조각하여 화려하게 함일 뿐이나

華艷豈必排, 頗亦費精思. 화려하다 어찌 배척만 하리, 그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7) 蕭綱, 「誠當陽公大心書」, (文淵閣四庫全書), 卷25 歐陽詢 撰, 『藝文類聚』에 收錄됨)

될 일.

攄華遺其實，所以失詩旨. 하지만 꽃만 쥐고 열매를 버린다면 시의 뜻을 잃게 되리라.
邇來作者輩，不思風雅義. 근래에 작자들은 시 바탕이 되는 옛 글 생각지 않네.
外飾假丹青，求中一時嗜. 울긋불긋 거짓으로 겉만 치장하며 한때 유행만 따르려 하네.
意本得於天，難可率爾致. 뜻은 본래 자연히 얻어지는 것, 일부러 불러오기란 쉽지 않은 일.

自商得之難，因之事綺靡. 뜻 얻기 어려움을 스스로 알고 현란한 수사에만 쏠리는구나.
以此眩諸人，欲掩意所置. 화려한 수사로 사람들 현혹시켜 뜻 보잘 것 없음을 감추려드네.

此俗寢已成，斯文垂墮地. 이러한 풍조가 점차로 관습되어 좋은 글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네.

李杜不復生，誰與辨真僞. 이백, 두보 같은 이 다시 나오지 않으니 누구와 참된 글 가려내리.

我欲築頽基，無人助一簣. 시의 무너진 기틀 다시 쌓고 싶지만 흙 한 삼태기 도와줄 이 없네.

誦詩三百篇，何處補諷刺. 시 300편을 다 외우면서 풍자로나마 바로잡을 곳 어디 있겠는가?

自行亦云可，孤唱人必戲. 스스로 행하면 그뿐이나 외롭게 홀로 외쳐대면 사람들 비웃으리.

제4강

■ 한시의 작가를 찾아서

4-1. 작가론: 이두李杜와 왕유王維, 그리고 동파東坡

가. 이백

나. 두보

다. 왕유

라. 소식

4-2. 고려, 조선의 시인과 명시

4-1. 작가론: 이두李杜와 왕유王維, 그리고 동파東坡

가. 천재 ‘시선(詩仙)’ 이백

개원, 천보 연간은 당대 시가 발전이 극성기에 오른 때였다. 당시 시단에서 사방에 환하게 빛을 발하던 두 개의 별이 있었으니 ‘시선(詩仙)’ 이백과 ‘시성(詩聖)’ 두보가 바로 그들이다.

현종 천보 원년(742년) 어느 날 일찍이 「버드나무를 노래함(詠柳)」, 「귀향하여 우연히 씀(回鄉偶書)」⁸⁾ 등의 시작으로 명성을 얻은 하지장(賀知章: 659~744)이 자신의 집에서 기개와 도량이 비범하고 신체가 표일(飄逸)한 어떤 손님을 만나고 있었다. 당시 하지장은 이미 80여 세의 고령으로 조정에서 ‘비서감(祕書監: 조정의 전장과 저작을 관창하고 사서 편찬을 맡은 관직)’을 맡고 있었는데, 덕망이 높아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객(客)이 바친 시 작품을 받아들고 음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둡던 노안이 환히 밝아지는 듯하더니 얼굴에 희색이 만연하여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객을 붙잡고 연신 찬탄을 하는 것이었다.

“기이하도다. 참으로 기이한 시구로다. 이것이 하늘이 낸 것이 아니라면 어찌 범상한 이가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자네는 실로 하늘에서 내려온 적선(謫仙)이로세!”

‘적(謫)’은 유배의 뜻이니, ‘적선’이라고 하면 천상에서 별을 받아 인간세에 내려

8) 「유영」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碧玉妝成一樹高，萬條垂下綠絲絛，不知細葉誰裁出？二月春風似剪刀。” 「회향우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翫兒 고향 떠나 늙어서 돌아오니, 고향 사투리 그대로나 귀밑머리 허엿다. 아이들 날 보고도 누군지 몰라, 웃으며 어디에서 오신 손님이나고 묻네(少小離家老大回，鄉音不改鬢毛衰。兒童相見不相識，笑問客從何處來)。”

온 신선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장이 이처럼 신선처럼 여긴 방문객은 바로 당대 위대한 시인 이백이었다. 그의 시편은 청신하고 준일(俊逸)하며, 과할 정도로 호방할뿐더러 질풍처럼 치달아 거리낌이 없었으며, 특히 평범한 세속을 크게 벗어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하지장이 그를 칭찬한 말을 본따 그를 ‘시선(詩仙)’이라 일컫는다.

이백은 스스로 말했다시피 본향이 농서(隴西)이며, 한대에 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공훈이 세상을 덮을 만큼 탁월했던 비장군(飛將軍) 이광(李廣)의 후손이다. 그의 선조는 수나라 말년에 아득 먼 서역(西域)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살았다. 이백은 무척천이 찬위(篡位)하여 황제로 등극한 그 해(701년) 서역의 쇠엽(碎葉: 지금의 키르기스)에서 태어났다. 그가 다섯 살 때 온 가족이 사천 팽명현(彭明縣: 지금의 사천성 강유현江油縣)으로 이주하였다. 그의 부친은 상업으로 적지 않은 부를 쌓았기 때문에 이백은 어려서부터 풍요로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었다. 청소년 시절 그는 시서(詩書)를 애독하였고, 검술을 좋아하였으며, 재물보다는 의협을 숭상하고 의리와 정감을 중시했다.

한 번은 외출하여 재미있게 놀다가 우연히 어떤 노파가 쇠절구를 돌에 갈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때 그는 “공부를 하려면 쇠절구를 갈아 바늘을 만들 정도의 공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후 그는 열심히 학문을 닦고 무예를 연마하였다. 그는 총명하여 제자백가의 전적을 한번 보면 암송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천부적인 재질을 지니고 힘써 학문을 닦았으니 재화가 출중한 인물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터이다.

이백은 어려서부터 원대한 포부를 지니고 품성이 고결하였으며, 도량이 넓고 탈속적인 정신세계를 소유한 인물이었다. 당시 독서인들은 그저 공명을 얻기 위해 진사 시험을 보는데 열중하였는데, 이백은 이처럼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과거시험을 보아 관리가 되고 순리대로 진급하는 형식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이는 “범속한 유자(儒者)나 속인(俗人)”들이 하는 짓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한 번도 과거에 응시한 적이 없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한 걸음에 고위직에 올라 국가의 동량(棟梁)이 되든지 아니면 차라리 한 평생 묵묵하게 일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다. 언젠가 어떤 이가 그에게 작은 관직에 그를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일언에 거절하고 말았다. 그는 항상 자신을 동진(東晉) 시대에 치국의 방도를 지녔으며, 비수(淝水)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저명한 정치가 사안(謝安)에 비기곤 했다. 그래서 그 역시 사안처럼 언젠가 국가를 위해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처럼 원대한 포부를 지니고 있었던 그는 25세에 천하 주유(周遊)를 시작하였

다. 그는 먼저 삼협(三峽)을 지나 천천히 양한(지금의 호북성)을 거쳐 남쪽으로 동정(지금의 호남성), 동쪽으로 금릉(지금의 강소성)을 유람하였으며, 다시 태원(지금의 산서성)을 거쳐 제로(지금의 산둥성) 땅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근처 임성(지금의 산둥성 제녕)에 거주하였다. 이백의 천하 주유는 장장 17년이란 세월이 걸렸는데, 장강과 황하의 중, 하류에 있는 명성(名城)과 고도(古都)는 물론이고 뛰어난 명승지를 두루 지나면서 수많은 학사, 문인들과 어울렸다. 그는 우정과 의기를 중시하고 특히 술을 좋아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자신을 알아주는 벗을 만나면 흥금을 터놓고 술을 마시고 취흥이 도도하여 아름답고 교묘한 시어를 읊어대니 마치 샘물이 솟아오르는 듯하였다. 그 가운데 한 수의 시를 보도록 하자.

故人西辭黃鶴樓 옛 친구는 서쪽에서 황학루를 떠나,
煙花三月下揚州 꽃 피는 삼월 양주로 내려간다.
孤帆遠影碧山盡 외로운 돛대 멀리 아스라하여 푸른 공중으로 사라지는데,
唯見長江天際流 장강은 일망무제 하늘가로 흐르누나

이는 「황학루에서 광릉으로 떠나는 맹호연을 보내며(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라는 제목의 송별시로 지금의 강소성 양주인 광릉으로 떠나는 맹호연을 떠나보내며 쓴 것이다. 감정이 진지하고 의경이 광활하고 또한 그윽하다. 특히 “외로운 돛대 멀리 아스라하여 푸른 공중으로 사라지는데, 장강은 일망무제 하늘가로 흐르누나”라는 후반구는 시인이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보며 떠나는 친구를 보낼 때의 풍경이 절로 보이는 듯하여 다함없는 깊은 정이 광대무변의 화폭에 펼쳐진 듯하다.

외로운 돛대 하염없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쳐다보는 장면은 차마 헤어지기 어려워 못이기는 듯한 이백의 절절한 정감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끝없이 이어진 강물은 출렁출렁 하늘가 저편 동쪽으로 흐른다고 하였는데, 이는 혹 실의에 빠져 초췌할 데로 초췌해진 이백의 마음속 기복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실로 이처럼 정경(情景)이 교유하여 완미한 경계를 이룬 시가는 천고에 얻기 힘들 듯하다.

이백은 42세가 되던 해 하지장의 도움으로 금란전(金鸞殿)에서 현종을 알현할 기회를 얻게 된다. 현종이 그를 만나 이야기해보니, 이백이란 인물은 과연 평범한 이가 아니어서 토로하는 말마다 보옥이 아닌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를 새삼 다시 보게 되어 즉석에서 주연을 베풀었다. 현종은 그가 받은 탕이 너무 뜨거운 것을 보고 친히 수저를 들어 휘휘 저어 식혀줄 정도였다. 여기서 바로 ‘어수조갱(御手調羹)’이란 말이 나오게 되니 당시 현종이 그를 만나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을 터이다. 이후 현종은 수차례 이백을 궁궐로 불러들여 그에게 즉석에서 시

를 짓도록 하곤 했는데, 그 때마다 이백은 전혀 주저함이 없이 붓을 들고 용이 날아오르고 봉이 춤을 추듯 일필휘지로 시편을 써냈다.

그가 쓴 시들은 하나같이 감정이 강렬하고 기백이 웅혼하였으며, 아름다운 시어에 함축미가 뛰어났다. 하여 현종이 보고 탄복하길 그치지 않았다. 마침내 그에게 한림공봉(翰林供奉)이라는 직위를 내려 궁정에서 전문적으로 시부를 짓게 되었다.

마침내 궁정에 들어가게 된 이백은 처음부터 웅대한 포부를 지니고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펼칠 준비를 하였다. 이제 동진의 정치가인 사안과 마찬가지로 공을 세워 나라에 보답할 수 있는 때가 도래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미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현종이 더 이상 웅대한 치국의 이상을 도모하는 그런 황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황제가 그를 부른 것 역시 그저 황제 자신을 위해 가공송덕(歌功頌德)하면서 아취를 돋구어줄 어용문인으로 삼기 위함이지 치국평천하의 정치적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극히 실망감에 빠진 그는 항시 주변의 문인 학사들과 함께 어울려 성안팎에서 음주와 유람을 일삼으며 미친 듯이 세상을 하찮게 여기며 가슴 가득한 울분을 토로하였다.

당시 이백은 술을 빌어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당 현종의 면전에서 고의로 권세가들을 희롱하는가하면 시를 짓는다고 하면서 양귀비에게 목을 갈게 하고, 태감 고력사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기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화는 오직 이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그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두보는 이를 소재로 시를 지어 이백의 경성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하기도 했다. “이백은 술 한 말에 시 백 편이라, 장안 저잣거리 술집에서 잠들어, 천자가 부르는데도 배에 오르지 않고 자칭 신은 술 속의 신선이라 하였네(李白斗酒詩百篇, 長安市上酒家眠. 天子呼來不上船, 自稱臣是酒中仙).”

이처럼 전혀 거리낌 없이 오만방자하게 권세거나 귀인들을 멸시했던 그는 결국 그들의 비난과 참언에 직면했으며, 현종 역시 그에 대해 점차 냉담해지기 시작했다. 이백 또한 장안이 더 이상 자신이 머무를 곳이 아님을 알고 현종에게 귀향을 허락해줄 것을 청했다. 결국 경성에 발을 들여놓은 지 채 2년이 되기도 전에 이백은 또 다시 천하를 주유하며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그는 10여 년의 세월을 유랑하게 되는데,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북으로 하북과 산서, 서로 섬서와 하남, 남으로 안휘와 강서 지방으로 상당히 광범위했다. 이렇듯 당시 중국의 절반이 넘는 지역을 돌아다니는 길에 그는 술도 마시고 시도 읊었으며 술한 벗들과 더불어 우정과 시정(詩情)을 나누었다.

자신의 정치적 포부가 좌절되고 더욱 넓은 지역에서 사회경험을 쌓게 되자 이백

의 시가 창작 또한 크게 변화하게 된다. 당시에도 그의 작품은 산수 유람하면서 호걸다운 감성을 표현하고 자신의 회재불우(懷才不遇)를 토로한 것이 적지 않았으나, 다른 한편으로 당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비판하는 내용의 작품도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꿈에 천모산에서 노닐다가 시를 읊으며 이별하다(夢游天姥吟留別)」⁹⁾는 풍부한 상상과 지극히 호방한 풍격의 작품인데,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찌 눈썹 낮추고 허리 굽혀 권세를 따르겠느냐? (그 생각만 하면) 불쾌하여 얼굴에 웃음 사라지도다(安能摧眉折腰事權貴，使我不得開心顏).” 당시 권문세가나 귀인들에 대한 거리낌 없는 멸시와 부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장진주(將進酒)」에서도 그는 자신의 분방하고 장쾌한 기세로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그대 보지 못했던가? 황하의 물 세차게 바다로 흘러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그대 보지 못했는가? 높다란 저택 거울 속에 비친 백발의 설움을.
 아침에 푸른 실과 같던 것이 저녁나절이면 어느새 흰 눈처럼 되고 말았나니.
 그대 득의하였거든 마음껏 즐기세나! 부질없이 황금 술잔 꺼내 달 앞에 내놓지 말고.
 하늘이 나를 나았으니 반드시 쓸모가 있겠지.
 천금이야 다 쓰면 또 생길 터이니, 양 삶고 소 잡아 즐겨보세나.
 모름지기 한 번 마시면 삼백 잔은 거뜬해야 하지 않겠나.
 君不見黃河之水天上来，奔流到海不復回。
 君不見高堂明鏡悲白发，朝如青絲暮成雪。
 人生得意須盡歡，莫使金樽空對月。
 天生我材必有用，千金散盡還復來。
 烹羊宰牛且為樂，會須一飲三百杯。

이렇듯 현실에 대한 울분과 자유분방한 기질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실로 통쾌하고 호방한 작품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천보 14년(755년) ‘안사(安史)의 난’¹⁰⁾이 일어났다. 당시 이백은 여산(廬山) 일대에서 은거하고 있었다. 그는 반란을 평정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영왕(永王) 이린(李璘)의 진영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당 숙종 이형(李亨)은 이린의 세력이 확대되어 자신의 황권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린에게 ‘반역’의 죄를 물어 토벌하였다.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뿐이었던 이백은 줄지에

9) 또 다른 제목은 「동쪽 노 땅의 여러분들과 이별하며(別東魯諸公)」이다.

10) 안사의 난: 당(唐)나라 중기 755년부터 763년까지 지속된 안록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의 반란.

‘역모’에 가담한 죄를 뒤집어쓰고 말았다. 감옥에 갇힌 그는 다행히 안사의 난에 큰 공을 세운 명장 곽자의(郭子儀)의 도움으로 사형을 면하고 야랑(夜郎: 귀주성 준의遵義 부근)으로 유형을 떠나는 길에 사면을 받아 겨우 자유를 얻었다. 사면의 어명을 받았을 당시 이미 60세에 가까웠던 이백은 심히 기뻐하며 즉시 배에 올라 타 강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의 마지막 만유(漫遊)를 시작하게 된다. 인구에 회자 되는 「아침에 백제성을 나서며(早發白帝城)」는 바로 당시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이른 아침 붉은 구름 사이 백제성을 떠나
천리 길 강릉을 하루 만에 돌아왔다.
양안의 원숭이 울음소리 그치기 전에
작은 배는 이미 첩첩 에워싼 산을 지나네.
朝辭白帝彩雲間，千里江陵一日還。
兩岸猿聲啼不盡，輕舟已過萬重山。

쏟아진 살갗이 날아오르는 기세, 상쾌하고 호방한 감정. 험난하기 이를 데 없던 앞날이 돌연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었음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으니, 그 절묘한 묘사는 실로 천고의 명시라는 이름에 걸맞다.

이백의 마지막 만유는 시간적으로 3년 조금 넘게 진행되었는데, 지역은 주로 안휘 남쪽이었다. 당 대종(代宗) 보응(寶應) 원년(762년), 병들고 빈곤에 지친 이백은 끝내 안휘 당도현(當塗縣)에서 죽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백이 술에 만취하여 장강 우저기(牛渚磯)에서 배를 띄워놓고 달맞이를 하었는데, 강물에 비친 교교한 달빛을 바라보다 문득 달을 건지려다 그만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달을 건지려다 죽었다”는 전설은 설사 사실이 아닐지라도 평생 고결한 이상을 추구했던 시인의 성격과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이백의 시가 창작에 가장 큰 특징은 상상이 기이하고 독특하며, 격조가 호방하다는 것이다. 그는 높고, 깊으며 또한 아득 먼 곳에서 착안하여 웅장한 아름다움의 경계를 창조하는데 능했다. 또한 과장과 비유, 그리고 의인법을 활용하여 경물을 더욱 생동감 넘치고 기이하게 묘사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여산 폭포를 묘사하면서, “나는 듯 흘러 곧장 삼천 척을 내리꽂으니 마치 은하가 구천에서 떨어지는 듯하다(飛流直下三千尺，疑是銀河落九天)”¹¹⁾라고 하였으며, 삭풍이 이는 추운 날씨를 형용하면서 “연산의 눈꽃은 대자리처럼 커서 조각조각 바람에 날려 현원대에

11) 제목은 「망여산폭포(望廬山瀑布)」, 전체 시는 다음과 같다. “햇살 향로봉에 비추어 안개 어리고, 멀리 폭포는 긴 강을 매단 듯, 나는 듯 흘러 곧장 삼천 척을 내리꽂으니 마치 은하가 구천에서 떨어지는 듯하다(日照香爐生紫煙，遙看瀑布掛長川，飛流直下三千尺，疑是銀河落九天).”

떨어진다(燕山雪花大如席, 片片吹落軒轅臺)”¹²⁾고 하였다. 또한 마음속 울분을 표현하면서 “흰 머리 삼천 길, 근심으로 이리 길어졌는가(白髮三千丈, 緣愁似箇長)”¹³⁾라고 토로하고 있기도 하다. 평범한 경물을 이처럼 놀라운 상상력과 과장수법으로 묘사하고 있으니 실로 감탄이 절로 나올 따름이다. 이는 이백의 시편 곳곳에서 두루 볼 수 있으니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시선(詩仙)이 아니겠는가!

“명성은 우주에 두루 날렸으나 지금 현실 속에선 여위어 갈 뿐이로다(名揚宇宙而枯槁當年)” 이는 이백 자신이 어느 문장에서 스스로를 평가한 것인데 실로 딱 맞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백은 평생 뜻을 얻지 못하였으나 사후에는 오히려 수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았다. 온 세상을 비추며 하늘에 매달린 해와 달처럼 그는 모든 이들이 우리러보는 위대한 시인이 되었다.

나. 천고 ‘시성詩聖’ 두보

이백은 천보 3년(744년) 장안에서 말을 타고 동관(潼關)을 벗어나 동도(東都)인 낙양에 도착하였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당대 또 한 명의 위대한 시인 두보를 만나게 된다.

두보(杜甫), 자는 자미(子美)이며 별호는 소릉(少陵)이다. 그의 원적은 양양(襄陽: 지금의 호북성 양양)이며, 서진 시대 『좌전(左傳)』에 정통한 학자로 관직이 정남장군(征南將軍)에 이른 두예(杜預)가 바로 그의 먼 선조이다. 그의 조부인 두심언(杜審言)은 초당 연간에 자신의 뛰어난 재능으로 조야에 명성을 두루 지녔던 대시인이었다. 두보는 당 예종(睿宗) 태극 원년(712년)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했던 그는 7살 때 이미 「봉황시(鳳凰詩)」를 지어 조부인 두심언조차 크게 놀랐다고 한다. 그의 나이 14, 5세 때 이미 당시 문인학사들과 어울려 시를 지어 화답하면서 낙양 시인들 모임에 빠질 수 없는 어린 스타로 자리하였다.

현종 개원 19년(731년) 이제 갓 스무 살이 된 두보는 생기발랄하고 패기에 찬 젊은이로 한창 젊음을 구가할 때가 되었는데, 가족과 이별하고 원유(遠遊)를 떠나기로 작심하였다. 그는 먼저 오월(吳越: 지금의 강소성과 절강성)로 떠나 강남 어미지향(魚米之鄉: 평야와 호수가 많은 강남의 별칭으로 쌀과 물고기가 많아 풍요로운 곳의 뜻이다)의 호수와 연못을 실컷 구경하고, 다시 발길을 돌려 옛 제(齊)나라와 조(趙)나라(지금의 산둥성과 하북성 일대)를 떠돌아 다녔다. 그곳에서 그는

12) 이백의 명시 「북풍행(北風行)」의 전반부 두 구이다. 노신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연산(연산: 지금의 북경)의 겨울이 혹독하게 추움을 과장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또한 당시 인민들의 고통이 극심함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역주

13) 「추포가(秋浦歌)」 17수 가운데 하나로, 전체 시는 다음과 같다. “흰 머리 삼천 길, 근심으로 이리 길어졌는가. 알 수 없네 맑은 거울 속, 어디에서 가을 서리 얻었는지(白髮三千丈, 緣愁似箇長. 不知明鏡裏, 何處得秋霜).”

광대무변한 화북 평원과 아득 천리로 이어진 태행(太行)산맥을 두루 살폈다. 옛 제로(齊魯) 땅을 유람할 당시 높이 솟아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태산에 오른 그는 문득 호방한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 때 일필휘지하여 쓴 것이 바로 「태산을 바라보며(망악)」라는 시이니, 조국 산하에 대한 절절한 심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 시는 마지막에 “반드시 더 나아갈 곳 없는 꼭대기에 올라 못 산이 하찮음을 살피리라(會當凌絕頂, 一覽衆山小)¹⁴⁾”라는 두 구로 끝을 맺는다. 이처럼 호기가 하늘을 치솟는 듯한 시구는 당시 두보가 높다란 산봉우리에 올라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조차 하찮게 여기는 듯한 기개와 지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마음 가득 큰 뜻을 지녔던 두보는 현실 속에서 거둬 벽에 부딪치고 만다. 24세가 되던 해 그는 장안으로 가서 진사 시험에 응했으나 불행히도 낙방하고 만다. 이에 그는 울적한 심사를 달래며 다시 한 번 옛 제와 조나라 일대를 유람하기로 마음먹었다. 제 2차 유랑 생활에서 그는 각지의 문화 풍습을 접하면서 견문과 시야를 더욱 넓힐 수 있었다. 당 현종 개원 29년(741년), 그는 오랜 방랑 생활을 접고 귀향하여 사농소경(司農少卿) 양이(楊怡)의 여식인 양씨와 결혼하였다. 이후 낙양 부근에 있는 수양산 아래 몇 칸 집을 짓고 한동안 열심히 책을 읽었다. 그리고 다시 진사를 뽑는 과거에 응시하였다.

천보 3년 여름 그는 낙양에서 이백을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어느새 오랜 친구지간이 되었고, 차마 헤어지기 어려워 함께 제로(齊魯) 땅을 여행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여로에 여러 친구 벗님들과 만나 시문을 짓고 시사를 논했으며, 음주와 사냥에 몰두하기도 했다. 그들 두 사람은 낮에는 손을 잡고 여정을 계속하고 밤이면 함께 침상에 들 정도로 마치 형제와 그림자인 양 붙어 다니며 형제보다 더한 우정을 지속하였다.

천보 5년(746년), 두보는 이미 35살의 장년이 되었다. 그는 재차 장안으로 가서 관직을 얻고자 애썼다. 때마침 당 현종이 천하의 재주와 학식을 지닌 선비를 뽑고자 장안에서 과거를 시행토록 하였다. 두보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에 이번만큼은 급제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당시 과거를 주관하는 중서령(中書令: 재상)이 바로 ‘구밀복검’으로 악명이 자자한 이임보(李林甫)였던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이번 과거에 한 사람도 급제시킬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 두보의 시험 답안이 제 아무리 뛰어난 들 어찌 급제할 수 있었으랴. 이임보는 과거시험이 끝난 후 당 현종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이번 시험에선 인재를 한 명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의 능한 선비들이 이미 모두 황상의 부름을 받아 조정에 출사하였기 때문인 줄 아옵니다. 황상의 성명(聖明)이 이러하시어 재

14) 인용시에 나오는 ‘회당(會當)’은 당대의 구어(口語)로 ‘반드시 하고자 한다’는 뜻이다.

야에 남은 현재가 한 명도 없으니 참으로 경하드릴 일이옵니다.” ‘재야에 남은 현재가 한 명도 없다’는 결론은 위로는 황제인 현종을 기만한 것이요, 아래로는 천하의 유식지사(有識之士)가 나라를 위해 일할 길을 막은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두보는 비분에 잠겼으나 이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 속수무책, 그저 장안에 남아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또한 누가 알았으랴. 한 번 기다린다는 것이 어느새 8, 9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실로 가슴을 치고 통탄할 노릇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도처에 줄을 대어 자신을 추천할 사람을 찾았으나 그 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40세가 되던 해에 쓴 세 편의 「대례부(大禮賦)」가 현종의 눈에 들게 되었다. 그러나 그 즉시 관직을 하사받기는커녕 재상에게 면접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전부였다. 당시 면접시험 또한 이임보가 주관하였는데, 시험이 끝난 후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당시 두보의 생활은 이미 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였으니, 당시 그의 시는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부잣집 대문 두드리고, 늦은 저녁까지 살찐 말 먼지를 쫓는다. 남은 술과 식은 고기, 가는 곳마다 슬픔과 쓰라림에 잠긴다(朝扣富兒門, 暮隨肥馬塵. 殘杯與冷炙, 到處潛悲辛)”¹⁵⁾ 하는 수 없이 사방을 돌아다니며 권세를 지닌 이들에게 시문을 바치는 등 아쉬운 부탁을 하기도 했으나 이임보 쪽에선 여전히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임보가 그에게 던져준 것은 우위솔부주조참군(右衛率府胄曹參軍)이라는 미관말직(微官末職)이었다. 주된 임무는 병갑 등을 간수하고 금문(禁門)의 열쇠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두보라는 개인으로 볼 때 큰 인재에게 하찮은 일을 맡긴 셈이기는 하였으나 그것 또한 관직이니 일단 고정된 수입이 보장되었다. 두보는 서둘러 이러한 소식을 집에 알리는 한편 시간을 내어 처자가 있는 봉선(奉先: 지금의 섬서성 포성蒲城)으로 달려갔다. 당시는 안록산이 거병하기 직전이었는데, 사회 전체에 동란의 징조가 짙게 깔리고 있었다. 시인은 민감한 후각으로 이를 감지하였는지, 장시 「경사에서 봉선으로 가는 길에 읊은 5백자(自京赴奉先詠懷五百字)」를 썼다.

널리 알려진 이 시에서 두보는 “평생 백성들을 근심하여, 탄식으로 애가 타는 듯하여라(窮年憂黎元, 歎息腸內熱)”, “권세가 집안엔 술과 고기 썩는 냄새 진동하는데, 길가엔 얼어 죽은 시체 백골이 나뒹군다(朱門酒肉臭, 路有凍死骨)” 등의 유명한 구절을 통해 당시 사회의 첨예한 모순을 그려내는 한편 “집문 들어서니 호곡소리, 어린 자식이 굶어죽었구나(入門聞號咷, 幼子餓已卒)”라는 비극적인 자신의 가정사

15) 「봉증위좌승문이십이운(奉贈韋左丞文二十二韻)」의 한 구절이다.

를 묘사하기도 했다. 이 시는 두보가 장안에서 10년간 생활하면서 체험과 느낌을 통해 안사의 난리가 일어나기 직전 도처에 위기가 잠복하고 있던 당대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중국 시사에서 기념비적인 걸작이다.

두보가 식구들을 만나고 다시 경성으로 돌아온 지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안록산이 거병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나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가 무섭게 전란에 휩싸인 것이다. 반란군이 장안을 공략하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었던 두보는 북상하여 숙종을 찾아뵙기로 마음먹고 길을 떠났다. 그러나 도중에 반란군에게 붙잡혀 다시 장안으로 압송되고 말았다. 그 사이에 그는 전란으로 인해 유리절식하는 피란민의 참상과 엉망으로 파괴된 세상을 보면서 실로 애가 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비애와 울분을 「춘망(春望)」이란 시에 실었다.

나라는 무너져도 산하는 남아 도성에 봄이 왔으되 초목만 무성하구나.
시국을 슬퍼하니 꽃 봐도 눈물 뿌리고, 이별이 한스러워 새조차 마음 혼든다.
봄햇불 석 달 내내 오르니, 고향편지 만금 값일세.
흰머리 굵을수록 빠져 이제 비녀조차 꼽기 어려워라.
國破山河在，城春草木深。
感時花濺淚，恨別鳥驚心。
烽火連三月，家書抵萬金。
白頭搔更短，渾欲不勝簪。

그야말로 피눈물로 쓴 이 시는 시인의 애국충정과 전쟁에 대한 통한, 그리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 시는 그 예술성에 있어서, 시적 함의가 풍부하면서도 전혀 잡됨이 없고, 강렬한 정감을 담고 있으되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시인의 시의가 유tang하게 흐르면서도 단순하지 않고, 격률이 엄정하면서도 결코 막히는 곳이 없으며, 두텁고 깊은 기운(氣韻)과 진지한 감정이 절로 원숙함을 이루어 실로 천공(天工)을 빼앗을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두보는 장안에 끌려온 후 어쩔 수 없이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한 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장안을 탈출하여 숙종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온갖 간난과 고초를 다 겪고 마침내 숙종이 있는 곳에 도달한 그는 입고 있는 옷이 남루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몰골이 처참하여 차마 보기 힘들 정도였다. 마침 숙종이 그의 충성됨과 강직함을 알고 그를 좌습유(左拾遺: 황제의 신변에서 간언을 올리는 관원)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변의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항시 직언으로 간언하여 결국 숙종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 생기고 말았

다. 그리하여 화주(華州) 사공참군¹⁶⁾으로 강등되고 말았다.

그 때는 이미 안록산의 주력부대가 퇴패하고 장안과 낙양을 수복한 후였으나 아직까지 반란군의 잔당들이 도처에서 창궐하고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난리가 그치지 않는 상황이었다. 두보는 직접 백성들과 접촉해야만 하는 말단 관리로서 당시 백성들의 질고에 대해 보다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바로 ‘삼리(三吏)’와 ‘삼별(三別)’의 작품들이다.

‘삼리’에 나오는 「신안리(新安吏)」는 어린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늙은 아버지의 심정을 그린 것이고, 「동관리(潼關吏)」는 동관의 방어와 관련된 교훈과 수비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석호리(石壕吏)」는 한 집안에 세 아들이 모두 징병되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늙은 아버지마저 끌고 가려고 하자 끝내 늙은 부인네가 병역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 ‘삼별’의 경우, 「신혼별(新婚別)」은 신혼의 아낙이 남편을 전선으로 내보내면서 송별의 아쉬움과 격려를 소재로 삼았으며, 「수노별(垂老別)」은 자식들이 모두 전선에서 죽은 후 자신마다 전쟁에 나가게 되자 늙은 부인과 작별하고 의연히 종군하는 노인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 또한 「무가별(無家別)」 역시 어떤 병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부대가 패퇴하여 산산이 흩어지자 이미 황폐해진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다시 마을 관리가 그를 군대로 보내려고 하였는데, 이제는 함께 이별을 나눌 가족, 친지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이상 ‘삼리’와 ‘삼별’은 전란으로 황폐해진 삶속에서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이중의 고통, 즉 관리의 억압과 전쟁의 아픔을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당시 백성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자신의 희생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찬송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빛나는 시가들은 두보 시가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시사(時事)를 잘 읊었다’는 말을 가장 잘 체현한 작품들로 당대 전란시기의 사회현실에 대한 예술적 개괄이자 당대 현실주의 시가의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혼란한 사회에 직면하여 두보는 울분과 더불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결연히 관직을 내던지고 민간의 삶을 택하게 된다. 이리저리 거처를 옮기고 거의 유랑이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섬서에서 사천에 이르게 되었는데, 마침 친구의 도움을 받아 성도(成都) 서쪽 교외에 있는 완화계(浣花溪)에 몇 칸 초가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곳에 안거하면서 그는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사방에 울음소리 진동하던 중원을 벗어나 자못 그윽하고 고요하며 풍광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우환과 피로에 지친 몸을 다스릴 수 있었다. 아울러 그 속

16) 화주는 지금의 섬서성 화현이며, 사공참군(司功參軍)은 문화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말직이다.

에서 정밀(靜謐)한 마음과 기쁜 정을 시가에 기탁하여 대자연을 노래하는 주옥처럼 아름다운 시가를 지었다. 「봄밤에 내리는 반가운 비(春夜喜雨)」의 “좋은 비 시절을 알아, 봄맞이하여 내리기 시작한다. 바람 따라 밤에 몰래 스며들어, 소리 없이 만물을 촉촉이 적시누나. 들판 길 구름 낮게 깔려 어두운데, 강에 뜬 배 어화만 홀로 밝아라. 새벽녘 여명에 붉게 젖은 곳 보나니, 금관성에 꽃들 활짝 피었네(好雨知時節，當春乃發生。隨風潛入夜，潤物細無聲。野徑雲俱黑，江船火獨明。曉看紅濕處，花重錦官城)”라든지 「수함견심(水檻遣心)」의 “가랑비에 물고기 튀어 오르고, 산들바람에 제비 비스듬히 난다(細雨魚而出，微風燕子斜)”，「절구(絕句)」에 나오는 “피꼬리 한 쌍 푸른 버들에서 지저귀며, 한 줄 백로는 푸른 하늘로 날아오른다(兩個黃鸝鳴翠柳，一行白鷺上青天)” 등등은 모두 널리 알려진 명구들이다.

당시 두보는 오래전부터 집안끼리 알고 지내던 엄무(嚴武)가 마침 사천 절도사로 성도에 부임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된다. 광덕 2년(764년) 엄무는 그를 절도참모(節度參謀), 검교공부원외랑(檢校工部員外郎)으로 천거하였다. 후인들이 두보를 일러 ‘두공부(杜工部)’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바로 공부원외랑의 직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태(永泰) 원년(765년) 4월 엄무가 돌연 사망하자 두보는 의지할 곳을 잃어 어쩔 수 없이 가솔을 이끌고 성도를 떠나게 된다. 그는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주(嘉州), 유주(渝州) 등을 지나 충주(忠州)를 거쳐 운안(雲安: 사천성 운양 雲陽)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두보는 병이 들어 요양한 후 이듬해인 대력 원년(766년) 늦봄 운안을 떠나 기주(夔州: 사천성 봉절奉節)로 옮겨갔다. 그렇지 않아도 빈곤과 질병으로 온갖 고생을 했던 두보는 기주에서도 여전히 학질이나 폐병, 당뇨병으로 힘든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우울과 비애를 시가창작을 통해 해소하려 했는지 기주에서 겨우 1년 9개월 밖에 생활하지 않았으나, 그 기간에 430편의 시를 써냈다. 이는 전체 1,400여 수에 달하는 그의 시가 가운데 7분의 2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기주에서 보낸 시절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많은 시를 썼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고금에 걸쳐 칠언율시의 최고봉이라고 칭해지던 작품 「등고(登高)」는 바로 이 시기의 산물이다.

높은 하늘에 매운바람 잔나비 울음 애달픈데
맑은 물 모래톱 하얀데 물새 날아돈다.
끝없는 낙엽은 처량하게 떨어지고,
장강 또한 끊임없이 세차게 흐르도다.

만리타향 객이 되어 맞는 가을 슬프기만 하여,
 평생 병든 몸 이끌고 홀로 누각에 오르나니.
 하수상한 시절에 서리 내린 흰 머리 더욱 괴로운데,
 영락한 몸에 폐질이 도져 탁주도 못 마시게 되었네.
 風急天高猿嘯哀，渚清沙白鳥飛迴。
 無邊落木蕭蕭下，不盡長江滾滾來。
 萬里悲秋常作客，百年多病獨登臺。
 艱難苦恨繁霜鬢，潦倒新亭濁酒杯。

전반부 네 구는 크게 붓을 휘둘러 가을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웅혼하고 호방하면서도 또한 침울하고 적막하다. 후반 네 구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다. 질병에 시달리며 타향에서 표박하는 신세에 백발은 더욱 성성해지고 폐질이 도져 급기야 단주(斷酒)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강개한 비가에 독자들은 절로 눈물을 흘릴 것이다.

전체 시가는 오르고 내림이 큰데다 열리고 닫힘이 또한 자연스러우며, 시인의 정감과 외물의 경치가 서로 어울려 정경교용(情景交融)의 진면목을 드러내며 시가의 함의 또한 유장하다. 특히 전체 여덟 구가 모두 대우(對偶)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데, 상하 매 구의 격률이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율시에서는 네 구의 대우가 보통인데, 이렇게 여덟 구 전체에 대우를 갖추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두보는 전혀 꺾끄러운 부분 없이 천연적으로 그러한 것처럼 성운과 문자상의 격률을 완성하였다. 하여 그에게 율시의 격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하니, 예술적 기교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기주는 삼협(三峽)에 위치하여 기후가 열악할뿐더러 지형도 험난한 곳이다. 당연히 친구나 친지가 그 옆에 있을 리 없었다. 결국 두보는 채 2년이 되기도 전에 그곳을 떠나 원(沅: 호북성), 상(湘: 호남성 일대)으로 갔다. 그 기간 동안 때로 친지나 벗들에게 몸을 기탁한 적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낡은 선상(船上)에서 생활해야만 했다. 이렇듯 질병과 빈곤 속에 허덕이며 상강(湘江)을 떠도는 뱃전에서 생활하던 그는 결국 그곳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고 만다. 당 대종 대력 5년(770년), 그의 나이 59세였다.

두보는 청소년기에 잠시 즐거웠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외에 평생 고난과 간난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범한 의지력과 그치지 않는 이상 추구를 통해 시가의 화원에서 끊임없이 노력하여 1400여 수의

주옥같은 작품을 우리들에게 남겼다.¹⁷⁾ 그의 시가는 장강대하(長江大河)와 같아 때로 격랑을 일으키는가 하면 맑고 고운 물길로 고요하게 흐르고, 때로 일망무제 아득하게 넓은 수평선을 보여주는가 하면 구부러진 강가 움푹한 곳에 다소곳이 펼쳐진 평사(平沙)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전성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드는 당대의 사회상과 자신이 걸어온 삶의 곡절을 유감없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동시에 그의 시가는 형식이 다양한데다 시체를 두루 겸비하고 있어, 오언이나 칠언은 물론이고 그 밖의 여러 가지 시체 역시 완숙한 경지에 이르러 여러 시인의 정화를 한데 모아놓은 것과 같다. 이렇듯 내용적인 면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두루 참신한 경계에 이르러 특히 송대 문학가들이나 평론가들은 그를 일러 ‘시학종사(詩學宗師)’, ‘천재시종(千載詩宗)’이라 칭찬하였으며 명대 사람들은 아예 그를 일러 ‘시성(詩聖)’이라고 하여 시가 영역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인물로 격상시켰다.

이백과 두보는 일찍이 서로 교류한 바 있는데, 「봄날 이백을 그리며(春日憶李白)」이란 시에서 그는 “이백, 그의 시가야 무적이지, 표연한 그의 생각 못 사람들과 견줄 수 없다네(白也詩無敵, 飄然思不群)”라고 하여 이백의 시는 천하무적이라고 평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시가 역시 결코 이백과 비교하여 떨어지지 않는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들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낭만주의적 시풍에 장점을 지녔고, 다른 한 명은 사실주의적 시풍에 뛰어났다고 말할 수 있으나 예술적 성취 면에서 본다면 실로 높고 낮음을 결정할 수 없을 정도라 하겠다. 그들보다 조금 늦게 태어난 대문인 한유는 “이백과 두보는 시가에 있어, 그 불꽃이 만장(萬丈)을 치솟는다”라고 하였으니, 그의 말이 핵심을 꿰뚫은 듯하다.

다. “시 속에 그림이 있다(詩中有畫)”는 왕유王維

맹호연을 이야기하다보면 절로 왕유가 떠오른다. 이는 두 사람이 일찍이 우의를 나누었다는 것 말고도 그들 두 사람의 시가 창작이 제재나 풍격 모두 서로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도연명과 사령운의 전원 산수시 전통을 이어받아 당대 전원 산수시의 대표로 떠올랐다. 그래서 문학사는 그들을 일러 ‘왕맹시파(王孟詩派)’라고 부른다.

왕유, 자는 마힐(摩詰), 장안 원년(701년)에 태어나 상원(上元) 2년(761년) 세상을 떴다. 태원(太原) 기(祁: 지금의 산서성 기현) 사람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

17) 1443년(세종 25), 유윤겸(柳允謙)·유휴복(柳休復)·조위(曹偉) 등이 왕명을 받들어 주해하고, 성종 때 조위와 승려 의침(義砮) 등이 한글로 번역하여 81년(성종 12)에 간행한 한국 최초의 번역시집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에 수록된 두보의 시가는 전체 1647편이다. 이는 원(元)나라 때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를 저본으로 삼은 것인데, 청대 포기룡(浦起龍)이 체제에 따라 분류한 『독두심해(讀杜心解)』에 따르면 두보의 전체 시가는 1,458수이다.

한데다 배우기를 좋아하고 사고가 깊어 조숙하였다. 이미 9살 때 시문을 창작하였는데, 청소년기에 쓴 작품 가운데 가작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역대로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은 바 있는 「9월 9일 산동 형제를 그리며(九月九日憶山東兄弟)」 역시 청소년 시절에 쓴 작품이다.

홀로 타향에 나그네 되어,
매번 명절이면 어버이 더욱 그리워라.
멀리서도 알겠네, 형제와 같이 오르던 언덕,
수유 꽃은 이 한 사람 줄었음을.
獨在異鄉爲異客, 每逢佳節倍思親.
遙知兄弟登高處, 遍插茱萸少一人.

‘수유’는 향내 나는 식물이다. 옛 사람들은 구월 구일 중양절에 높은 곳에 오를 때 그것을 몸에 찻는데, 이를 통해 재앙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마지막 두 구는 멀리 떨어진 타향에서도 집안 형제들이 중양절에 수유를 꽃고 높은 곳을 오르는데 오직 자신 혼자만 빠졌음을 알고 깊은 유감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는 그의 나이 17세 때 집을 떠나 멀리 원유하던 시절의 작품이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역을 나그네로 떠돌며 느끼는 고향 생각을 이처럼 질박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또한 힘있게 묘사한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랄만하다. 특히 앞의 두 구절은 중국 시가 가운데 ‘유자사향(遊子思鄉)’, 즉 나그네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사를 가장 잘 표현한 격언 같은 경구(警句)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미 어린 나이에 이러한 재질을 갖추고 있었으니 그의 나이 21세 때 진사에 급제한 것도 당연한 일인 듯하다.

왕유는 진사에 급제한 후 곧 관직을 얻었다. 처음에는 대락승(大樂丞)이 되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황궁 악대의 대장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이후 좌습유(左拾遺), 감찰어사 등을 역임하게 된다. 당시 그는 경성 관리로서 재능과 학식을 겸비하였으며, 인품이 바르고 진실하여 왕공대신들은 물론이고 문인, 묵객 등이 모두 그와 교유하기를 원해 실로 명성이 날로 높아졌다. 그러나 관리 사회라는 것은 본시 어두운 일면이 존재하기 마련이었으니, 왕유 역시 입사 후 어두운 일면의 공격을 면할 수 없었다. 당시 조정의 재상은 장구령(張九齡)이었다. 빈한한 가문 출신인 그는 사람됨이 정직하였으며, 항시 진정한 재능과 실질적인 학식을 갖춘 이를 임용하여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치국 방침과 일련의 조치는 조정의 보수적인 관료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였는데, 그

들 중 우두머리가 바로 이임보(李林甫)였다. ‘구밀복검(口蜜腹劍)’, 즉 달콤한 입발림에 능하나 마음속으로 칼을 품고 있다는 뜻의 고사성어의 주인공이기도 한 그는 온갖 음모와 술수에 능한 이로 결국 장구령을 모함하여 음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개원 24년(736년) 장구령은 재상을 사직하게 되고, 이임보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왕유의 정치적 주장은 장구령과 비교적 유사한 데다 장구령이 재상에 있던 시절에 등용되었기 때문에 장구령의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본래 소인이 뜻을 얻으면 허장성세가 늘고 난데없는 기염을 토하기 마련인데, 이임보가 바로 그 꼴이었다. 그러한 인물이 왕유를 좋아할 리가 없었으니, 시시때때로 훈계를 늘어놓고 모욕을 주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처럼 험악한 환경에 직면하게 되자 왕유는 허구한 날 근심과 걱정으로 풀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그는 얼마 후 정치적 투쟁으로 시비가 잦을 날이 없던 장안을 벗어나 양주(涼州: 지금의 감숙성 평량平涼)의 문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왕유는 양주에서 나름대로 흡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변새(邊塞)의 장려한 풍광은 그의 이목을 더욱 새롭게 하였고, 긴장된 군사 활동은 그의 정신을 더욱 진작시켰다. 당시 그가 쓴 시가는 주로 변새 생활이 주된 소재인데 격조가 웅혼하고 기세가 호방하고 웅장하다. 대표작인 「사지새상(使至塞上)」에 나오는 “거대한 사막 외로운 연기 곧게 오르고, 긴 강물 떨어지는 해 더욱 둥글다(大漠孤烟直, 长河落日圓)”라는 구절은 천고의 명구로 명성이 자자하다.

변새에서 3, 4년을 지낸 후 왕유는 다시 장안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당시 이임보가 여전히 재상의 자리에 앉아 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흉악한 기세가 더욱 기승을 벌여 ‘당동벌이(黨同伐異: 같은 무리들이 결당하여 다른 무리들을 비판함)’가 우심한 지경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인을 어떻게 대해야만 할 것인가? 왕유는 소극적으로 물러나는 자세를 취하여 시정(時政)에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로 가능한 한 이임보와 정면 충돌을 면하고자 애썼다. 그는 장안 근처에 있는 종남산(終南山)에 산장을 한 채 사서, 이를 ‘망천별서(輞川別墅)’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별장 안은 산수가 빼어난 데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고운 연못이 있었으며, 죽주(竹洲), 화오(花塢)에 누각 등이 갖추어져 가히 원림의 아름다움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친구인 배적(裴迪)과 함께 그곳에서 풍광에 도취되어 소요(逍遙)하며 소일하고, 불경을 외우거나 시를 짓기도 하면서 명색은 관리이나 거의 은자 생활을 하는 반관반은(半官半隱)의 생활을 즐겼다. 왕유의 은거 생활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그는 적지 않은 산수시를 창작하였는데, 나중에 이를 모아 『망천집(輞川集)』을 세상에 내놓았다. 시집에 수록된 40수의 절구는 거의 모두 한

폭의 아름다운 산수시 처럼 형상이 선명하고 생동적이며, 의경이 청아하고 그윽하다. 그 가운데 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빈산에 사람 기척 없는 데
간간이 들려오는 말소리 있어
비긴 햇볕 먼 숲에 맑고
푸른 이끼 더욱 질푸르게 빛난다.
空山不見人, 但聞人語響.
返景入深林, 復照青苔上. 「녹시(鹿柴)」

홀로 고요한 대숲에 앉아
거문고 뜯다간 휘파람도 불어보고
깊은 수풀이라 아는 이 없어도
달빛이 소리 없이 비쳐 온다.
獨坐幽篁裏, 彈琴復長嘯.
深林人不知, 明月來相照. 「죽리관(竹里館)」

시적 함축미가 가득하고 또한 그림의 묘경(妙境)이 담겨져 있으니, 실로 마음과 눈을 즐겁게 하고 운미(韻味)가 무궁하다. 시의 정감과 의취가 그림의 형체와 색깔과 어울려 조화를 이루니 역대로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은 것 또한 당연하다.

당 현종 천보 14년(755년) 겨울, 군벌 안록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이 반란을 일으키자 변영을 구가하던 당 왕조는 ‘안사의 난리’라는 재앙에 직면하게 된다. 당시 안록산의 반란군은 기세충천하여 빠른 속도로 경사를 향해 진군하였다. 이에 당 현종은 서둘러 촉(蜀: 사천성) 땅으로 도피하였으나 수많은 관원들은 장안에 그대로 내팽겨진 채로 안록산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당시 왕유는 급사중(給事中: 장소章疏 등 공문을 베껴 쓰면서 잘못된 부분을 검사하는 요직)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요행 장안을 빠져나와 현종의 뒤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중간에 반군에게 체포되어 장안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안록산은 칭제(稱帝)한 후 자신의 지위를 굳게 하고 인심을 수습하기 위해 당 왕조에 헌신했던 많은 관원들을 다시 불러 더 높은 관직을 주었다. 왕유는 재주가 출중한 데다 명망이 높았기 때문에 안록산 역시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급사중 직을 계속 맡아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왕유는 일부러 설사약을 먹고 하루 종일 배앓이를 하여 피폐하고 누렇게 뜬 얼굴로 병환이 깊어 출사할 수 없음을 밝혔다.

어찌 할 수 없었던 안록산은 그를 낙양의 보시사(普施寺)에 머물도록 하였다.

2년이 흐른 뒤 새로운 황제로 등극한 숙종은 회흘(回紇: 지금의 위구르 족) 군대의 도움을 받아 장안을 공격하여 반군을 패퇴시키고 경성을 수복하였다. 장안에 입성한 당 숙종은 안록산 정권에서 ‘위직(僞職)’을 받은 적이 있는 이들을 모두 무거운 죄로 다스렸다. 다만 왕유는 장안이 함락될 때 「역적이 응벽지에서 향락을 즐겼다는 소식을 듣고(聞逆賊凝碧池作樂)」라는 시를 써서 반란군을 비판하여 당조에 대한 충성을 표시한데다 그의 동생인 왕진(王縉)이 숙종의 공신으로 자신의 관직을 삭탈하여 형의 죄를 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폄직하여 태자중윤(太子中允)을 맡았으나 곧 원래 자리에 복직되었고, 이후 상서우승(尙書右丞: 부승상의 직책에 해당한다)에 올랐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일러 ‘왕우승(王右丞)’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허나 당시 왕유는 이미 세상사를 간파하여 공명과 부귀가 한낱 뜬 구름과 같은 것이며, 무엇인가를 찾아 각축하는 일 또한 추호의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회황찬란한 조정의 대문을 나서서 불교 사원이나 대자연을 찾아 철저한 은거 생활을 하게 된다. 그 시기에 그는 매력적인 산수시를 적지 않게 남겼는데, 예술적으로 거의 최고 경계에 올랐다. 예를 들어 「산속 가을 저녁(山居秋暝)」에 나오는 “밝은 달 소나무 사이로 비추고, 맑은 샘은 돌 위로 흐른다(明月松間照 清泉石上流)”¹⁸⁾라든지 「종남별업(終南別業)」에 나오는 “가다가 물이 다하는 곳에 이르면 앉아서 구름이 피어나는 때를 바라본다(行到水窮處, 坐着雲起時)”¹⁹⁾ 등의 유명한 구절은 매 글자가 주옥이니 백번을 외워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왕유는 특히 송별시에 능했는데, 그가 쓴 「위성곡(渭城曲)」은 당대 이래로 가장 많이 애용되던 송별사이기도 하다.

위성 아침 비 흙먼지 적시니,
객사엔 파릇파릇 버들잎 푸르러라
그대여 권하노니, 다시 한 잔 하시라.
서쪽으로 양관 땅 나서면 아는 이 없으리니.

18) 「산거추명」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 산에 새 비 온 후 날씨는 어느새 늦은 가을, 밝은 달 소나무 사이로 비추고, 맑은 샘은 돌 위로 흐르는데. 대숲 소란터니 빨래하고 돌아가는 여인네 소리, 연꽃 출렁이니 고깃배 지나가네. 섭리 따라 봄 향내 다 시들었으나 그대 절로 머물 만 하여라(空山新雨後, 天氣晚來秋. 明月松間照, 清泉石上流. 竹喧歸浣女, 蓮動下漁舟. 隨意春芳歇, 王孫自可留).”

19) 「종남별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년이 되어 자못 불도를 좋아하던 차에, 만년에 종남산 기슭에 거처를 마련 하니. 흥이 나면 늘 혼자 나서니 좋은 일은 단지 나 혼자만 알 뿐이라. 가다가 물이 다하는 곳에 이르면 앉아서 구름이 피어나는 때를 바라보고. 우연히 숲속에서 노인이라도 만나게 되면 담소하며 돌아갈 줄 모르나니(中歲頗好道, 滿家南山搜. 興來每獨往, 勝事空自知. 行到水窮處, 坐着雲起時. 偶然值林叟, 談笑無環期).”

渭城朝雨浥轻尘，客舍青青柳色新。
劝君更进一杯酒，西出阳关無故人。

이른 봄 위성(渭城), 가는 비가 그치지 않고 내려 길가 흙먼지를 축축이 적신다. 비오는 객사에 버들은 더욱 새로워 푸른 빛 허공에 흐릿한데, 그대 벗이여! 다시 한 잔 들게나. 그대 천리 길 서쪽으로 양관(陽關: 지금의 감숙성 옥문 서쪽)을 벗어나면 아는 이를 만나기 어렵지 않겠나! 인용시의 전반부는 송별할 당시의 시간과 지점, 그리고 분위기를 묘사하는데, ‘봄비’와 ‘길’, 그리고 ‘객사’와 ‘양류(楊柳)’ 등의 경물을 통해 석별의 정조(情調)를 부각시키고 있다. 후반부는 석별할 때 장도를 축원하거나 아쉬움을 전하는 등 하고 싶은 모든 말을 한 잔 술에 담아, 복잡한 심리나 마음 가득한 감정을 지극히 평범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로 언어 밖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뜻이 함축되어 있음이 아닐 수 없으니 또한 심금을 울리지 않을 수 없을 터이다.

라. 천고 풍류風流 소동파蘇東坡

중국 역대 문인들 가운데 소동파는 가히 광세기재(曠世奇才: 세상에 따를 자가 없는 재주)를 지닌 문인이라 할 만하다. 시사(詩詞)나 문장은 물론이고 서법, 회화, 학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능하여 각기 높은 경지에 올랐기 때문이다. 중국 역사상 소동파처럼 넓은 영역에서 모두 걸출한 성취를 일궈낸 이는 실로 다시 찾기 어렵다.

우선 그의 시는 기상이 넓고 크며 의취(意趣)가 높고 심오한데, 전대 문인들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억매임이 없어 송시(宋詩)의 새로운 의경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사(詞)는 호방하고 광달하여 정감이 농후하고 뜻이 원대하여 웅혼(雄渾)과 청려(淸麗)를 겸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문학사에서 가장 저명한 사인(詞人)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산문의 경우 정리(情理)가 조화롭게 교용하고 어느 한 군데 구애됨이 없이 호방한데다 문의(文意)가 거센 물결이 이는 듯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여 백대(百代)를 응시(雄視)하는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서법은 특히 행서와 해서에 능했는데, 필법이 뼈대가 굳고 살이 풍요로우며, 자유분방하여 일가(一家)를 이루었다.

중국 서법사에서 해서는 “안, 유, 구, 소(顏眞卿, 柳公權, 歐陽詢, 蘇東坡)” 등 사대 유파를 내세우고, 송대 서법의 경우는 “소, 황, 미, 채(蘇東坡·黃庭堅·米芾·蔡襄)” 등 사대가(四大家)를 내세우는데, 여기서 ‘소’란 바로 소동파를 말한다. 이처럼 그는 중국 서법사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의 그림은 붓질이 성하고

묵이 듬뿍 실려 생생한 느낌이 가득 차 있다. 특히 고목이나 죽석(竹石)그림은 고풍스럽고 힘이 있어 호방한 풍격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으며, 중국 문인화의 발전에 깊고 원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학술 저작은 『역전(易傳)』, 『서법(書法)』 등이 있는데, 박학다식한 면모가 문사 곳곳에 드러나며 변론이 지극하고 논리 정연하여 송대 이학자 주희조차 크게 찬양한 바 있다.

왕안석이 말년에 소동파를 만난 적이 있는데, 두 사람은 며칠 간 허심탄회하게 방담을 나누었다. 그 때 왕안석이 감탄하여 말하길, “이처럼 재능과 학식이 뛰어난 이는 실로 천고에 얻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소동파, 이름은 소식(蘇軾)이며 동파(東坡)는 호이다. 미주(眉州) 미산(眉山: 지금의 사천성 미산) 사람으로 송 인종 경우 4년(1037년) 서향(書香)이 물씬 풍기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친 소순(蘇洵)과 동생 소철(蘇轍) 역시 뛰어난 문인들이었기 때문에 문학사에서 그들 세 사람을 일컬어 ‘삼소(三蘇)’라고 한다. 소동파는 지극히 총명한데다 다재다능하였고, 선량하고 고상한 인품을 지닌 인물이었다. 21세 때 진사에 급제한 후 항주(杭州), 상주(常州), 호주(湖州), 서주(徐州) 등지에서 지방관으로 재직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매번 임지를 떠날 때면 현지 백성들이 모두 나와 차마 떠나보내기 아쉬워하며 수십 리 연도에서 우는 이들 또한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오늘날 항주에 있는 서호(西湖)는 항주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에서 아름답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호수로 유명하다. 그러나 송대 시절 만해도 그곳은 수심이 낮고 수초가 무성하여 배를 띄울 수 없었을 뿐더러 오염이 심해 더럽기가 그지없었다. 소동파가 항주 통판(通判: 지주知州의 부관)으로 임명되어 온 후 백성들과 함께 호수의 진흙을 파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긴 제방을 만들었으며, 버드나무와 연꽃을 심어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호수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항주에서 2년간 머물렀는데, 정치적 업적이 탁월하여 칭송이 자자하였고, 어떤 이들은 그의 화상(畵像)을 집안에 모셔놓고 매일 행복을 빌었다고 한다. 그를 기념하기 위해 항주 사람들은 당시 소동파가 서호에 쌓은 독을 ‘소제(蘇堤)’라고 이름지었다.

소동파가 서호에 머물 당시 서호의 아름다움을 읊은 시가 적지 않은데, 그 중에서 「호수에서 술 마실 때 처음에는 맑다가 나중에는 비가 내리다(飲湖上初晴後雨)」를 살펴보기로 하자.

햇살에 물빛 반짝이니 맑은 날이 좋고
산색 흐릿하니 비오는 날 또한 기묘하다.
서호를 서시(西施)와 비교한다면,

치장이 열거나 질거나 언제나 어울린다고나 할까.

水光瀲灩晴方好，山色空濛雨亦奇。

欲把西湖比西子，淡妝濃抹總相宜。

첫 구는 맑은 날 서호의 물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두 번째 구는 비오는 날, 멀리 바라보이는 산에 안개비 자욱하여 흐릿한 모습을 그렸다. 호수와 산, 맑은 날과 비오는 날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담박하면서도 우아한 서호의 풍광을 절로 느끼게 만든다. 또한 서호의 변화무쌍한 모습은 이어지는 두 구절의 비유로 넉넉하게 표현되고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구절에서는 옛 월(越: 지금의 절강성 일대)나라의 절세 미녀 서시(西施)로 서호를 비유하고 있는데, 그녀가 어떻게 화장을 하든, 다시 말해 질게 하든 아니면 열게 하든 지 간에 언제나 그 미색에 변함이 없는 것처럼 서호 역시 맑은 날도 좋고 비오는 날도 좋아서 언제나 그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뜻이다.

시는 우선 정면에서 서호의 호광산색(湖光山色)을 그린 다음 다시 측면에서 생동감 넘치고 비근한 비유를 통해 서호의 신운을 그려내고 있다. 7언 절구 짧은 편 폭에 정련된 시어를 집어넣어 그 의취가 유장하니, 역대로 서호를 읊은 시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힌다. 서호는 ‘서자호(西子湖: 서시호)’라는 별칭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바로 이 시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동파는 재와 덕을 겸비한 인물이었으나 조정의 중용을 받지는 못했다. 송 신종 연간(1068-1085년)에 그는 엄청난 필화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당시 권어사중승(權御史中丞: 어사대御史臺 대리장관)인 이정(李定) 등이 사사로운 원한을 품고 소식을 탄핵하였다. 그들은 소식이 평소에 쓴 시문에서 거두절미하여 일부 시문을 발췌한 후, 그가 조정을 우롱하였고 황제를 비난했다고 주장했으니, 이것이 바로 송대에 유명한 ‘오대시안(烏臺詩案)’²⁰⁾이다. 다행히 많은 이들이 구명운동을 펼치고 송 신종이 친히 심문하여 오해를 풀고 석방될 수 있었으나, 황주(黃州: 지금의 호북성 황강黃岡)으로 폄적되어 단련부사(團練副使)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단련부사란 정식 관리들의 정원 이외로 설치한 한직 중에 한직이었다. 소동파를 황주로 폄적한다는 조령 안에는 “공무에 서명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20) 오대(烏臺)는 어사대를 말한다. 『한서·주박전(朱博傳)』에 보면, 어사대에 잣나무가 많았는데, 그 위에 수많은 까막까치가 서식하였기 때문에 오대라고 칭했다고 한다. 당시 소식이 탄핵을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가 황제에게 올린 「호주사표(湖州謝表)」이며, 이외에 항주 통판 시절에 쓴 시정을 풍자한 시들이 구실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소식은 사형에 처해졌는데, 다행히 인종 태후의 유언, 아우 소철이 관직으로 형의 죄를 대속하겠다는 탄원, 신종의 소식에 대한 아낌 등으로 겨우 목숨을 건지고 130여일 만에 석방되었다. 이는 당시 신법당과 구법당의 권력투쟁의 산물이었으며, 이로 인해 구법당의 많은 이들이 고초를 겪게 되었다.

다. 이렇듯 오대시안은 그에게 생애 최대의 타격을 입힌 사건이었다. 재덕을 겸비하고 나름의 포부를 지닌 이가 허구한 날 하는 일 없는 한직에 처해졌으니 과연 어떻게 세월을 낚아야만 할 것인가?

황주는 뛰어난 경승지로 유명하다. 주변에 산수가 에워싸고 있으며, 험준한 준령이 자리하여 그 장대함이 또한 불만하니 도처에 사람들을 도취시킬 풍광이 가득하다. 그 서북쪽 산 기슭에 높다란 절벽이 하나 불쑥 솟아 마치 강물 속에 심은 것만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산의 색깔이 검붉은 색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이 바로 그 옛날 손권과 유비의 군사들이 화공으로 조조의 군대를 물리친 적벽대전의 현장이라고 했다. 소동파는 울적한 심사를 풀 요량으로 수차례 적벽산 아래 배를 띄우고 그 근처를 유람하였는데, 볼 때마다 무한한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중국문학사에서 절묘하기로 이름 높은 산문 「전적벽부」와 「후적벽부」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염노교(念奴嬌)·적벽회고(赤壁懷古)」라는 뛰어난 기세를 자랑하는 천고의 명작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큰 강은 도도하게 동쪽으로 흘러가며
다 씻어 가버렸네. 천고의 영웅들을.
옛날 보루의 서쪽
사람들은 말하네
삼국시대 주유가 대승한 적벽이라고.
삐죽 속은 바윗돌은 구름을 무너뜨리고,
놀란 파도 강가 절벽을 두들기며
무더기로 눈더미를 말아올린다.
그림 같은 강산에
한 때 얼마나 호걸이 많았던가!

멀리 주유가 활약했던 때를 생각하니,
소교는 갓 시집왔었고
웅장한 자태에 재기 넘쳤으리.
깃 부채 들고 운건(綸巾: 명주실로 짠 두건) 쓰고
담소하는 사이에
적의 배는 불에 타서 연기 속에 사라졌으리.
고향 땅으로 내 마음 달리나니
다정한 그대는 나를 보고 틀림없이 웃겠지

흰 머리카락 일찍이도 났다고.
 인생은 꿈만 같은 것
 한 잔의 술 강물 속 달에 붓는다.
 大江東去，浪淘盡，千古風流人物。
 故壘西邊，人道是，三國周郎赤壁。
 亂石穿空，驚濤拍岸，卷起千堆雪。
 江山如畫，一時多少豪杰。

遙想公謹當年，小喬初嫁了，雄姿英發。
 羽扇綸巾，談笑間，強虜灰飛煙滅。
 故國神游，多情應笑我，早生華髮。
 人間如夢，一尊還酹江月。

삼국시대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은 조조의 백만 대군을 맞이하여 화공으로 대승을 거둔다. 소식의 사 「염노교·적벽회고」는 바로 이를 소재로 삼아 역사를 통해 고금의 호걸들이 보여준 기백을 논의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작품 안에서 준수하고 대범한 모습의 주공근(周公瑾: 주유周瑜)의 형상은 뛰어난 의기와 풍채를 생생하게 묘사하여 아름다운 강산과 치열한 전화(戰火)의 불꽃 속에서도 특별히 광채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같은 강산에서 그 옛날부터 술한 영웅호걸이 세상을 호령했으나, 그들 또한 역사의 도도한 장강을 따라 한 번 가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지 않았던가? “큰 강은 도도하게 동으로 흘러가며, 다 씻어 가버렸네. 천고의 영웅들을”이라는 소동파의 감개 속에는 또한 거친 땅에 펴적되어 우국충정의 길조차 찾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느낌 또한 들어있으리라.

한 가지 집고 넘어갈 일은 비록 소동파가 다재다능하고 박학한 인물이기는 하였으나 적벽대전이 일어난 위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²¹⁾ 황주에 있는 적벽은 그 옛날 주유가 조조의 백만 대군을 화공을 물리쳤던 그곳이 아니다. 삼국시대 적벽대전은 현재 무한(武漢)의 상류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황주는 무한의 하류 쪽에 있다. 그러나 소동파가 약간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황주 적벽의 명성에 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후대 사람들은 위대한 문호 소동파와 그의 작품 「염노교·적벽회고」를 기념하기 위하여 황주 적벽을 ‘동파 적벽’으로 부르기도 한다.

21) 소동파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소동파 역시 이 점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고 한다. 위에서 인용한 사 작품에서 ‘인도시(人道是)’라고 하여 단정 짓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소동파의 또 다른 걸작 사 작품 「수조가두(水調歌頭)·병진년 중추명월 새벽까지 즐겁게 마시다가 대취하여 이 작품을 짓고 아울러 자유를 생각하다(丙辰中秋, 歡飲達旦, 大醉作此篇, 兼懷子由)」를 살펴보겠다.

밝은 달은 언제부터 있었느냐고
술잔 들어 푸른 하늘에게 묻는다.
모르겠다. 천상 궁궐에 오늘밤이 어느 해인지.
바람 타고 되돌아가고 싶지만 옥으로 만든 하늘 대궐은
높은 곳이라 추위를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
일어나 춤추며 맑은 그림자 희롱하니
어찌 인간 세상에 있는 것과 같으랴!

달빛은 붉은 누각을 돌아
비단 창문에 낮게 드리워
잠 못 이루게 나를 비춘다.
달에게 무슨 한이 있겠는가마는
어이하여 이별할 때만 그리 등근가?
사람에겐 슬픔과 기쁨, 헤어짐과 만남이 있을 것이고
달에겐 흐리고 맑음, 차고 이지러짐이 있을 것이니
이는 옛날부터 온전하기 어려워라.
그저 바라나니 자네 오랫동안
천리 먼 곳에서나마 함께 달을 감상하기를.
明月幾時有? 把酒問青天.
不知天上宮闕, 今夕是何年.
我欲乘風歸去, 又恐瓊樓玉宇, 高處不勝寒.
起舞弄清影, 何似在人間.

轉朱閣, 低綺戶, 照無眠.
不應有恨, 何事長向別時圓?
人有悲歡離合, 月有陰晴圓缺, 此事古難全.
但願人長久, 千里共嬋娟.

이는 영월사(咏月詞), 즉 달을 읊은 사로 중추절 밤에 술을 마시며 달을 감상하

는 작가의 정경과 느낌을 묘사한 작품이다. 작품의 상권은 월궁의 차가움과 적막함에 대한 묘사이다. 월궁의 차가움과 적막이 “어찌 인간 세상에 있는 것과 같으랴!”라고 강조하면서 세상의 신랄한 어려움과 자신의 정결하고 고고한 인격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권은 맑고 밝은 달빛에 잠 못 드는 이의 심사를 통해 “달은 둥근데 어찌 사람만 둥글지 못하는가(식구들이 둥근 보름달처럼 모두 모이지 못함을 비유함)”라는 감개를 자아내게 만든다. 그리하여 작가는 맨 마지막 구절에서 “그저 바라나니 자네 오랫동안, 천리 먼 곳에서나마 함께 달을 감상하기를”이라며 기원의 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원래 이 작품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소동파가 천리 밖 먼 곳에 떨어진 동생 소철을 그리워하며 지은 것이다. 따라서 맨 마지막 구절의 의미는 그저 신체 건강하게 잘 지내어, 설사 함께 모여 즐겁게 지낼 수 없을지라도 멀리 타향에서나마 함께 달을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이를 보전대 소동파는 가슴가득 슬픔이 밀려드는 송별이나 그리움을 표현할 때도 여전히 자신의 광달하고 호방한 격조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회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 철종 원년(1086년), 소동파가 옥당(玉堂: 한림원)에 있을 때 사람들과 유영(柳永)의 사에 대해 담소하면서, 마침 음률에 능통한 막료(幕僚)에게 자신의 사를 유영의 사와 비교한다면 어떠하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

“유영의 사는 묘령(妙齡: 17-8세)의 아가씨가 손에 정교한 홍아판(紅牙板)을 잡고 가볍고 천천히 박자를 맞춰가며 가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양류안, 효풍잔월’을 노래하는 것과 같고, 학사(學士: 소동파)의 사는 관서(關西)의 대장부가 구리 비파와 철작판(鐵絃板)을 두드리며 높은 소리로 ‘대강동거(大江東去)’를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동파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고 한다.

비록 짧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유영의 사와 소동파의 사가 예술 품격 면에서 어떤 차이를 지녔는가를 형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용문에 나오는 ‘양류안, 효풍잔월(楊柳岸, 曉風殘月)’은 유영의 사 「우림령(雨霖鈴)·한선치절(寒蟬淒切)」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이 작품은 유영 사의 섬세하고 세밀하며 맑고 기이하며, 음률이 완약(婉約)한 예술적 특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강동거’로 시작되는 소동파의 「염노교(念奴嬌)·적벽회고(赤壁懷古)」는 기세가 드높고 호방, 강건하다. 후세 사람들이 송사를 ‘완약(婉約)’과 ‘호방(豪放)’ 양파로 구분하여 소식을 ‘호방파’의 대표로 삼은 것도 당연한 일이다.

소동파는 만년의 생활이 편치 않았다. 소성(紹聖) 4년(1097년) 그는 또 다시 탄핵을 받아 담주(澹州: 지금의 해남성 담현)로 폄적되었다. 당시 해남은 아직 개화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곳 생활은 그의 말대로 “음식도 고기가 없고, 병에 걸려 먹을 약도 없는”²²⁾ 형편이었다. 이처럼 극히 곤란한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낙천적인 삶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그는 원부(元符) 3년(1100년) 송 휘종이 즉위한 후 겨우 사면되어 북쪽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역시 이미 연로하여 그 이듬해인 건중정국(建中靖國) 원년(1101년) 상주에서 세상을 뜨니, 향년 66세였다.

4-2. 고려, 조선의 시인과 명시

* 鄭知常(?~1135), 「送人」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洞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비 개인 긴 독에 풀빛 고운데, 남포에서 님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이야 언제 마르리,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을 보태나니.

정지상의 시는 만당(晩唐)의 풍향이 있다. 웅심(雄深)한 거작은 적다. 그러나 어운(語韻)이 청화(淸華)하고 구격(句格)이 호일(豪逸)하다는 평이 있다. 「송인」은 시상이 참신하고 아름다워 만고의 절조(絶調)로 꼽혀 왔다. 후세 사람의 차운시가 많기로도 유명하다.

정민, 『한시미학산책』, 85~89: 대동강가 練光亭에 고금의 시인들이 지은 題詠詩가 많이 걸려 있는데, 중국 사신들이 오면 정지상의 시만 남기고 모두 거두어들였다. 이 시를 본 중국 사신들은 神韻이라 찬사를 연발했다. 왜 그랬을까? “送君南浦” 때문이라고 했다.

남포는 연원이 있는 단어이다. 굴원이 「九歌」 「하백」에서 “그대의 손을 잡고 동으로 가서 사람하는 님을 남포에서 보내네(子交手兮東行, 送美人兮南浦)”가 그것이다. 이로부터 ‘남포’는 중국 시인들에게 이별의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 江淹은 「별부」에서 “봄 풀은 푸른 빛, 봄 물은 초록 물결, 남포에서 그대 보내니, 슬픔을 어이 하나(春草碧色, 春水綠波, 送君南浦, 傷如之何)” 백거이는 아예 「南浦別」이라고 제목을 짓기도 했는데, “남포의 구슬픈 이별, 서풍에 나부끼는 가을(南浦淒淒別, 西風裊裊秋).”라고 본문에서도 썼다.

22) 서간문인 「정수재에게 보내는 서(與程秀才書)」에 나오는 말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此間食無肉, 病無藥, 居無室, 出無友, 冬無炭, 夏無寒泉……”

* 백운거사,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 이규보李奎報(1168~1241)

여름날에(夏日卽事) 二首(제2수) 하일즉사

輕衫小簟臥風櫺, 夢斷啼鶯三兩聲

密葉翳花春後在, 薄雲漏日雨中明

가벼운 적삼에 작은 대자리 깔고 바람 부는 난간에 누웠다가

찌꼬리 우는 두서너 소리에 꿈에서 깨어나니

무성한 잎에 가려진 꽃이 봄 지나서도 남아있고

엷은 구름에 새어 나오는 햇빛이 빗속에 밝구나.

주석: 櫺(櫺)은 격자창이다. 처마의 뜻도 있다. ‘櫺檻’, ‘檻櫺’로 쓰이는데 격자창이 있는 난간의 뜻이다.

서거정徐居正, 『동인시화(東人詩話)』, “清新幻妙, 閑遠有味.”

허균許筠, 『성수시화惺叟詩話』, “讀之爽然.”

「묘음卯飲」-쌍운雙韻

今朝飲狂藥, 頗覺頭岑岑.

尙難剛斷却, 輒欲緩愁心.

오늘 아침 광약을 마셨더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직은 박절하게 끊기 힘들어 번번히 울적한 마음 달래려드네.

고려 무신정권 시대 문단의 제1인자 이규보李奎報는 당대를 대표하는 술꾼이기도 했다. 광약, 즉, 사람을 미치게 하는 약이란 바로 술이다. 묘음卯飲은 묘시卯時(오전 5~7시)에 마신 술이란 뜻이다. 짝수 구 끝에 평성 침侵 운목 계열의 잠岑과 심心자로 압운하고, 홀수 구 끝에 입성 藥 운목 계열의 약藥과 각却자를 압운했다. 하나는 평성, 다른 하나는 입성으로 짝을 맞추어 압운한 것이다. 그래서 제목 옆에 쌍운이란 말을 병기했다.

* 목은牧隱 이색李穡

부벽루浮碧樓

昨過永明寺, 暫登浮碧樓.

城空月一片，石老雲千秋.

麟馬去不返，天孫何處遊.

長嘯倚風磴，山青江水流.

어제 영명사 들렀다가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텅 빈 성엔 조각달 하나, 오래된 바위엔 천 년의 구름.

기린말은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천손은 어느 곳에서 노니시는가.

길게 휘파람 불며 바람 부는 언덕에 서니

산은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는구나.

천손天孫은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解慕漱와 하백河伯의 딸 유화柳花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고구려 시조始祖인 동명왕東明王을 말한다. 동명왕은 기린말을 타고 하늘에 조회朝會갔다는 전설이 있다.

참고:

정도전鄭道傳

永明山下大江流，畫舸來尋浮碧樓.

風笛正高天欲暮，煙波渺渺使人愁.

영명산永明山 아래 큰 강 흐르는데, 화선畫船 타고 부벽루 찾았네.

바람은 피리소리 한창이고 날은 저물려는데, 아득한 연파煙波 시름을 자아내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51권 평안도平安道 평양부平壤府』

*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1431~1492)

佔畢齋之詩 稱爲冠冕者 實非誇也 每誦其細雨僧縫衲 寒江客棹舟 則未嘗不服其精細 十年世事孤吟裡 八月秋客亂樹間 則未嘗不服其爽朗 風飄羅代盖 雨蹴佛天花 則未嘗不服其放遠也

점필재의 시가 으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실로 과장이 아니다.

이슬비에 증은 장삼을 꿰매고

차가운 강에는 나그네가 노 저어가네.

細雨僧縫衲，寒江客棹舟.

그의 시를 암송하면서 정밀하고 세세함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십 년 세사 속에 홀로 읊조렸고

팔월의 가을 나그네 어지러운 숲에 있네.

十年世事孤吟裡, 八月秋客亂樹間.

이 시의 상쾌한 맛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거센 바람에 신라 때의 일산 펄럭이고

비는 연꽃에 떨어지는구나.

風飄羅代蓋, 雨蹴佛天花.

시의 호방하고 고원함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신희申欽(1566~1628), 『청창연담晴窓軟談』

* 광진자狂眞子 홍유손洪裕孫(1431-1529)

將進酒

朝把陳篇至日斜, 아침에 책을 펼치면 하루 해 저물도록 읽고

細推今古感偏多. 곰곰이 고금을 생각하니 감개 무량일세.

明妃以色埋青塚, 明妃(왕소군)는 미색으로 靑塚에 묻혀 있고

屈子懷忠死汨羅. 屈原은 충성을 품고 먹라수에 빠져 죽었지.

金谷無人空綠草, 金谷(석송의 금곡원)엔 사람 없어 푸른 풀만 우거졌고

蒼梧有墓只啼鴉. 蒼梧(순임금의 무덤, 제왕의 죽음)의 무덤엔 갈까마귀만 울어대네.

賢愚貴賤同歸盡, 賢愚貴賤 따질 것 없이 모두 같은 곳으로 돌아가니

其柰平生不醉何. 어찌 평생토록 취하지 아니할까?

* 충암冲菴 김정金淨(1486~1521)

金提學淨 坐黨禍 杖流濟州 至海南之海涯 憇道傍老松下 吟成三絕 白松木而書之曰:

제학 김정이 당화에 연좌되어 장을 맞고 제주로 유배 가다가 해남 바닷가에 이르러 길옆의 노송 아래서 잠시 쉬면서 절구 세 수를 읊조리며 지어 소나무 흰 곳에 썼다.

더운 정자에 목말라 죽어가는 백성 덮어주고자

바위투성이 골짜기 멀리 떠나와 긴 몸을 구부렸구나.

도끼 든 시골 사람들 날마다 찾아오고 상인들의 불에 그을리니

영정(진시황)처럼 공을 알아주는 이 없구나.

欲庇炎亭渴死民, 遠辭岩壑屈長身.

村斧日尋商火煮, 知功如政亦無人.

또 읊기를,
바닷바람 슬픈 소리를 멀리 보내오고
산달 높이 떠오르니 앙상한 그림자 성글다.
곧은 뿌리 땅 속 깊이 닿아 있어
눈서리 몰아쳐도 끄덕 없다네.
海風吹送悲聲遠, 山月高來瘦影疎.
賴有直根泉下到, 霜雪標格未全除.

또 읊기를,
가지는 꺾이고 잎은 흐트러진 머리 같은데
도끼에 잘리고 남은 형체 모래 위에 누웠네.
동량이 되려던 꿈, 아아 끝나버렸구나.
이리저리 엮어서 신선 타는 뗏목이나 되었으면.
枝條摧折葉鬢髣, 斤斧餘形欲臥沙.
望絕棟樑嗟已矣, 槎牙堪作海仙查.

『사재척언思齋摭言』 8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

金淨이 기묘사화에 연좌되어 매를 맞고 제주에 유배되어 가다가 해남의 바닷가에 이르러 길 옆 노송 아래서 쉬었다. 그 때 절구 세 수를 지어 소나무 껍질을 하얗게 벗기고 이렇게 썼다.

(원문은 위 참조)

사림士林들이 이 시들을 전해 읊으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다.

* 백호白湖 임제林悌(1549~1587)

高唐道中

고당 지나는 길 눈보라 거센데
칼 한 자루 거문고 하나 들고 천리 가는 나그네
동자는 추워하고 말은 지쳐 의지할 곳조차 없네만
시 읊조리고 노래 부르나니 신들린 듯 하여라.
까마귀 우는 교목엔 저녁연기마저 차갑고

개 짓는 외로운 마을 백성들은 가난하네.
 문득 아련한 고향생각 일어나니
 금강(錦水) 가에 매화 피어 남녘은 봄이겠지.
 大風大雪高唐路, 一劍一琴千里人.
 僮寒馬病却無賴, 嘯志歌懷如有神.
 鴉啼喬樹暮煙冷, 犬吠孤村民戶貧.
 悠悠忽起故園思, 錦水梅花南國春.

임제가 나주를 떠나 서울로 가는 길 남강가 마을인 고당을 지나고 있다. 평생 지니고 다녔다는 검과 거문고를 말에 싣고. 허균許筠과 허난설현許蘭雪軒의 스승이며 삼당시인三唐詩人 중 한 명인 손곡蓀谷 이달李達은 임제의 시를 ‘능수能手’라고 평했다.

선조 시대부터 인조시대까지 문인으로 활동한 양경우梁慶遇의 『제호시화霽湖詩話』12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

백호 임제가 시를 지을 때 번천 두목을 배워 세상에 이름이 크게 났다. 이달이 일찍이 사람들의 시를 논하여 품평할 때 임제에 이르러서 그를 가리켜 능란한 솜씨(能手)라고 했더니 듣는 이들이 모두 훌륭한 비유라고 생각했다. 임제가 젊었을 때 호서 지방에서 서울로 오고 있었다. 때는 마침 추운 겨울이라 바람과 눈이 하늘 가득하였는데, 길가에서 읊시 한 수를 이루었다.

高唐道中(고당을 지나며) (원문 생략)

고당은 지나온 지명(남강가 마을 이름)이다. 대곡大谷 성운成運(1497~1579년) 선생이 이 시를 보고 그 얼굴을 보고자 했다. 임제가 마침내 나아가 절하기 매우 기뻐했다. 그 뒤에 우계牛溪 성혼成渾이 이조참판이 되었을 때 그가 재주를 가지고도 침체한 것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려고 했다. 그래서 맞이하여 이야기해보고 그가 세속을 벗어날 만한 기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청반淸班에 임명하려고 했으나 얼마가지 않아 병으로 죽었다. 그가 지은 시는 궁태窮態가 없는데도 끝내 떨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참고: 송강松岡 조사수趙士秀(1502~1558년)가 제주목사로 나갔을 때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1496~1568년)이 그에게 이런 시를 지어주었다.

일찍이 남악에 올라 바라보니
 외로운 섬 바다 가운데 있네

뱃길은 서쪽으로 절강에 통하고
 좋은 말은 하늘의 방성에 응했구나
 제주의 벼슬이란 귀양과 다른 것 없어
 이번의 이별이 제일 가슴 아프네.
 嘗登南岳望, 孤島海中央.
 舟楫西通浙, 驂騑上應房.
 爲官何異謫, 此別最堪傷

끝 구절은 잊어버려 기억이 나지 않으나 사대부 사이에서는 모두 이 시를 고인의 기상
 이 있다고 여겼다. 권응인權應仁 『송계만록松溪漫錄』23

방성: 28수의 하나로 천사天駟, 거마를 주관하므로 말은 이 별의 정기를 타고 난다. 『진
 서』 「천문지」

* 박은朴闇(1370(공민왕 19)~1422년)

“음취헌挹翠軒(박은朴闇)의 시, 탁영濯纓(김일손金駟孫)의 문장.”

김종직의 문인인 남지정南止亭(지족당知足堂 남곤南袞)의 말.

조선의 천재 시인으로 임제林悌와 박은朴闇을 거론하는 이들이 많다. 문학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김시습→허균→김만중→박지원으로 이어지는 계맥系脈에 임제
 를 끼고, 조선의 양대 천재시인으로 박은朴闇과 임제를 들기도 한다.

福靈寺

절은 신라의 옛 건물임에도
 천불은 모두 서쪽 천축국에서 오셨네.
 그 옛날 신인도 대외를 만나지 못해 헤맸는데
 지금의 복지는 천태산과 같구나.
 봄날 흐린 하늘 비 내리려는지 새들은 지저귀고
 늙은 고목은 무정하여 바람만 스스로 애달파 하네.
 세상만사 한 바탕 웃음거리 될 뿐이니
 푸른 산에서 지난 세월을 둘러보니 그저 뜬 먼지일세.
 伽藍却是新羅舊, 千佛皆從西竺來.
 終古神人迷大隗, 至今福地似天台.
 春陰欲雨鳥相語, 老樹無情風自哀.
 萬事不堪供一笑, 青山閱世只浮埃.

주석

복령사福靈寺: 개성 송악산 서쪽 기슭에 있었던 사찰.

박은朴聞: 자는 중열仲說, 호는 읍취헌挾翠軒. 경상북도 고령 출신. 어릴 때부터 재주가 출중하여 당시 대제학 신용개申用溉의 사위가 되고, 17세 진사가 되고 다음해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는 등 신진 관료로서 출세가 보장되었다. 연산군 치하에서 유자광柳子光 등을 비판하다가 23세에 파직되고 26세에 갑자사화로 인해 사상되었다. 이행李荇과 함께 해동강서시파이며, 《읍취헌유고》가 남아 있다.

*가람伽藍: 승가람마僧伽藍摩를 줄인 말. 승려僧侶가 불도를 닦는 곳

*각시却是: 이백, 「송기수재유월送紀秀才遊越」, “곧바로 알겠네, 봉래의 바위가 도리어 큰 거북의 비녀임을(卽知蓬萊石 却是巨鼇簪).” 도리어……하다.

*천불千佛: 과거世過去世, 현재世現在世, 미래세 천불의 통칭.

*종고終古: 옛날부터. 『초사楚辭』, 「애영哀郢」, “옛날부터 살던 곳을 떠남이며, 지금은 소요하며 동쪽으로 왔네(去終古之所居兮, 今逍遙而來東).”

*신인神人: 『장자·소요유』, “至人無己, 神人無功, 聖人無名.” 여기서는 황제 헌원씨軒轅氏를 지칭함.

*대외大隗: 대도大道를 의인화하여 부르는 명칭. 『장자·徐無鬼』, “黃帝將見大隗乎具茨之山. 至於襄城之野, 七聖皆迷, 無所問塗. 適遇牧馬童子, 問塗焉.” 구자산이 대외산(하남성 신정현新鄭縣)을 지칭한다. 황제 헌원씨가 이 산에 들어가서 대외를 모시는 목동으로부터 천하를 다스리는 이치에 관하여 들었다고 한다.

*사천태似天台: 당대 시인 방간方干, 「題睦州郡中千峰榭」, “어찌 평지가 천태와 같음을 알았겠는가? 붉은 문 깊게 들어가니 별다른 오솔 길 열리네(豈知平地似天台, 朱戶深沉別徑開).”

*만사불감: 송대 승려 도찬道璨, 「서재 오제형의 「추양암거」에 화답하여(和恕齋吳提刑秋陽菴居)」, “비바람에 침상을 마주하고 그래도 좋아할만 하니, 온 천지의 천만 가지 일은 다 들어줄 수가 없으시리(風雨對床差可喜, 乾坤萬事不堪聞).”

*공일소: 두보, 「낭주에서 처자를 거느리고 촉산으로 되돌아가면서(自閬州領妻子却赴蜀山行)」, “정말 한 바탕의 웃음꺼리를 제공하니, 흡사 이 궁색한 걸음을 위로하는 듯하네(真供一笑樂, 似欲慰窮途).”

*청산열세: 송 사몽경史蒙卿, 「느낀 바 있어(有感)」, “길이 막히니 어떻게 울음을 면할 수 있겠는가? 울음을 그치고서 한바탕 크게 노래 부르네. 흰 해는 한 해가 빨리 가기를 재촉하나, 푸른 산은 세상 바뀔을 많이 보았다네. 뜬 인생은 종래부터 흘러 뒤집어졌으니, 남은 한 갈아지울 수 없다네(途窮那免哭? 哭罷一高歌. 白日催年急, 青山閱世多. 浮生從潦倒, 遺恨不消磨).”

제5강

■ 한시를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5-1. 한시의 이해와 감상

- 가. 시의 맛(詩味)이란 무엇인가?
- 나. 시평詩評
- 다. 풍격이란 무엇인가?
- 라. 인품과 시품
- 마. 고전 시가의 풍격론 - 體式, 詩品, 詩格
- 바. 시로 시를 논하다(以詩論詩)
- 사. 해석의 차이
- 아. 시안詩眼을 찾아서

한시를 읽어보면 뭔가 알 수 없는 기분 좋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감동感動’이라고 말하지만 딱히 감동적이지 않더라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은근하면서도 짜릿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작품에서 우리나라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시인의 인격에서 풍겨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시를 감상하며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기 힘든 것은 시의 묘사나 표현이 사물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시인의 감성이 어우러져 이른바 ‘정경교응’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시인이 그려내는 경물은 남전(藍田. 좋은 옥의 생산지)에 햇볕 따스함에 좋은 옥에서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과 같아서 바라볼 수 있으나 눈앞에 둘 수는 없다. 형상 밖의 형상, 경물 밖의 경물을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詩歌之景，如藍田日暖，良玉生煙，可望而不可置於眉睫之前也。象外之象，景外之景，豈容易可談哉! (사공도, 『사공표성문집司空表聖文集』, 「여극포서與極浦書」)

대체로 시가 시일 수 있는 까닭은 신운神韻이 물상物象 밖에 존재하고, 물상이 언어 밖에 존재하고, 언어가 의미 밖에 존재하는 데 있다.

蓋詩之所以爲詩者，其神在象外，其象在言外，其言在意外。(팽로彭輅, 『시집자서詩集自序』)

이러하니 시를 짓기도 어렵지만 감상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이해와 감상을 위해 시의 맛(詩味), 시풍詩風, 풍격風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5-1. 한시의 이해와 감상

가. 시의 맛(詩味)이란 무엇인가?

五言詩는 문사의 요체이니 대저 五言으로 된 여러 작품들은 우러나오는 맛이 있으며 이 때문에 세속의 기호에 합치되는 바가 있다. 이 어찌 五言詩가 사물에 근거하여 형상을 만들어 내고, 정감을 다하여 외물을 묘사함에 있어서 가장 세밀하고 절실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五言居文詞之要，是衆作之有滋味也，故云會於流俗．豈不以指事造形，窮情寫物，最爲詳切者耶! 중영鍾嶸, 『시품』

五味, 酸、苦、甘、辛、鹹. 『黃帝內經』

老子, “無味之味”²³⁾

王弼, “담담하여 초연함으로 미를 삼으니 다스림의 극치이다.”²⁴⁾

無味를 염淡으로 대치하고, 道의 체득을 맛을 느끼는 것에 비유하였다.

魏晉代에 들어와 ‘味’ 개념을 문학에 대입하기 시작했다. ‘味’를 문학이 주는 은미한 맛에 대비시킨 것은 陸機의 『文賦』에서 비롯된다. 그는 문장의 病弊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때로 문자를 청신하면서도 완악하게 쓰고 매번 번다한 문사를 제거하고 지나치게 부화한 것을 잘라내도 여전히 五味를 집어넣지 않은 고기즙인 태羹의 남아도는 맛(大羹之遺味)이 부족하여 붉은 줄이 달린 현악기로 텅 빈듯한 단조로운 곡조를 타는 것 같다. 그래서 비록 한 사람이 노래를 불러 세사람이 화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저 전아하기만 할 뿐 아름답지 못하다(或清虛以婉約，每除煩而去濫，闕大羹之遺味，同朱弦之清汜．雖一唱而三嘆，固既雅而不艷)”

인용문에 나오는 ‘遺味’는 詩歌가 주는 여운의 맛을 뜻한다. 劉勰 역시 『文心雕龍』에서 ‘味’ 개념을 대량으로 활용하고 있다.²⁵⁾ 안지추顏之推, 『안씨가훈顏氏家訓·文章』, “性靈을陶冶하고 얌전히 풍간하고 좋은 맛인 滋味에 들어가니 이 또한 즐거운 일이요. 행하고 남음이 있으면 곧 가히 익힐 만하다(至於陶冶性靈，從容諷諫，入其滋味，亦樂事也，行有餘力，則可習之)”²⁶⁾라고 ‘滋味’라는 개념을 詩와 관련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鍾嶸의 ‘滋味’ 개념은 鍾嶸 자신의 創案은 아니

23) 老子, 『道德經』 63장, “爲無爲, 事無事, 味無味”

24) 王弼, 『老子道德經注』, “以恬淡爲味, 治之極也”

25) 위 인용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余味日新” 「宗經」, “余味曲苞” 「隱秀」

26) 『顏氏家訓·文章篇』

고, 기존의 개념을 자기 나름으로 채용, 이를 그 자신이 추구한 가장 이상적인 五言詩歌의 특징을 개괄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 함축미

한시의 맛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함축미에 대해 살펴보겠다.

중국 남송 말 문인인 위경지魏慶之는 자신의 시학서인 『시인옥설詩人玉屑』권10, 「含蓄」, 「尚意」에서, “詩文要含蓄不露, 便是好處. 古人說雄深雅健, 此便是含蓄不露也.” 라고 하여 시가의 함축미를 강조하였으며, 「체용体用」에서 시를 지을 때 열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一曰高不可言高, 二曰遠不可言遠, 三曰閒不可言閒, 四曰靜不可言靜, 五曰憂不可言憂, 六曰喜不可言喜, 七曰落不可言落, 八曰碎不可言碎, 九曰苦不可言苦, 十曰樂不可言樂.”이라고 했다.

한시를 읽으면서 과연 함축미의 묘함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것 또한 시를 읽는 맛일 터이다.

나. 시평

고전 한시에서 評語로서 풍격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감탄 용어--美哉, 盡美, 盡善, 颯颯乎

내용 용어--思無邪, 樂而不淫, 哀而不傷, 溫柔敦雅

내용과 형식 용어--其詞溫而雅, 其義皎而朗--王逸의 『離騷經序』

묘술적 용어--長江大河的奔流(韓愈), 萬斛泉源的涌出(蘇軾), 化流易爲凝重(李賀)..

개념적 용어--含蓄, 神妙, 豪放, 纖穠.

* 중영, 『시품』의 예

曹植의 시가는 『詩經·國風』에서 연원한다. 骨氣가 특별나고 높은 기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수식이 화려하고 풍부하다. 정감은 전아하면서도 원망이 깃들여 있으며, 文質彬彬하여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詩歌가 사방으로 광채를 빛내 고금에 미치니 우뚝 서 못 무리들의 으뜸이 된다.

其源出於國風. 骨氣奇高, 詞彩華茂. 情兼雅怨, 體被文質. 粲溢今古, 卓爾不群. 「魏陳思王植」

阮籍의 詩는 『詩經·小雅』에 연원을 두고 있다. 字句에 인위적인 雕琢의 공교로움

이 보이지 않는다. 그의 「咏懷」는 진정 읽는 이의 성령을 도야시키고 그윽한 심사를 계발시킨다고 말할 수 있겠다. 언사는 비근한 예를 들어 쉽지만 드러내고자하는情趣는 세상 밖에 이를 정도로 심원하다. 그 기백이 浩浩蕩蕩하여 『詩經』의 풍아에 상당하니,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구차함을 잊고 흥금을 열어 원대한 곳에 이르게 한다. 자못 感慨에 찬 싯구가 적지 않다. 그 詩境은 깊고 특 트여 드러내고자 하는 정취를 얻기가 쉽지 않다.

其源出於小雅. 無雕蟲之功. 而咏懷之作, 可以陶性靈, 發幽思. 言在耳目之內, 情寄八荒之表. 洋洋乎會於風雅, 使人忘其鄙近, 自致遠大, 頗多感慨之詞. 厥旨淵放, 歸趣難求. 「晉步兵阮籍」

문사가 온후하고 아름다우며, 의경이 슬픔에 젖어있으면서도 심원하다.

文溫以麗, 意悲而怨.(古詩)

시문이 대부분 처량하고 애상에 젖어 있으니, 원망을 드러내는 시 풍격에 속한다.

文多悽愴, 怨者之流.(李陵)

정감은 전아하면서도 원망이 깃들여 있다.

情兼雅怨.(曹植)

曹操는 옛스럽고 질박하며 슬픈 구절이 심히 많았다.

曹公古直, 甚有悲涼之句.(曹操)

다. 풍격이란 무엇인가?

‘풍격’이란 용어는 고대에 이미 존재했지만, 현재 문학용어로서 ‘풍격’의 의미와 다르다. 우선 현대적인 의미로 풍격은 다음과 같다.

“문예작품이 지닌 體態(문체적 양태)의 예술적 특징으로 특히 강력한 힘을 지닌 특징을 뜻한다. 본래 風度,品格 등 인물 풍격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단정짓고,아울러 “중국 고대문예 평론에서 ‘풍격’은 내재적인 宗旨나 형이상학적인 神韻 등을 포함하지는 않는다.”²⁷⁾

27) 成復旺 主編, 『中國美學範疇辭典』, 중국인민대학출판사, 646-647쪽. 『중국미학범주사전』은 미학 범주를 크게 美論, 審美論, 形態論, 創作論, 作品論과 效能論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는데, ‘풍격’ 개념은 마지막 작품론과 효능론 부분에 삽입되어 있다. 풍격을 “문예작품이 지닌 體態(문체적 양태)의 예술적 특징으로 특히 강력한 힘을 지닌 특징을 뜻한다. 본래 風度,品格 등 인물 풍격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단정짓고, 아울러 “중국 고대문예 평론에서 ‘풍격’은 내재적인 宗旨나 형이상학적인 神韻 등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성복왕의 견해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풍격에 내재적인 종지나 형이상학적인 신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뜻이 정확하지 않다.

“풍격이란 작가의 창작실천 속에서 점차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작가의 창작견해가 독특한 예술형식을 통해 표현된 것이며, 한 작가가 전체작품 속에 반영된 기본적인 특색이다. 풍격을 통해 우리는 작가의 창작개성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작가가 성숙되었다는 표식이다. 풍격은 주로 작가 자신에게 드러나며 작가의 풍격은 또한 시대풍격, 계급풍격, 민족풍격, 그리고 유파 풍격을 형성한다.”²⁸⁾

그러나 고대에는 이런 풍격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유사어로 體, 調, 韻, 格 등으로 풀이되거나 설명되는 경우가 허다했다.²⁹⁾ 또한 格調, 風韻, 風味 등도 사용되었다.

* 중국에서 문학풍격은 인물풍격(인물품조人物品藻)에 관한 논의에서 시발되었다. 『세설신어』에 보면 인물 품평에 관한 다양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원례는 풍격이 수려하고 엄정하였으며, 스스로 높은 긍지를 지녀 천하에 명분의 가르침을 펼치고 시비를 바로잡는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고자 했다(李元禮風格秀整, 高自標持, 欲以天下名教是非爲己任).” 「德行」

“혜강은 키가 7척 8촌이고 풍모가 특히 빼어났다. 보는 이가 감탄하여 말하길, ‘바람이 불어오듯 깔끔하고 엄숙하며, 상쾌하고 청준하다.’라고 했고, 혹자는 ‘쌌아! 하고 소나무 아래 바람처럼 높다랗게 천천히 분다.’라고 했다. 산공(산도山濤)가 말하길, ‘혜숙야嵇叔夜(혜강)의 사람됨은 외로운 소나무가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우뚝하며, 취했을 때는 옥산이 장차 무너지려는 것처럼 흔들거린다.’라고 했다.

嵇康身長七尺八寸, 風姿特秀. 見者嘆曰: “蕭蕭肅肅, 爽朗清舉.”或云: “肅肅如松下風, 高而徐引.”山公曰: “嵇叔夜之爲人也, 巖巖若孤鬆之獨立; 其醉也, 傀俄若玉山之將崩.”有人語王戎曰: “嵇延祖卓卓如野鶴之在雞羣.”答曰: “君未見其父耳.” 好友山濤稱其 “站時就如孤鬆獨立; 醉時就似玉山將崩.” 「용지容止」

라. 인품과 시품

“시는 그 사람과 같아 가히 삼가지 않을 수 없다(詩如其人, 不可不慎).” 청대 문인 시윤장施閏章이 한 말이다. 청대 원매袁枚는 《수원시화隨園詩話》에서 “시는 참

28) 吳功正, 『文學風格七講』, 상해문예출판사, 6쪽.

29) 명대 胡應麟의 『詩藪』 외편 권3에 보면 “甚矣, 詩之盛於唐也! ……其調, 則飄逸, 渾雄, 沉深, 博大, 綺麗, 幽閑, 新奇, 猥瑣, 靡弗詣矣”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調’는 ‘풍격’의 뜻이다.

되기가 어려운데, 참된 성정이 있어야만 이후에 참된 시가 있기 때문이다(詩難其真也, 有性情而後真).”라고 했다. 이런 까닭에 유희재劉熙載는 《예개藝概·시개詩概》에서 “시품은 인품에서 나온다(詩品出於人品).”고 단언했다.

* 좀스러운 자는 그 글이 자잘하다.

수나라 사상가 왕통王通(584~617)은 『문중자文中子』에서 이렇게 말했다.

“글 하는 이들의 행실은 알아볼 수 있다. 사령운은 소인이라 그의 글은 오만한 데, 군자는 조심스럽다. 심약은 소인이라 그의 글은 야한데, 군자는 점잖다. 포조와 강엄은 옛날의 고집 센 사람이라 그 글이 급하고 원망스러다. 오균과 공규는 옛날의 거친 사람들이 그 글이 괴이하고 노기를 띠고 있다. 사장과 왕응은 옛날의 좀스러운 사람이라 그 글이 자잘하다. 서릉과 유신은 옛날의 허풍쟁이들이라, 그 글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사조는 얄팍한 사람이라 그 글이 찻싸고, 강충은 이상한 사람이라 그 글이 허황한데, 모두 옛날의 이롭지 못한 이들이다.

子謂：文士之行可見，謝裊運小人哉，其文傲，君子則謹。沈休文小人哉？其文冶，君子則典。鮑昭、江淹，古之狷者也，其文急以怨。吳筠、孔珪，古之狂者也，其文怪以怒。謝莊、王融古之纖人也，其文碎。徐陵、庾信，古之誇人也，其文誕。……謝朓，淺人也，其文捷。江摠，詭人也，其文虛。皆古之不利人也。”

* 동진 시인 도연명은 “조용하여 말이 적고 영리를 도모하지 않았으며(閑靜少言，不慕榮利)”， “시와 술을 마음껏 즐기고 성격이 강직하고 진솔한(縱情詩酒，性剛真率)” 이었다. 「귀전원거歸園田居」 다섯 수 가운데 제1수에서 이렇게 읊었다.

젊어서부터 세속과 맞지 않아, 타고나길 본래 자연을 좋아하였으나.

어찌다 진애(塵埃)의 그물 안에 떨어져 어느덧 삼십 년이 흘렀다.

새장에 갇힌 새는 옛 숲을 그리워하고 작은 연못 물고기 옛 살던 곳을 그리듯
남쪽 황무지 일구며 졸박함을 지키려 전원으로 돌아왔네.

네모난 텃밭 여남은 이랑에 초가집 여덟아홉 간.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는 뒤 처마에 그늘을 드리우고, 복숭아 자두나무 당 앞에 늘어섰다.

아스라이 먼 곳에 인가가 있어, 아련히 마을 연기 피어오르고

동네 안에서 개 짖는 소리, 뽕나무 위에 닭 우는 소리.

집안에 번거로운 일 없고, 텅 빈 방안에 한가함만 감돈다.

새장 속에 갇혀 살다 이제야 다시 자연으로 돌아왔도다.

少無適俗韻，性本愛丘山。誤落塵網中，一去三十年。

羈鳥戀舊林，池魚思故淵。開荒南野際，守拙歸園田。
 方宅十餘畝，草屋八九間。榆柳蔭後簷，桃李羅堂前。
 曖曖遠人村，依依墟里煙。狗吠深巷中，鷄鳴桑樹顛。
 戶庭無盡雜，虛室有餘閒。久在樊籠裏，復得返自然。

시인은 관리 사회를 ‘진망塵網’, 즉 진애의 그물로 보고 자신이 그 안에 투신한 것을 일러 ‘기조羈鳥(새장에 갇힌 새)’, ‘지어池魚(작은 연못 물고기)’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원으로 돌아가 은거함을 일러 ‘번룡樊籠(울타리)’을 돌파하여 자연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인의 마음속에서 순박하고 염정恬靜(편안하고 고요함)한 전원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정토낙원으로 오염된 관리 사회와 대립되는 곳이다. 그는 아름다운 전원의 풍광을 세세하게 묘사하면서 행간에 전원생활에 대한 작가의 애뜻한 열애를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그의 시는 고결하고 그윽한 전원생활과 허위와 거짓이 판치는 관리 사회를 선명하게 대비시키면서 감동적인 예술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 이덕무의 시

「추효불매秋曉不寐」

그저 한 손으로 움켜쥐어 반쯤 천치마냥 거들고
 사람들에게 휩쓸려 치욕스럽게도 부화뇌동했네.
 아무런 자미도 없어 세상사 점차 싫어지고
 후세 이름 남기려는 욕심에 공적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네.
 좋은 친구 만나면 내 진심 전하고
 명현을 매우 사모하니 눈앞에 나타나셨지.
 푸른 하늘만이 나의 거취를 주관할지니
 일이 어긋나도 순리대로 운용하리.
 祇把全迂補半癡，隨人恥做强淋漓。
 太無滋味推移厭，差欲流芳樹立遲。
 佳友倘逢輸肺腑，名賢劇想現須眉。
 青天管領吾行止，事到違心順遣之.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 제10권 「雅亭遺稿」

마. 고전 시가의 풍격론 - 體式, 詩品, 詩格

고전 시가의 문체 풍격에 관한 논의는 體性, 詩式, 詩格 등의 제목으로 이루어졌다. 유협은 『문심조룡』 「體性」에서 문체의 풍격에 관해 논의한 바 있고, 당대에

교연皎然은 「詩式」, 사공도司空圖는 「二十四詩品」을 통해 시의 풍격에 대해 논의했다. 이외에도 왕창령王昌齡의 『詩格』, 백거이白居易의 『金鍼詩格』, 이교李嶠의 『評詩格』, 제기齊己의 『風騷旨格』 등도 모두 현재적 의미의 풍격론이다.

유협은 『문심조룡·체성』 전아典雅, 원오遠奧, 정약精約, 현부顯附, 번옥繁縟, 장려壯麗, 신기新奇, 경미輕靡 등 8가지로 나눴다.

皎然은 『詩式』 「변체유일십구자辯體有一十九字」에서 高、逸、貞、忠、節、志、氣、情、思、德、誠、閒、達、悲、怨、意、力、靜、遠 등 19개 한 글자로 시의 풍격을 나누었다.

사공도司空圖는 『24詩品』에서 시의 풍격을 24개로 나누었다.

雄渾、沖淡、纖穠、沉著、高古、典雅、洗煉、勁健、綺麗、自然、含蓄、豪放、精神、縝密、疏野、清奇、委曲、實境、悲慨、形容、超詣、飄逸、曠達、流動

嚴羽는 『滄浪詩話·詩辯』에서 언외지의와 함축미를 강조하면서 시의 법도를 5가지, 품격을 9가지로 나누었다.

“詩之法有五：曰體制、曰格力、曰氣象、曰興趣、曰音節. 詩之品有九：曰高、曰古、曰深、曰遠、曰長、曰雄渾、曰飄逸、曰悲壯、曰淒婉.”

허균은 『성수시화』에서 “清勁, 清亮, 清麗, 清贍, 清邵, 清越, 清壯, 清絕, 清切, 清鬯, 清楚” 등 ‘清’계열의 풍격 용어 11개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清勁’은 강직하고 굳센을 의미하는 ‘勁’의 이미지를 투사하여 맑은 시의 경계 속에 강직하고 굳건한 시인의 기상이 엿보이는 시를 뜻하고, ‘清切’은 절박하고 절실함, 또는 애처롭고 서러움을 의미하는 ‘切’의 이미지를 투사하여 맑고 깨끗한 시의 경계 속에 절박하고 애처로운 시인의 정서를 담고 있는 시를 뜻하며, ‘清楚’는 여리고 고음, 또는 가늘고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楚’의 이미지를 투사하여 맑고 깨끗한 시의 경계 속에 화려하지 않은 아름다움이나 섬세하고 부드러운 시인의 정서를 담고 있는 시를 뜻하고, ‘清越’은 탈속적이고 빼어남을 의미하는 ‘越’의 이미지를 투사하여 맑고 깨끗한 시의 경계 속에 세속을 뛰어넘는 빼어난 풍모와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시를 뜻했다. 尹載煥, 「『惺詩話』속 風格 用語를 통해 본 許筠의 ‘清’ 系列 風格 研究 - ‘清勁’ · ‘清切’ · ‘清楚’ · ‘清越’을 중심으로」 참조

바. 시로 시를 논하다(以詩論詩)

* 시로 시를 논하는 시는 두보의 「희위육절구戲爲六絕句」에서 시작되었으며, 금대 원호문元好問의 「논시절구삼십수論詩絕句三十首」가 유명하다. 청대 왕사정王士禎은 원호문의 논시절구를 모방하여 「방원유산논시절구傲元遺山論詩絕句」를 지었다.

* 조선에는 신위申緯가 「동인논시절구東人論詩絕句」를 지었다. 그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長嘯牧翁倚風磴，綠波添淚鄭知常.

雄豪艷逸難上下，偉丈夫前窈窕娘.

긴 휘파람 부는 牧翁(목옹)은 바람 부는 돌층계에 기대어 있고

정지상은 푸른 물결에 이별의 눈물 더한다.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우열을 따지기 어려우니

위엄 있는 장부 앞에 요조숙녀가 앉아 있는 듯하네.

참조: 이 시는 고려 이색이 지은 「부벽루」와 정지상이 지은 「送人」을 평한 내용으로 3구의 옹호雄豪는 이색 시, 염일艷逸은 정지상의 시를 비유한다.

신위申緯(1769 ~ 1845): 자는 한수漢叟, 호는 자하紫霞, 경수당警修堂.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리었고 14세 때 정조가 그를 불러 크게 칭찬하였다. 1799년 알성 문과에 급제하여 도승지,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으며, 시서화詩書畵에 모두 뛰어나 삼절三絶이라 일컬어졌다. 그가 쓴 〈동인논시절구東人論詩絕句〉 35수는 신라의 최치원으로부터 신위 재세 시절의 시인의 작품을 평가한 시평집이다.

사. 해석의 차이

* 백발삼천장을 어떻게 해석할까?

白髮三千丈，緣愁似箇長。不知明鏡裏，何處得秋霜.

흰 머리 풀어헤쳐 삼천 장 됨은 근심으로 이다지 길어진 걸세.

해맑은 거울 속 그 어디메에, 가을 서리 얻었는가 아지 못하네.

李白, 「秋浦歌」 전체 17수 가운데 제15수.

과장인가? 참신한 비유인가?

제12수는 “강물은 마치 흰 비단 같고, 물과 하늘 맞닿아 평평하네. 밝은 달빛 타고 노닐만 해라. 꽃 보며 술 배에 올라타리라(水如一匹練，此地即平天.耐可乘明

月, 看花上酒船.)”라고 하여 달빛 받은 수면은 마치 흰 깃을 펼쳐놓은 듯 곱고, 강물은 하늘과 맞닿아 끝간데를 알 수 없다면 추포의 달밤을 노래했다. 13수에서도 “맑은 물은 흰 달을 깨끗이 씻어, 달 밝자 백로가 날아오르네. 淥水淨素月, 月明白鷺飛. 郎聽採菱女, 一道夜歌歸”라고 하여 달밤의 경물을 묘사했다. 그렇다면 ‘백발삼천장’은 시인의 머리가 아니라 달빛을 받아 흰 깃을 펼쳐놓은 듯 길게 흘러가는 추포의 강물 줄기로 보아야 옳지 않을까?(정민, 『한시미학산책』, 120쪽)

鄭夢周, 「征婦怨」

一別年多消息稀, 寒垣存沒有誰知. 今朝始寄寒衣去, 泣送歸時在腹兒.

떠 난지 몇 년인가 소식도 없어,

싸움터에서 임의 생사를 그 누가 알까.

오늘에야 인편에 겨울옷 한 벌 보내노니,

당신 보낼 당시 뱃속에 들었던 아이랍니다.(울며 보내고 돌아올 때 뱃 속에 아이 있었네)(金達鎭 역)

고려 후시 민간의 문란한 성 풍정을 투영하고 있는 사료의 가치를 지닌 작품인가? 아니면 남편을 변방에 보내고, 남편의 생사조차 모르는 여인의 절절한 심사를 노래한 작품인가?

아. 시안詩眼을 찾아서

왕안석은 시를 창작할 때 반복해서 글자를 고치며 퇴고(推敲)를 거듭하였으며, 특히 연자(煉字)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래서 글자마다 정묘(精妙)하여 전편이 밝게 빛난다. 이런 면에서 애송되는 그의 시가 적지 않은데 그 가운데 「금릉에서 단양으로 가는 길에 감회에 젖어(自金陵至丹陽道中有感)」라는 시를 읽어보자.

수백 년 흘러 왕기(王氣) 사라져,

지난 일 어부에게조차 묻기 어려워라.

어원(御苑)은 진나라 옛터 마냥 잡초 속에 묻혔고,

산은 양주마냥 더욱 적막하네.

황량한 보에서 새벽 닭 밝은 달 재촉하여 새벽을 알리고,

텅 빈 사냥터에 늙은 꿩 봄날 끼고 거드름 피우네.

호화롭던 옛 시절은 몇몇 왕릉 잔재로만 남았네만

때로 부장품인 황금조각 저잣거리에 나온다고 하더군.

數百年來王氣消，難將前事問漁樵。
苑方秦地皆蕪沒，山借揚州更寂寥。
荒埭暗鷄催月曉，空場老雉挾春驕。
豪華只有諸陵在，往往黃金出市朝。

이 시는 일종의 영사시(詠史詩)로 지난날을 회고하는 그의 시 가운데 명편에 속한다. 중국 역사에서 이른바 육조(六朝)란 건강(建康: 지금의 강소성 남경시)을 도읍으로 삼은 여섯 나라, 즉 오(吳)와 동진(東晉), 그리고 남조의 송·제·양·진(宋·齊·梁·陳)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 여섯 나라가 번갈아가며 수도로 정했기 때문에 당시 금릉(金陵)은 대단히 변화한 도읍지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육조의 군신들은 황음(荒淫)을 즐기고 부패하여 끝내 나라를 망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시인은 시 첫 구절부터 “수백 년 흘러 왕기(王氣) 사라져, 지난 일 어부에게조차 묻기 어려워라”고 하여 비탄의 감정에 사로잡힌다.

중간 함련(頷聯)과 경련(頸聯)은 금릉이 그 옛날 얼마나 화려하고 번성했는가를 묘사하는 한편 연이어 오늘날 황량하고 적막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련(尾聯)에서는 육조 제왕의 능묘가 도굴되어 시장에 금은이나 옥으로 만든 부장품이 팔린다고 말하고 있다. 평담한 시어 속에 실로 깊은 뜻이 있으니, 옛날에 기대어 오늘을 풍자하는 영사시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

이 시는 물론 전체 시가 가작인데, 특히 시안(詩眼)³⁰⁾이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위 인용시의 시안은 “공장노치협춘교(空場老雉挾春驕)”에 나오는 ‘협(挾)’자인데, 왕안석의 연자(煉字)가 얼마나 정교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맹자·만장』에 보면 “불협장, 불협귀(不狹長, 不挾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벼를 사귀는데 나이가 많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신분이 귀한 것을 자랑하지 말 것이라는 뜻이다.³¹⁾ 그런데 왕안석은 자신의 시에서 ‘협’자를 정반대의 뜻으로 사용하여 야생 닭들이 봄날이 되어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예전 변화하던 도읍지 금릉이 야생 닭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휘돌아다니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하였으니 텅 비고 황량한 들판이 되고 만 옛 성터를 극진하게 묘사한

30) 시안(詩眼)은 말 그대로 시의 눈이란 뜻으로 시의 잘되고 못됨을 결정짓는 중요한 글자를 가리킨다. 소동파(蘇東坡)는 「승려 청순이 수운정을 새로 만든 것에 부처(僧淸順新作垂雲亭)」라는 시에서 “천공은 향배를 다투고 시안은 더하고 덜함이 교묘하다(天功爭向背, 詩眼巧增損)”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시안’이란 글자가 처음 쓰인 예이다. 이후 ‘시안’은 고전 시가에서 창작과 감상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31) 『맹자·만장하』에 나오는 말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만장이 묻기를 ‘감히 여쭙건대 벼를 사귀는 도는 무엇입니까?’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나이 많은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신분이 귀한 것을 자랑해도 안 되고 형제가 권력을 지니고 있음을 자랑하지 말고 사귀어야 할 것이다. 벼이란 그 덕을 베헌하는 것이지 결코 자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협’자 하나를 교묘하게 운용하여 깊은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왕안석이 연자를 중시했다는 것을 말할 때마다 예로 나오는 시가 있으니, 바로 「과주에 배를 대고(泊船瓜洲)」라는 작품이다.

경구와 과주는 강물 하나 사이,
종산은 그저 몇 겹 산을 사이에 두고 있다.
봄바람에 또 다시 강남 언덕 푸르러지는데,
밝은 달은 그 언제나 돌아가는 나를 비추려나.
京口瓜洲一水間,
鍾山只隔數重山.
春風又綠江南岸,
明月何時照我還.

이 시는 희녕 7년(1074년)에 지은 시이다. 왕안석이 신법을 추진한 지 이미 6년이 지나 비록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여전히 보수파의 공격이 그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잠시 물러나기로 마음먹은 그는 재상직을 사퇴하고 강녕으로 가서 지방관으로 있을 생각이었다. 마침내 사직하고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 바로 그 때 이 시를 썼다.

‘경구(京口)’는 현재 강소성 진강(鎮江)시로 장강 남쪽에 바짝 붙어 있는 곳이다. ‘과주’는 현재 양주시 남쪽에 있는데, 진강과 강을 사이에 두고 자리하고 있다. ‘종산’은 남경의 자금산(紫金山)이다. 왕안석은 강서성 임천에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 종산으로 이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종산은 그에게 있어 제 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이다. 시에서 작가는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주에 이르러 포구에 배를 정박시킨 상태이다. 바라보니 산만 몇 구비 넘으면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강남의 황혼에 젖어들면서 밝은 달에 자신의 심사를 기탁하여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 시는 의경이 광활하고 격조가 청신한데, 비록 관장에서 실의한 후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비애나 울분 등의 심경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활달하고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볍고 유쾌한 심정마저 엿보이니 실로 얻기 어려운 작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찬탄할 것은 따로 있다. 그것은 “춘풍우록강남안(春風又綠江南岸)”에 나오는 ‘녹(綠)’자이다. 홍매(洪邁)의 『용재수필(容齋續筆)』에 따르면, 어떤 이가 소장하고 있는 이 시의 초고를 살펴보니 처음 썼을 때는 ‘녹’자가 아니라 ‘도(到)’자

였는데, 나중에 그다지 좋지 않다고 여겼는지 ‘과(過)’자로 바꾸었다. 다시 ‘입(入)’자로 바꾸었다가 또 다시 ‘만(滿)’자로 바꾸는 등 거의 십여 차례나 바꿔 쓴 후에야 비로소 ‘녹’자로 결정했다고 한다.王安석이 볼 때 ‘도’, ‘과’, ‘입’, ‘만’ 등의 글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고 ‘녹’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앞에 나오는 네 글자들은 모두 바람의 유동(流動)에 착안하여 봄바람이 불어온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인데, 오히려 추상적이어서 불어오는 봄바람의 신운(神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녹’자는 이와 달리 봄바람이 불어올 때 생기는 기묘한 효과에 착안한 것이다. 이 글자를 통해 본래 볼 수 없는 봄바람이 선명하고 부드러운 시각적 형상으로 변했다.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니 온갖 풀이 싹을 틔고 자라나기 시작하여 천리 강가에 신록이 물든다. 이렇듯 ‘녹’, 한 글자로 봄바람의 정신과 풍채가 생동감 넘치게 묘사되고 있으며, 은연중에 당대 시인 왕유의 시 「송별」에 나오는 명구 “봄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그대는 언제나 돌아오실는지(春草年年綠, 王孫歸不歸)”³²⁾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밝은 달은 그 언제나 돌아가는 나를 비추려나(明月何時照我還)”는 시구가 또한 자연스럽게 어울려 시의 함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王安석이 위 시에서 쓴 ‘녹’자는 역대 시인들이나 평론가들에게 두고두고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논평은 이미 수를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수도룩하다. 이처럼 시에서 한 글자가 전체 시가에 생기를 불어일으키니, 화룡점정(畫龍點睛)의 기묘한 효과와 비길 수 있을 터이다.

32) “春草明年綠”으로 쓴 판본도 있다.